# 현대불교

제 79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8월 18일 수요일 (음력 7월 9일 · 불기 2554년 · 주간)












# 불교문화가 포교열쇠

## 각정 스님 "통합정보센터 설립 시급"

개신교계가 일간지 광고와 성명서 등을 통해 연일 불교계를 공격 중이다. 정부 지원 예산이 문화재 보수, 템플스테이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불교계에 편중됐다는 것이 개신교계의 주장이다. 불교계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에 개신교계가 비판을 그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소외됐던 불교문화가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문화는 포교의 수단이기 이전에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문화는 민족문화와 다르지 않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선수행, 산사음악회 등은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문화 대중화가 되려면 불교문화 관련 정보를 결집한 통합정보센터와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를 연구 · 개발할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각정 스님은 "선수행,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이 보다 대중화되려면 불교문화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정보센터를 마련하고, 욕구별 ·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평가를 위한 연구센터 설립도 주장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만을 관리하는 불교문화사업단을 확대해 선수행, 산사음악회 등 불교문화 프로그램 전반을 다루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범종단 차원의 통합정보센터를 설립해 불교문화를 종합적으로 관리 · 감독하자"고 말했다.

통합정보센터가 불교문화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행정기관이라면, 연구센터는 불교문화 콘텐츠 등을 전담해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이다.

각정 스님은 "(가칭)불교문화연구센터를 세워 불교문화프로그램 연구와 참여자 평가, 일반대중 욕구조사 등 불교문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인터넷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불교문화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방문자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한편, 중앙승가대는 개교 30여 년 만에 첫 박사인 각정 스님과 지은 스님의 학위수여식을 8월 19일 오후 2시 대학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지은 스님의 박사학위청구 논문 주제는 '규봉 종밀의 선사상 연구'이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자 개종에 놀라"

### 승가대 1호 박사 각정 스님



"논문을 준비하던 중 불자 가운데 개종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데 놀랐습니다. 비불자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는 것만큼이나 불자에게 부처님 법의 맛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앙승가대 박사 1호인 각정 스님은 "불자와 비불자 모두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는 방법은 불교문화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스님이 '현대 한국 불교문화 대중화의 연구'를 주제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한 이유이다.

월탄 스님 법상좌로 법상종 포교원장을 맡고 있는 각정 스님은 1982년 평택 쌍미륵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연예인자비회를 운영하며 전국 사찰에서 산사음악회 등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 진행해 왔다.

각정 스님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전국 사찰을 수차례 돌아다녔다"며 "어른스님들이 경전 위주의 내전이 아닌 외전에 노력하는 것을 이해 못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개별 사찰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동섭 기자




14 간화선 세미나 **혜국 스님**
법이란 중도연기를 달리 표현할 뿐 그 근본 뜻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본분사이기에…
6 7 특집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
9 현장 속으로 **원심회 여름캠프** 11 특집 **만해축전**


**수능 100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100일 앞둔 8월 11일, 팔공산 갓바위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는 기도를 올리기 위한 수험생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수험기도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강남 봉은사 등은 전국 주요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기도하는 모습. 박재완 기자

## 남북불교도 8 · 15 동시법회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남북불교도들은 8월 15일 '조국통일기원 8 · 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공동발원문을 통해 화해와 통일을 기원했다.

광복 65주년을 맞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과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은 13일 남북공동발원문을 채택 발표했다. 공동발원문은 15일 서울 봉은사, 평양 광법사에서 열린 남북동시법회에서 발표됐다.

남북 불교도들은 "이 땅에 해방의 감격은 사라지고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의 역사가 65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남북공동선언의 고수이행이 자타불이, 발고여락의 이념이 구현된 현세지상 정토건설의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도들은 "남북 대결과 분열은 일시적인 것이며 화해와 통일의 새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화해와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언 기자

## 동양의 불교문화 연등축제 강조

### '백서' 서 내 · 외국인 차별화 밝혀

연등축제는 내국인 대상으로는 불교색을 옅게 해 종교축제라는 이미지를 덜고, 외국인 대상으로는 동양의 불교문화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봉축위는 최근 발간한 <연등회 연등축제-외국인 방문객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봉축위는 문화컨설팅업체 '기분좋은QX'에 의뢰해 2006~2010년까지 진행된 외국인 방문객 조사 연구결과 및 국제홍보 업무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 등을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연등축제의 장점을 △시각적 즐거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꼽고 '모두의,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축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봉축위 박상희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재방문객의 꾸준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연등축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近者悅遠者來)'는 법칙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축제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분석에 사용된 외국인 표본 수는 2006년 78명, 2008년 234명, 2010년 235명 등이다.

조동섭 기자










법왕사 제21회 100인 큰스님 초청
경율론 삼장 백고좌대법회

법왕사에서는 제21회 경율론 삼장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대승불교의 최고 경전으로 일컫는 경율론 삼장 전반을 주제로 8월 27일부터 100일 동안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 1백분을 모셔서 심도 있는 법문을 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회주 원공 정무 대종사 / 주지 성환 실상 합장

◆ 증명 : 무진장 · 혜정 · 각성 · 지성 · 불심도문 큰스님
◆ 일시 : 2010년 8월 27일 ~ 12월 9일 (100일간)
◆ 법문 : 매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 백고좌법회에 초청하시고 싶은 스님 추천을 바랍니다. 법랍 30년 이상으로 비구 · 비구니스님, 종파에 관계없이 경율론 삼장에 정통하신 스님이면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백고좌법회 법문은 전회분을 법왕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법문 녹음을 담당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초청법사 전반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TEL. 053)766-3747
053)766-9088
FAX. 053)766-6095
www.bubwangsa.or.kr
인터넷주소창에 "법왕사" 입력

법왕사 제21회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2010년 8월 25일(수) 저녁 7시 법왕사 광장

출연진




특별출연

# 개신교 조직적 불교 폄훼 심상치 않다

## 종교화합 빨간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문제 제기 하기로

종교간 화합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개신교계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시작한 불교 비방이 연일 거세지면서 자칫 두 종교계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범불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의 갈등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가 7월 14일자 동아 · 문화 · 국민일보 등에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어 한국교회언론인회는 8월 10일 '종교편향 문제점을 곡해하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공세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이에대해 조계종 종책모임인 무차회(회장 동광)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신교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종단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개신교계의 조직적인 불교 폄훼에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차회는 종단에 △개신교 단체가 사과할 때까지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활동을 중단할 것 △대구역사문화공원 사업 무산과 템플스테이 예산 축소 움직임 등 각종 피해 현황을 분석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해명을 촉구할 것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을 재정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스님들은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영담 스님은 "대구역사문화공원 사업 무산은 대구 동화사 등 지역불교계가 나서야 할 단계"라며 "종단은 7대 종단이 모인 종지협에서 총무원장스님이 정식으로 문제제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3일 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를 통해 '일부 배타적 개신교 단체의 종교 및 불교비방 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지협 의장 이광선 한기총 회장 등 종지협 대표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개신교단 내 일부 단체의 불교 폄훼 활동과 관련해 종단 자체적으로 내부 설득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말 뿐이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공동위원장 혜경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현재 종평위는 종지협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 관계 부처에도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계종은 성명서 및 광고가 일부 개신교 단체의 성명발표라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혜경 스님은 "한기총 전체가 제기한 문제라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일부 단체가 제기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단체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면서 불교계에 싸움을 걸어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서울 조계사는 8월 1일과 7일 신도총회를 열고 △개신교의 불교폄훼 등 몰지각한 종교갈등 조장행위 중지 △종교사학 등에 지원된 국고예산을 통한 선교 행위 중단 △MB정부의 전통문화 예산 집행 축소 행위 중지 등을 촉구했다.

# 불교문화 대중화 하려면?

## 대중의 욕구 따라 맞춤 프로그램 절실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각정 스님은 "선수행,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 불교문화프로그램마다 획일화된 것들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불교문화의 활로"라고 말했다.

스님은 "연등축제는 참여자에 따른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템플스테이는 사찰별 브랜드화와 함께 △휴식형 △사찰생활형 △체험형 △수행형으로 특화를, 선수행도 참가자의 근기에 따라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각정 스님은 "선수행 프로그램이 높은 참여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선수행 프로그램은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면서 "대중화를 위해서는 선수행의 문화적 기능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템플스테이 사찰별 특성화해야

스님은 "선수행 프로그램 대중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행지도자를 종단이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제안했다.

각정 스님은 "연등축제는 축제로서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젊은이와 외국인에 집중돼 있다"며 "장 · 노년층의 창가를 유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각자가 개인등을 스스로 밝히는 문화수준에 이르러야 진정한 연등축제가 될 것"이라며 "내 손으로 등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내고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정 스님은 "산사음악회의 문화적 효과가 종교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개연성이 부족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보다 높은 종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종교적 색채를 강화하는 음악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인지 불교문화의 포교 효과성에 만족하고 현재의 음악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불교문화로서 산사음악회를 접근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사음악회는 1년에 1~2회 대중에게 산문을 여는 오픈하우스와 같은 개념이라 굳이 불교적 색채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종만 기획실장은 "산사음악회는 대중을 하나로 모으는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과 병행해 명사 · 작가 등을 초청해 문화법회를 여는 것이 불교문화 대중화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는 자연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일이다. 전국 사찰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템플스테이와 관련해 각정 스님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 경험자 중 재참가 의향을 가진 참여자는 90%가 넘지만 실제 재참가자가 27%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통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템플스테이의 정체성을 일반 문화상품, 대중화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정신수양 프로그램으로 특화하고 개별 사찰들이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일반인의 선택의 폭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불교문화사업단 기획홍보팀장은 "템플스테이를 방문한 외국인은 14만명, 내국인도 불자가 아닌 이들이 60~70%가 참여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컨설팅 팀을 꾸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개신교 반발 불교테마공원 백지화

## "문화재보수비 600억 근거없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7월 15일 대구 CBS '라디오 세상읽기'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 기독교계가 반대하고 있는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백지화할 뜻을 밝혔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의 하나로 팔공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구상했으나, 종교적인 문제와 팔공산 자연훼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예산 지원요청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그 배경에는 대구지역 개신교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연사연 김영국 공동위원은 "불교문화재의 상당 부분이 국가 문화재다. 개신교계가 공적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라며 "불교계가 문화재 보수비로 6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개신교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계종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올해 185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00억원 정도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개신교 반발로 정부 예산편성삭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언 기자

■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 개신교 성명 원인 진단

# 문화재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



이찬수 종교문화원구원장(前 강남대 교수 · 사진)는 최근 개신교의 잇단 성명 발표의 원인에 대해 "문화와 문화재를 일부 교단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종교관이 문제이다"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권 이전만 해도 개신교 권력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았어도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권부터 개신교의 권력화가 노골화 되면서 불교계 시민사회 등에서 개신교 편향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이 원장은 "조직적인 사회적 견제장치가 없었던 개신교는 스스로 사회문제를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최근의 일련의 상황은 보수 개신교가 정권 창출과 함께 내부 질서를 확립하면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불교)에 대해 응전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했다.

불교와 개신교 갈등의 해법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 차원의 문화재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찬수 원장은 "개신교계는 문화재 마인드가 부족하다"며 "정부 주도로 문화나 문화재 속에는 여러 종교가 녹아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 원로 100인 "MB정권 독단 멈추라"

## 4대강사업 등 중단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 경고

종교계와 시민 · 사회 원로들이 MB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하 · 지선 · 법타 · 효림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도종환 시인 등 원로 100인은 8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MB정권이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원로들은 "MB정권 2년 반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역주행 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중단과 천안함 국정조사, 공안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 2010년 후반기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주2일 교육,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9월 9일 목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불교교리 : 경, 율, 론, 선, 밀교
◇불교의식 : 조석예불, 불공, 시식, 장엄염불 등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목요일 오후 3시까지
◇교육장소 : 제천 금강사(충북 제천시 모산동)
◇개 강 : 9월 8일 (수) 오후 2시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도기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활안 한정섭스님의 경전 강의 -

## 월 요 경 전 반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기초반 1시 30분
연구반 3시 30분
◇개 강 :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043)646-3800

3. 포교 – '불교유신론'의 포교론을 읽고

# 세력화 · 바른 설법 · 열성을 다 하는가!

<불교유신론>의 '포교론'에서 만해 스님은 다음 3가지를 강조하고 잇다.

첫째는 '세력을 만들라'는 것이다. 세력을 만들어야 한국불교 살아남는다는 것을 만해 스님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파하고 있다. 만해 스님에 의하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포가 승리한다. "서양종교가 아무리 세력을 얻어도, 우리 불교는 탁월한 진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서양을 봐라. 지금 불교가 득세하고 있다." 흔히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 만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거나 현실도피이다.

불교의 그 대단한 진리, 그런데 지금 인도에 불교가 거의 없다. 그 찬란한 실크로드의 불교국가들, 지금 거기에 불교가 없다. 이슬람 천지다. 실크로드의 한복판 아프간의 바미안 대불(大佛),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대포를 맞고 머리가 뭉개졌다. 그래도 세계불교계는 아무 말도 못한다. 한국불교도의 성지 부산광역시, 지난번 서양종교인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범어사 망하라고 기도합시다" "통도사 망하라고 기도합시다" "부산을 하나님의 성시(聖市)로 만듭시다" 하고 외쳐도, 이 땅의 불교도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 말이 없다. 재가연대에서 몇 마디 홀로 외롭게 외치다가 조용해졌다.

나는 1970~1980년대 서울 동덕여고에서 불교학생회 할 때, 전교생의 반 이상을 불교학생으로 만들었다. 세력이 한번 형성되니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매년 600여 명씩 청보리들을 배출해서 대불련으로 보냈다. 여자대학교마다 우리 청보리들이 불교학생회를 만들었다. 대불련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무진장 스님을 모시고 토요일 새벽마다 촛불을 밝이며 새벽법회를 열었다. 방학 때마다 정무 스님을 모시고 용주사, 수덕사, 법주사, 봉선사로 100여 명씩 몰려가서 용맹정진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무진장 스님, 정무 스님 만나면 길거리서도 3배를 올린다. 3배는 그럴 때 하는 것이다. 피땀 흘리며 전도전법 하는 스님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또 무슨 도(道)가 따로 있겠는가.

둘째, 만해 스님은 "설법 잘 하라"고 포교론에서 강조한다. 만해 스님은 비판하고 있다. "조선불교 중에서 소위 설법이란 것이 약간 포교의 성질을 띄고 있다 할 수 있으나, 그 설법하는 바가 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취지가 천박하고 잡박하여서 하나도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 많이 달라지고 발전하고 있다. 지금 만일 만해 스님이 와서 듣는다면, "제법 하는 군"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선우' 법회에 정목 스님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스님의 법문은 부처님 가르침에 중실했고, 피땀 흘리며 헌신봉사하는 자기 체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만해축전 시인학교는 만해축전 기간 열리는 대표적 문학행사다.

**"종교의 생존도 약육강식 논리 대입해야 설법할 때 자기 철학 말하는 것은 삼가라"**

이런 스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법은 여전히 개선되고 개혁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법을 설할 때 자기 이야기, 자기 철학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법'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전법'이고 '전법륜'이다.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이다.

무엇이 법의 바퀴일까? 그것은 곧 고따마 부처님의 기본적 가르침이다. 또는 대승경전의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4제8정도 – 사띠(sati)'로서 기본을 삼고 있다. 법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대중들의 욕구에 상응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다. 해설하면 되는 것이다. '4제8정도 – 사띠'만 해도, 몇 년을 해설해도 그 깊은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대중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설하고(示) 실천하도록 권면하고(勸) 법사 스스로 증득해보여야(證) 한다. 이것이 시전(示轉) – 권전(勸轉) – 증전(證轉)의 삼전(三轉)이다.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전법륜–설법의 기본 원리이다. 제발 자기 철학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조사 정도 돼야 하는 것이다. 모처럼 절에 온 대중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열성을 다하라는 것이다. 만해 스님은 "스페인 사람에 '매클라가스가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도를 얻었고, '구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미얀마에서 전도하기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도를 얻었고, 또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중국에서 전도하기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도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런 만해 스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부끄럽다. 아무 열성 없이, 아무 희생 없이, 아무 섬김 없이 –내가 무슨 법사인가? 섬김 받을 생각, 절 받을 생각이나 하고 앉아서, 허세나 부리고 앉아서– 내가 무슨 법사인가?



김재영
불교학박사, 청보리 법사

'불교대전'에 팔만대장경을 녹이다

# 경전 중요구절 뽑아 '불교대전' 집필

## "대장경 보편화 작업의 초석 마련" 평가 받아

만해 스님에게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첫째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일제에 항거한 민족의 독립투사로서의 모습이다. 둘째는 한국문학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문학가로서의 모습이다. 셋째는 불교를 새롭게 하고 민중불교를 주창한 승려로서의 모습이다.

이 중 만해 스님의 민중불교 정신은 <조선불교유신론>에 잘 드러나는데 불교 혁신을 주장하는 그 내용에서 불교의 대중화 · 자주화라는 기본사상이 도출된다.

만해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먼저 불교 교리와 제도, 불교 재산을 민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정신은 불교경전을 대중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어졌는데 그 결실이 바로 <불교대전>이다.

만해 스님은 1910년 원종(圓宗) 종무원의 이회광이 일본 조동종과 연합 · 동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불교동맹조약'을 체결하자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하고 인제 백담사를 나섰다. 1911년 순천 송광사로 내려간 만해 스님은 1월 광주 증심사에서 원종을 성토하는 승려궐기대회를 열었으며, 순천 송광사에서 석전 스님 등과 함께 이회광을 종문난적(宗門亂賊)으로 규정하고 원종에 대응하는 '임제종(臨濟宗)'을 창립했다.

이는 당시 조선 불교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불교계를 넘어 민족의 자주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스님은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의 현장을 둘러본다. 1912년 다시 귀국해 경남 일대에서 '한일불교동맹조약 철폐운동' 등 불교 자주화를 위해 활동하던 만해 스님은 양산 통도사로부터 화엄강사로 초청받아 통도사를 향했다.

당시 통도사에는 고려대장경 영인본 1511부, 6802권이 소장돼 있었다. 그는 학인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며 2년 여 동안 하루 평균 두 권씩 이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불교 경전에는 팔만대장경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무수한 경전이 있다. 이 중 600권에 이르는 <대반야바라밀다경> 같은 방대한 경전이 있는가 하면 이를 축약, 262자로 설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이 있는 등 그 종류와 설한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일반인들이 난해하게 여길 수 있는 각 경전에는 불교의 핵심 사상 공통적으로 흐르는 데 만해 스님은 그것을 재구성해 대중들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만해 스님은 각 경전의 중요한 구절을 뽑아 국한문체로 번역해 주제별 총 9장으로 정리해 <불교대전>을 완성했다. 1914년 4월 당시 임제종 종무원 중앙포교당이었던 부산 범어사에서 이를 간행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된 만해 유묵. 한 획 한 획 힘이 느껴지는 필체처럼 만해는 <불교대전>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고 그로 인해 불교와 민족이 새롭게 힘차게 거듭나길 바랐다.

<불교대전>은 서품(경전의 중요성), 교리강령품(불교교리에 대하여), 불타품(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교화), 신앙품(발심과 신심, 삼보에 대한 숭앙), 업연품(업과 무상, 인과윤회에 대하여), 자치품(자신에 대한 연마), 대치품(가정, 윤리, 박애, 대인관계 등 사회적 문제), 포교품, 구경품(자신의 해탈과 열반) 등 총 9장으로 돼 있는데 특이한 점은 가정, 사회, 윤리, 국가 등 대 사회적인 주제를 모은 대치품, 포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포교품 등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과 정진하는 한편 사회구제와 중생교화에 나서야 한다는 만해의 정신을 대변한다.

현재 대장경 보편화 작업의 초석을 마련한 큰 업적으로 평가되는 <불교대전>을 펴낸 후 만해 스님은 1916년 <유심>을 발간하는 등 잡지간행에도 힘썼다. 또 <불교교육 불교한문독본> <정선강의 채근담 精選講義菜根譚>을 펴내는 등 문서포교를 통한 민족의 계몽을 위해 노력했다. 만해 스님은 글로서도 민족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과 시대정신을 일깨웠던 것이다.

노덕현 기자

글 싣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계율
6. 신행
7. 교육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제2회 전국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일 시 : 2010년 9월 11일 (토)
중 · 고등부 : 오전 11시 ~ 12시 / 초등부 : 오후 2시 ~ 4시
장 소 : 중 · 고등부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평택, 남양주
초등부 결선 – 동국대학교(서울) 체육관
대 상 : 전국 초, 중,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접수기간 : 2010년 7월 12일 ~ 8월 31일
전 형 료 : 무료
시 상 식 : 2010년 10월 23일(토) 예정

시험 유형
고등부 – 객관식 및 주관식 45문항
중등부 – 객관식 및 주관식 40문항
초등부 – 퀴즈(골든벨 형태)
초등부 결선대회 예상문제(결선대회 70% 반영)
8월 20일 이후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및
(사)동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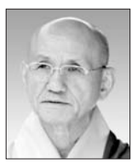
시상내역
◐ 개인부문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명(초,중,고 각1명)
장학금 초등 100만원, 중등 200만원, 고등 300만원
최우수상 : 동국대 총장상 6명(초,중,고 각2명)
장학금 초등 50만원, 중등 80만원, 고등 100만원
우 수 상 : 동국대 정각원장상 9명(초,중,고 각3명)
장학금 초등 3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80만원
장 려 상 : 동국대 불교대학장상 30명(초,중,고 각10명)
장학금 초등 20만원, 중등 30만원, 고등 50만원
입 상 : 은정불교문화원 이사장상(참가자 상위 10%)
초등, 중등, 고등 기념품 증정
◐ 단체부문 : 참가자 중 개인상 최다 배출 단체 등에 수여
대 상 : 조계종 총무원장상 1개 단체 각100만원
최우수상 : 동국대 이사장상,조계종 포교원장상 2개 단체 각80만원
우 수 상 : (사)동련 이사장,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6개 단체 각50만원
◐ 특별부문 : 참가자 중 자원봉사, 문화재지킴이, 환경보호 등 불교신행 활동의 모범이 있어 추천된 자
(추천양식에 사찰 주지스님, 학교장 추천 요망)
특 별 상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5명 각100만원
※ 대입 입학 전형 반영
동국대학교, 금강대학교, 위덕대학교 등 입학전형 시
반영 자료로 활용(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출제범위
○ 중 · 고등부 – 경시대회의 출제범위는 조계종출판사에서 펴낸 《청소년불교입문》과 《부처님의 생애》,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출제함.
○ 초등부 – 《애들아, 절에 가자》(조계종출판사)와 《싯다르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불광출판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출제함.

접 수 처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2번지 은정빌딩 601호
대표문의 : 02-515-9351,
이메일 : bulgyo2010@naver.com
인터넷접수: (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
(www.eunjung.or.kr)에서 소정양식을 작성
(사진은 스캔하여 업로드)
우 편 : 지원서 작성 후 등기우편 접수
(2010년 8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우편접수시 지원서에 반드시 사진(3×4) 2매 부착요망
※결과발표 : 10월 초(추후공지)

● 주 최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 주 관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단법인 동련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금강대학교, 위덕대학교, 학교법인 광동학원, 학교법인 능인학원, 학교법인 보문학원,학교법인 청담학원, 학교법인 정광학원, 학교법인 원효학원, 학교법인 금정학원, 학교법인 회당학원, 불교교육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조계종출판사, 불광출판사,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불교TV, BBS불교방송, 금강신문, 밀교신문, 우리불교,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미디어붓다, 불교저널, 불교플러스

## 일 주 문



**지구촌공생회 COLA캠페인**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케냐 카지아도 지역 옌요뇨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02)3409-0303



**실상사 개교10주년 기념토론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8월 28일 실상사 작은학교 강당에서 개교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063-636-3369



**월정사 제1기 오대순례 염불수행학림**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월 29~9월 4일 제1기 오대순례 염불수행학림을 개최한다. (033)339-6800



**법주사 미륵대불전 삼천불 봉안식**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0월 23일 미륵대불전 삼천불 1차 봉안식을 개최한다. (043)543-4755



**쌍계사 국태민안 방생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상훈 스님은 8월 26일 섬진강 하동송림 야영장에서 평화통일과 국태민안 기원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055)883-1901



**통도사 성보박물관 절터답사**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현근 스님은 8월 25일 중원 미륵사지와 군위 인각사에서 절터답사를 봉행한다. (055)382-1001



**백락사 환경설치 미술전**
홍천 백락사 주지 성민 스님은 8월 21일~9월 4일 백락사 경내에서 환경설치 미술전을 개최한다.



**대구 법왕사 백고좌 전야 산사음악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8월 25일 저녁 7시 법왕사 앞마당에서 제21회 100인 큰스님 초청 백고좌 전야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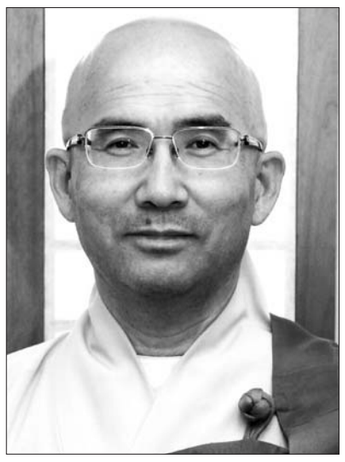
**포교사단 8재계 수계법회**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8월 28~29일 평창 월정사에서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대한불교청년회 숲길 명상**
정웅정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8월 20~22일 지리산 일원에서 '도법 스님과 함께하는 생명평화 숲길 명상'을 실시한다.

■ 화계사 신임 주지 수암 스님

# 세계일화 · 생명살림 도량으로



"숭산 스님의 세계일화 정신과 수경 스님의 생명살림 정신이 활짝 꽃피는 도량으로 가꾸겠습니다."

수경 스님의 뒤를 이어 화계사 주지에 임명된 수암 스님(前 화계사 총무국장 · 사진)은 8월 11일 주지 임명 후 화계사를 국제포교와 생명살림의 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총무국장으로 화계사의 안살림을 맡아 온 수암 스님은 먼저 지난 6월 승적 포기를 선언하고 은거한 전임 주지 수경 스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놨다.

수암 스님은 "수경 스님이 세상의 번민과 고통을 타파하겠다고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뛰어든 이 때 대중으로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스럽다"며 "주지직을 비울 수 없다는 뜻에서 어른 스님들께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먼저 숭산 스님의 세계일화 정신을 계승해 국제포교의 근본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화계사는 그 무엇보다 숭산 스님의 국제포교 원력이 서린 근본 도량"이라며 "국제선원 활성화로 외국인 제자들이 쉽게 찾아와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수경 스님의 생명살림 정신을 확대해 중생살림을 보살피는 화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대학의 교육, 시민선방 · 템플스테이의 선수행, 신도들의 복지 이 세 가지를 기본 축으로 신도 살림과 이웃 살림에 보다 신경 쓸 것"이라며 "국토를 청정히 하고 뭇 생명을 살리자는 수경 스님의 정신을 살려 중생의 아픔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화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1억 6000만원 수준인 포교 · 복지예산을 점차 적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포교와 복지활동을 통해 신도들이 동참의 즐거움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신도 결집력 높인다는 것.

현재 진행 중인 결식 아동 돕기, 라오스 화계초등학교 지원 등과 함께 빈민촌 자비도량 건립, 이주민 노동자 무료진료, 난치병 어린이 초청 치료 등도 추진된다.

수암 스님은 "세계일화와 생명일화의 꽃이 피어나는 도량으로 그 정신이 지속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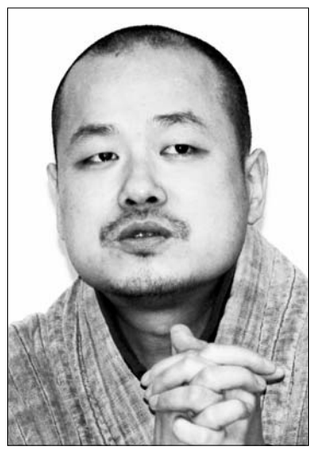
한편, 수암 스님은 1986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상좌로 수덕사 교무국장,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을 거쳐 화계사 총무국장을 맡아 왔다.

현재 이에 앞서 올해 4월 화계사 주지로 재임됐던 수경 스님은 문수스님의 소신(燒身) 입적 등을 겪은 후 6월 14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난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살고 싶다"며 화계사 주지직과 승적을 포기하고 은거에 들어갔다.

노덕현 기자

■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

# "반환운동은 순례의 길"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한 것을 민간단체가 이뤘다는 점에서 문화재반환운동의 전환점입니다. 반드시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돼 한일 양국이 더 깊은 우호관계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사진)은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의 주인공이다. 스님은 2004년 교토에서 도쿄대에 조선왕조실록이 소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2006년 3월 혜문 스님이 주축이 돼 조선왕조실록 환수위가 공식 출범했고, 같은 해 도쿄대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반환 받기에 이르렀다.

혜문 스님은 만족하지 않았다. 8월 스님은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신사에서 명성황후를 살해한 칼 '히젠도'를 확인했다. 9월에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출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혜문 스님은 "'문화재 제자리찾기'란 단순한 문화재 문제를 넘어, 약탈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실, 양심과 같은 가치'를 찾아 가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일본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조선왕실의궤 반환이 언급된 것만큼은 뜻 깊은 일"이라며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4년은 내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 나선 구도의 길이었으며, 진리를 찾아 헤맨 순례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말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조동섭 기자

■ 달라이 라마, 누브라밸리 법문

#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은 긍정"



달라이 라마 법회가 7월 21~27일 인도 누브라벨리에서 진행됐다. 달라이 라마의 법회에 참석한 2만여 관중은 40도가 웃도는 기온 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누브라밸리(Nubra Valley). 중국 그리고 파키스탄 국경과 마주해 1990년도에서야 비로소 외국인에게 개방된 이곳에서 7월 21~2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텐진캬초)의 법회가 열렸다.

40도를 웃도는 기온 속에서도 2만여 명의 청중이 법회에 동참했다. 그 가운데 400여 외국인이 법회 일정 마지막까지 달라이 라마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법문 요지

11세기 인도의 위대한 스승 '실로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색도 형태도 없네. 이는 즉 어둡지도 밝지도 않음이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도 아니라네."

중도의 한 대목입니다. 마음은 독립적이거나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극단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뇌는 이 대목을 이해하기 힘들어 잠시 주춤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티베트 본토에서 많은 동족들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때,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살며,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마음 깊이 상처를 남긴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들에게 중국정부와 중국인을 혐오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집착 없는 자비심을 내보이라고 권고합니다.

중국의 2억 불자들이 진심으로 불교의 참뜻을 바로 깨우치는 날, 티베트인의 자유는 순리이거니와 인류사의 불교는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국적과 인종 그리고 종교 등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엄한 인류입니다. 지금 잠시 잊고 있던 내 안의 바른 마음, 긍정의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이란 결국 건강한 신체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귀한 인간의 몸을 받은 것과 무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윤회의 교통을 알아차려 다음 생의 번뇌 연을 끊을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해탈로 인도하는 공성의 길을 지혜로서 일깨우십시오. 완전한 길로 가고자 하는 출리심이 바로 붓다의 길입니다. 보리심의 공성을 이해할 때 무수한 겁이 지어놓은 무지의 감옥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성은 연기법에서 생합니다. 또한 연기법은 공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 성품인 공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마치 강물이 흐르는 바와 같이 얽매임 없는 바른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지식에 의존하려 들지 마십시오. 지식이 아닌 지혜의 거울로 바른 불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 길 위에서 만난 반가운 인연입니다.

인도 누브라밸리=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 조계종 64개 종단 통합 준비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 64개 종단 대표들이 지난 28일 율종)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불교조계종삼화불교를 중심으로, 전국종단을 교구본산제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약 4,000개 사찰을 하나의 교구 본사제로 만들 예정 입니다.

청정계율 종단 조계종 종단 통합은 32교구본산제로 종단이 32교구 독립체산제로 운영됩니다. 연금제도와 교육통합, 율원, 역경원, 염불원, 선원, 무문관 등을 운영하며 새로히 교육을 받은 주지는 전원 연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조계종 사용 종단이 통합하면 한국 제 1종단이 됩니다.

**회장 : 조계종 삼화불교　　부회장 : 조계종 정토불교　　사무총장 : 대한국불교조계종**

이사종단 : (사)대불교조계종, (사)대한불교 보문조계종, (사) 조계종 만불교 본부,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재)한국불교 조계종, 국민불교조계종, 국제불교조계종, 국제선불교조계종, 근본불교 조계종, 대한금강불교 조계종, 대륜불교조계종, 대선불교조계종, 대성불교조계종, 대승불교조계종, 대원불교조계종, 대중불교조계종, 대한국불교 조계종, 대한미타조계종, 대한불교 광명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 대한불교 동산조계종, 대한불교 범음조계종, 대한불교 법안조계종, 대한불교 법화조계종, 대한불교 보현조계종, 대한불교 본조계종, 대한불교 불일조계종,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대한불교 선조계종, 대한불교 아미타조계종, 대한불교 여래조계종,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대한불교 일붕조계종,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대한불교 정화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선종, 대한불교 조계율종, 대한불교 조계진종,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대한불교미륵조계선종, 대한불교본조계종, 대한불교佛조계종, 대한불교삼보조계종, 대한불교용산조계종, 대한불교조계선종, 대한불교해동조계종, 대한불교화엄조계종, 대한선불교 조계종,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대한정토불교 조계종, 무상 조계종, 불교재단 조계종,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사단법인 중앙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삼론 조계종, 삼보 조계종, 생활불교 조계종, 선불교 조계종, 아미타 조계종, 우리불교 조계종, 원조 조계종, 육조혜능 조계종, 율사 조계종, 일붕 조계종, 임제 조계종, 전통불교조계종, 정토불교조계종, 조계종 대각회, 조계종 대각회, 조계종정토불교, 종교법인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중앙불교 조계종, 총남불교 조계종, 한국근본불교조계종, 한국대승불교조계종, 한국불교 극락조계종, 한국불교 대승조계종, 한국불교 임제조계종, 한국불교 전법조계종,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지장조계종, 한국불교 화합조계종, 한국불교법안조계종, 한국생활불교 조계종, 한국선불교 조계종, 한국전통불교 조계종, 한국호국불교조계종, 해동불교 임제조계종, 해동불교 조계종, 호국불교조계종,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종단진흥회 연락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번지　전화 : 02-511-1080 / 팩스 02-511-2080

## 천태종 하안거 입제날 풍경

# “반드시 여기서 깨달으리라”

## 천태종 재가신도 하안거 9일 입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에 관음정근 소리가 가득하다. 8월 9일 밤부터 ‘제99회 재가신도 하안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천태종은 한국불교에서 유일하게 재가신도의 안거가 제도화 돼 있는 종단이다.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일어나지 않겠다.(我若不成正覺 此座不起)”



구인사 각 법당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수백 명의 불자들이 앉아 관음정근을 하고 있다.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며 불퇴전의 결심을 한 부처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큰 원력 앞에 출재가의 구분이 있을까.

무더운 여름에도 구인사 각 법당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씩 신도들이 앉아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있었다. 99회를 맞은 이번 재가 신도 하안거에는 구인사에만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운집했고, 전국 150여 천태종 사찰에는 총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동참해 9월 8일 해제까지 치열한 수행정진에 돌입했다.

천태종 재가 신도 안거는 하루 중 수면, 공양, 휴식 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염불수행이 진행된다. 결재 첫 날, 한 달간 사용할 옷가지 등으로 인해 비좁은 자리임에도 정진의 열기가 대단했다.

울산에서 35회 째 구인사 재가 신도 안거에 참여하고 있는 정명동 보살은 “안거는 운명이라고”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정명동 보살은 “가장 먼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 안거 당시 간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 힘으로 병마를 이겨낼 수 있었다. 조사 스님과 종정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말했다.

구인사 안거는 식당 등과의 거리를 따져 남녀, 수행경력,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각 선방을 배정하고, 각 선방마다 담당스님이 배정돼 신도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천태종 안거에는 염불 수행 외에 낮시간 동안 농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울력 등이 진행된다. 이는 상월 원각 조사의 생활불교론인 ‘주경야선’(晝耕夜禪) 정신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주경 야선은 낮에는 밭에 나가 노동을 하고 밤에는 참선을 하는 생산 노동으로 구인사는 배추와 고추 등 주요 작물들을 직접 재배해 자급자족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태종은 “지역 150여개 사찰에서도 신도 안거가 실시되는데 주경야선 정신 하에 생업에 종사 중인 신도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절로 나와 안거 수행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 결제식에서는 종정 도용 스님 등 천태종 중진 스님들이 참여해 재가 신도들의 수행정진을 독려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일심청정(一心淸淨)을 바로 닦기는 쉽지 않지만, 관음신앙을 통해 각자의 마음자리를 닦아야 제색(諸色)이 공(空)해진다”며 “무더운 한 달 간의 수행이지만,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왕흥사지’를 지켜라

## 2일 대책위 결성… 충남도 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나서

충북지역 불교계와 시민들과 충남도가 4대강사업으로부터 백제시대 국찰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와 부여불교사암연합회를 비롯한 60여 단체들은 8월 2일 ‘왕흥사지 문화재 보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20일 왕흥사지 일대를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금강 일원의 백제문화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키로 결정했다.

충남도는 백제문화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자문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4일 성명에서 “충남도가 지난 1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시킨 지역 가운데 공주의 고마나루, 공산성, 정지산 유적,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의 왕흥사지, 부소산성, 나성 등 8곳이 금강 사업으로 직간접 피해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문화재청은 역사유적을 훼손하는 금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충남도 자문기구인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왕흥사지 등 공주 · 부여 일대의 백제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금강 지역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의 4대강 공사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왕흥사지는 백제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 지었던 사찰이 있던 자리로, 삼국시대 사리장엄과 ‘왕흥(王興)’이라는 명문의 기와조각이 발견되는 등 백제 불교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앙드레김 조문

불자 디자이너 故 앙드레김(본명 김봉남)이 8월 12일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 신도로 부처님 오신날과 백중, 칠석에 사찰을 찾아와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평소 서울 봉은사, 화성 용주사도 찾아 참배하곤 했던 앙드레김은 매일 오전 4시에 기상해 집안에 안치된 불상에 절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등은 13일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상언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 천재의 비밀은 ‘몰입’

## 봉은사 수능특강서 황농문 교수 강조

“뉴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스티븐 잡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몰입’이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비법은 바로 내내 그 생각만 했기 때문이었다”

베스트셀러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몰입>의 저자,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8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수능입시특강에서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날 “보통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만 몰입하는데 반해 천재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몰입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천재들이 몰입하는 원인에 대해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고 정의했다.

황 교수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삶을 충실히 보낸 것은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삶에 후회없기 위함”이라며 애플의 스티븐 잡스의 말을 들어 설명했다.

황 교수는 “스티븐 잡스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가?’를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일반인들은 오늘 죽는다면 하지 못할 일에 묶여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날 모인 500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몰입을 체험하면 삶이 바뀌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다”고 전했다.

황농문 교수는 “진학을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에 몰입을 해 그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둬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며 “무작정 공부한다면 미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후회만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일반인들이 몰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사고의 부재를 지적한 황교수는 “공부법에 있어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교수는 “아인슈타인과 뉴튼이 각 법칙을 발견하는데 몇 달 몇 년 걸린 이유는 헤맸기 때문”이라며 “결국 헤메도 끝까지 몰입할 수 있었다. 수험생 여러분도 끈기를 가지고 공부에 몰입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 100자 뉴스

### 군종교구 호국연무사 불사 사칭 모연 주의 요청



육군훈련소 신축불사 명목으로 군승을 사칭해 화주 활동 중인 범인 차량(스타렉스 59머 1383).

육군훈련소 법당인 호국연무사 불사에 전국 불자들의 정성이 모이는 가운데, 호국연무사 불사를 사칭해 불법 모연하는 경우가 적발돼 불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6월 중순경 강원도 삼화사 입구에서 육군훈련소 불사 명목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 불법 모연하던 현장을 적발해 엄중경고 했으나, 7월에도 연이어 적발됐다”고 8월 10일 밝혔다.

교구장 자광 스님은 “불자들이 육군훈련소 대작불사에 십시일반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있는데 이것을 악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다는 것은 큰 죄악이며 사기행위”라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강원종교평화협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한마음

강원지역 종교지도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강원 지역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8월 7일 평창 월정사에서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를 발족했다.

행사에서 종교평화협의회 상임대표는 강원불교연합회 회장 정념 스님이, 공동대표는 천주교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와 기독교 강원기독교연합회장 이철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날 강원지역 종교지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에 하고 종교간 화합을 다짐했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정지에 따른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 추모법회추진위 김대중 前 대통령 추모법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불교계 10여 단체로 구성된 김대중前대통령추모법회추진위원회는 8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청화 스님은 법어에서 “故 김대중 대통령은 파란만장한 정치인의 삶을 살다 제행무상의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며 “죽음에 가까운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미래를 향한 의지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한 그의 삶과 정신을 본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김대중 前 대통령의 삶을 그린 자작시를 낭독했다.

이상언 기자

### 의궤환수위 일본 방문해 의궤 반환 촉구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대표 김의정, 이하 환수위)가 8월 4~5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를 만나 의궤의 반환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10일 조계종중앙신도회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의되는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촉구한다’는 성명서와 함께 일본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환수위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조선왕실의궤 반환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온 만큼 8월 중으로 의궤가 돌아오지 못한다해도 ‘조선왕실의궤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념만은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 영산불교에서 자신있게 내놓은 불멸(不滅)의 사자후

세계 불교사에 던져진 매머드급 허리케인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큰스님 저 16쇄 | 371면 | 25,000원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여 세계 불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화제의 대작!
육도윤회세계와 해탈계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면서 진리의 생사관을 제시한 21세기 인류사상의 금자탑!
부처님께서 어느 불교 경전 못지않게 평가하시는 위대한 시대적 성서!
발간 당시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 기록
박태호 변호사(법학박사)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통한 큰스님의 사자후에 모든 의문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조우석 중앙일보 기자“≪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예사롭지 않았다. 고백컨대 충격으로 다가왔다....가히 파천황이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광명만덕 큰스님, 자재만현 큰스님 공저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부처님의 희유한 실체와 사바세계에 현신하시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
불교사상 처음으로 인간 영혼체의 비밀을 밝히면서 영체윤회설을 최초로 선언하여 2000년 불교사의 무아윤회논쟁에 종지 역사의 새로운 한 페지를 기록한 미증유의 보서이다. 아울러 보살 · 붓다가 되는 칭명염불 수행법을 주창하여 '타력중심수행'이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패러다임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토와 도킹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팔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영혼체윤회론〉 불교사상연구소(2010년 신간)
158면 | 10,000원

2000여년간 왜곡된 무아설을 혁파하고 영체윤회설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한역사적 논서!

불세존 말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육도윤회에 돌면서 고생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 무아(無我)를 이야기 했노라.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면서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 더 나아가서 대적정삼매에 들어 무아(無我)의 환희는 붓다의 경계이니라. 여기까지 공부 못하고 법을 모독 능멸하여 중생을 오도한 죄는 무간지옥에 가느니라. 붓다와 법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느니라.

〈칙천무후〉 송도현 저/2010년 신간 238면 | 15,000원

중국 최초의 여황제 칙천무후의 정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밝혔다.
중국 최초의 여황제로서 80화엄경을 만들고 불경에 나오는 개경게를 쓰고 사찰을 짓고 불교를 중흥시킨 칙천무후, 그 화려한 제관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문제점들의 허구성을 저자의 해박한 역사적 시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무후가 불교사에서 해야 할 사명이야말로 바로 그녀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뜻임을 밝힌 대역작이다.
칙천무후야말로 화엄경을 통해 불세존의 존재를 알리고 정법 천년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인물로서, 인도 아쇼카 왕과 함께 3천여년 불교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월 1회 절찬리 방영중!!
8월 16일 현지사 대전분원 큰스님 대법회 녹화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관음태고,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삼매 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과 지장보살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를 소개한 인류의 필독서.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피력.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I II III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IV권 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108 대참회문 108배와 함께하는 불자들의 참회수행 지침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 행복으로 가는길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매월 음 8일, 23일 대법회 http:// www.hyonjisa.com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대전 분원 Tel 042)525-5325, 5345

# 화두참구에도 법 있고 수행체계에도 역사 있어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은 8월 12~1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Ganhwa Seon, Illuminating the World)'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인 12일에는 혜국 스님(前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이 '간화선의 유래와 수행방법'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어 △로버트 샤프(UC버클리대 교수)의 '선공안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간화선의 3요체와 37보리분법의 5근·5력에 대한 비교 고찰' △나타샤 헬러(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명 박사)의 '거울을 닦는 도구'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의 '화두의 내재적 구조 일고(一考)' △혜민 스님(美 햄프셔대 조교수)의 '돈오의 점진적 체험'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의 '간화선의 한국적 이해'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한국 근현대 간화선사들의 보조선에 대한 인식' △제임스 랍슨(하버드대 부교수)의 '대사대오(大死大悟)의 선'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서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의 '선종에서의 수선(修禪)의 전개와 간화선' △할보 아이프링(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의 '명상의 목적과 마음의 태도' △윌리엄 보디포드(UCLA 교수)의 '간화선과 중세 일본의 자세검점(子細檢點)수행' △코지마 타이잔스님(중국 무한대학 명예교수)의 '일본 선계의 현황과 전망'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의 '한국불교 전통선원의 현황과 수행' △시지루(포마나대학 교수)의 '부처를 염(念)하는 이는 누구인가?'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8월 12~13일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석학들은 "간화선은 일체 분별을 놓아버리고 화두를 들고 의심으로써 정념으로 통하는 수행"이라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 간화선이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각 불교 수행전통의 개별적인 연구는 많이 있지만 수행전통들 간의 비교연구나 불교 수행체계의 변천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오해와 편견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불교 수행체계의 변천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 37보리분법 가운데 5근·5력과 간화선 수행의 3요체를 비교해 각 수행법의 특징과 공통점을 고찰했다.

초기경전에서는 37보리분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념처(念處)·4정단(正斷)·4신족(神足)·5근(根)·5력(力)·각지(覺支)·8정도(正道)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산 스님은 "초기경전에는 대부분 각 도품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37단계의 차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품마다 하나의 완성된 수행체계이다"며 "하나의 수행법만을 실천해도 해탈과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초기 불교시대에는 각각이 하나의 완전한 수행체계로 설해졌고, 수행자들 또한 자신의 성격이나 근기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 수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선의 본래성불의 입장을 강조해 간화선은 제거해야 될 번뇌가 따로 있어 선정과 지혜를 점차로 닦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탈돼 있는 본래 모습을 화두 의심의 타파를 드러내는 것이다. 미산 스님은 "하지만 간화선은 조사선과 달리 공안에서 비롯된 화두 의심을 타파하는 과정을 시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3가지 실천 강령이 바로 큰 믿음, 큰 분심, 큰 의정(擬情)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각 수행법들의 상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 있고 불교 수행법의 틀 안에서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은 '화두의 내재적 구조 일고(一考)'의 주제발표에서 화두의 구조적인 면을 살폈다.

간화선 주창자인 대혜 선사(1089~1163)는 "화두 위에서 의심이 타파되면 1000가지 의심이든 만 가지 의심이든 일시에 부서진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은 "대부분의 간화 지침서들이 대부분 최상근기의 수행법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수행법보다도 '간명직절'한 것이 간화선이 가진 매력이자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하나의 화두와 그 타파로 일체를 해결하는 힘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첫 번째는 간화선이 가진 목표의 직접 지향성이다. 간화선은 도달하고자 하는 수행 목표와 참구하는 방법 모두 곧바로 깨달음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지향한다. 여타의 수행법에서 이야기하는 단계적 방법이나 과정, 획득되는 경지 등 점차적인 것은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 오직 화두 참구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단 하나의 목표인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 시종일관 나아간다. 종호 스님은 "이러한 목표의 직접성이야말로 간화선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이자 한편으로 중국선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요소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화두 자체가 이미 진법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다. 화두는 타파해야할 대상이지만 본래면목, 본지풍광에서 보자면 그 역시 본래면목에서의 소출(所出)인 것이다.

세 번째는 화두가 갖고 있는 함축성이다. 하나의 화두에는 법계 만유의 일체가 함축되고 연결돼 있어 그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면 온 법계 전체를 알게 되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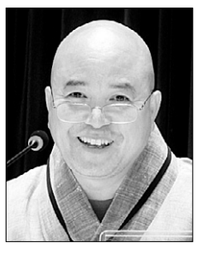
종호 스님은 "이른바 목표의 직접성과 자체의 진법적 성격, 그리고 법계 전체의 함축성 등이 화두에 깃든 내재적 구조이며, 간화선은 이에 의해 하나의 화두로 일체를 타파하고 일체를 요달해 구경의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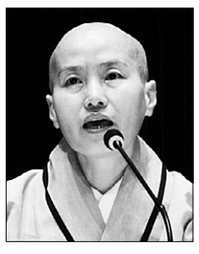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은 '선종에서의 수선의 전개와 간화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중국 선종사는 벽관(壁觀)의 선에서 시작해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수선의 역사이며 돈오의 역사다"며 "수선의 목적은 신(信)에 대한 각증(覺證)이며 이 각증을 위해 저마다 선법을 제시하면서 각자 자신의 수선이 가장 효율적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선종은 달마선종의 정통성인 시(是)·비(非)로 인해 처음에 남북양종으로 분기됐고, 수선의 방법상에서 정(正)·사(邪)로 구분되면서 묵조선과 간화선으로 선법이 대치되기도 했다.

혜원 스님은 "이 같은 수선의 전개는 또한 여래청정선에서 조사선이라는 선관의 형태가 구분되고 분별되기에 이른다"며 "그러나 어떠한 선법이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신증(信證), 즉 돈오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





## 화두참구법

월암 스님은 "화두참구에는 시시제시(時時提撕)·생사교가(生死交加)·성성적적(惺惺寂寂)·화두삼매(話頭三昧)·절후재소(絶後再甦)가 있다"고 했다.

시시제시는 참선, 염불, 주력, 간경 등 무엇이 됐건 간에 오직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즉 일념이 되는 것을 일컫는다.

생사교가는 화두를 들고 참구함에 있어 의정이 사라지고 화두가 잘 들지 않을 때 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공안도 자신의 생사문제에 견줄만한 것은 없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사를 보는 것이야 말로 생사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다.

성성적적은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고요하되 화두로 깨어있고, 화두일념으로 깨어있되 경계에 걸림이 없어 항상 고요한 순일무잡의 상태로 드는 것을 일컫는다.

화두삼매는 고요한 가운데 또렷하고 역력하게 화두가 현전할 때에 이르면 몸과 마음의 경계가 한결같아 꿈속에서나 자나 깨나 끊어짐 없이 화두삼매에 들게 되는 것이다.

절후재소는 '한 번 크게 죽었다 다시 살아 남'을 뜻하는 사중득활(死中得活)이라고도 한다. 동정일여, 오매일여를 하나의 경지로 부여잡고 크게 죽어 있는 사람이 다시 화두에 의심을 붙잡아 향상일로(向上一路)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뜻한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 50 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개 강: 2010년 8월 30일 (월)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 | |
|---|---|
| 빙 의 치유법 |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
|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
| 명리학 |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
| 최면학 |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 화두, 서양의 논리 · 이성과 통섭하다

## 서구학자들이 본 간화선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해외석학들은 이성 · 논리 · 합리성을 지향하는 서양인 특유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본 간화선을 조명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도 간화선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로버트 샤프(UC버클리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불교학)석좌 교수는 '선 공안,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에서 "학자들은 선 공안을 해석의 형태로는 전혀 다루려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잘못 형성됐으며 일부 공안들은 본래의 의미나 교리적 취지를 복원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샤프 교수는 "서구에서 중국과 일본의 선불교에 관한 인기 서적들은 공안을 비논리적인 역설 또는 수수께끼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들은 지적 능력을 방해하고 단절시켜 사고를 억누르고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최근 몇몇 학자들은 선 공안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선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이 역사적, 민족지학적 기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샤프 교수는 또 "비록 공안 양식의 제도적인 배경과 문학적 역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어 왔지만, 선 공안의 교리상, 해석상의 내용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이 공안을 해석의 형태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공안 문헌에 대한 이전의 호교적 신비화로 인해 생겨난 확고한 전통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샤프 교수의 분석이다.

샤프 교수는 "학자들의 그러한 태도는 잘못 형성됐으며 일부 공안들은 교리적 취지를 복원함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공안들은 철학적으로 섬세하고 해석학적으로는 기교적이기 때문이며, 저자들이 모호한 암시나 기지에 찬 익살, 그리고 능숙한 재담을 즐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샤프 교수는 '조주의 개'를 분석하면서 공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공안은 명백하게 불교 문학, 교리, 변증법과 밀접한 관련을 전제로 한다"며 "많은 공안들은 공(空)이 형상의 세계를 초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은 적절히 파악된 형상 세계라는 주장이다.

샤프 교수는 "대승 사상은 조주의 단호한 '없다!'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 '없다'는 결국 개의 불성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놓인 개념의 덫을 피하기 위하 수사적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샤프 교수는 무문관(無門關)의 여러 공안들을 살피며 "선 공안이 단지 지적 작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재치 넘치는 비논리적 발언들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공안은 선 수행자들이 교리적 고민이나 도전적 과제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을만한 선례이자 수사적인 전형이라는 것이 샤프 교수의 해석이다.

샤프 교수는 "선 공안들은 상당(上堂) 의례를 통해 불설의 전형적인 모델을 이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발언과 대화들은 선 변증법에 의해 형식과 내용(손가락과 달)이 궁극적으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할보 아이프링(오슬로대 동양어학과)교수는 '망상을 없애는 명상 수행법'을 주제로 생각의 흐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명나라 말기 선사 감산덕청의 법문을 고찰했다.

아이프링 교수는 "정신분석학의 자유연상법에서는 생각의 흐름을 내면의 갈등을 발견해내고 정신 질환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전통적인 명상법에서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이 명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 극복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프링 교수는 생각의 흐름에 관한 문제를 명나라 말기의 선사 감산덕청(?山德淸, 1546~1623)의 법문을 통해 살폈다. 감산덕청의 주요 명상법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 참구다. 이는 정토 염불과 선의 화두를 결합시킨 것인데 감산덕청은 이외에 다른 화두를 사용하기도 했다. 아이프링 교수는 "감산덕청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만 한다면 부처의 이름이나 경전,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체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프링 교수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생각을 억제하라는 명령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마음가짐에 대한 쟁점의 밑바탕에는 명상 중에 일어나는 생각의 허용과 금지에 대한 문제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샤프(UC버클리대 교수)


할보 아이프링(오슬로대 교수)

지시적인 방식의 명상법은 대체로 생각을 바로 쫓아내지만 비지시적인 형태의 명상법에서는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은 허용해도 생각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프링 교수는 "감산의 명상법은 비록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이프링 교수는 감산의 다양한 명상의 형태도 살폈다. 감산은 그의 법문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정념수행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화두, 불명(佛名), 진언 등 염송하기 △명상의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참구하기 △명상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명상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의문뿐 아니라 명상 대상이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의문 갖기 등을 가르쳤다.

아이프링은 "감산의 수행법은 궁극적으로 임의로 떠오르는 생각의 방해를 받지 않는 마음의상태를 이끈다는 것을 상정한 면에서는 다른 불교나 비불교 수행자들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한국 전통선원 … 월암 스님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은 주제발표 '한국불교 전통선원의 현황과 수행'에서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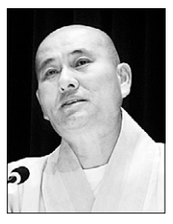
한국의 선불교는 신라 말 도의국사가 중국의 조사선(祖師禪)전래하면서 시작됐다. 나말여초에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차례로 개창돼 조계, 마조, 석두 등의 조사선풍이 이어졌다.

고려 중엽 대각 국사에 의해 천태선(天台禪)이 전래됐고 후에 조계선(曹溪禪)과 함께 선종으로 통합됐다. 고려 무신정권하에 보조선사에 의해 <간화결의론>이 저술되면서 간화선이 정식으로 소개되고, 그의 제자 진각혜심에 의해 간화선 수행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고려 말 태고와 나옹 두 선사가 화두 참구에 의해 개오했다. 중국에 들어가 각각 석옥 · 평산으로부터 임제정맥을 사사받고 돌아와 간화선풍을 진작하게 됐다.

조선조에 들어와 간화선을 종지로 행화(行化)한 벽송지엄에 의해 불조정전(佛祖正傳)의 선맥이 계승되고 그의 사법 부용영관의 문하에 청허휴정과, 부휴선수가 배출되면서 조사선에 바탕을 둔 간화선풍이 선수행의 주류를 형성했다. 이후 환성지안을 거쳐 조선 말 경허와 용성에 의해 다시 간화선풍이 진작돼 해인사, 범어사, 송광사 등을 중심으로 선원이 개원되고 운수납자의 선수행 풍토의 기틀이 마련됐다.

일본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불교화의 억압 속에서도 비구납자들은 선원을 중심으로 선수행을 통해 불법의 혜명을 잇고자 노력했으며, 화두참구를 근간으로 하는 수행체계를 유지 ·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한국의 제방선원에서는 화두참구를 수증(修證)의 원리로 삼는 간화선 수행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간화선풍이 퇴조하는 반면 한국불교는 지금까지 정통법맥이 전승되고 있으며, 간화선 수증을 종지 종풍으로 삼으며 전국적으로 100여 선원이 개설돼 안거 때마다 2200여 수좌가 용맹정진하고 있으며 전국 여러 사찰에서 재가선원을 운용중이다.

## 한 · 중 · 일의 간화선

### #한국

혜민 스님(햄프셔대학 동아시아종교학 조교수)은 '돈오의 점진적 체험'을 주제로 서구 불자들에게는 생소한 한국 간화선에 대한 현대 한국선사들의 다양한 가르침을 소개했다.

혜민 스님은 송담 스님, 성철 스님, 수불 스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췄다.

송담 스님은 수행과 호흡을 조화시키는 수행법을 가르쳤다. '이 뭣고?'를 들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3초 동안 머물렀다 내쉴 때, '이 뭣고'를 들고 다 내쉬면 숨을 들이마시되, 들이마시면서도 아까 그 '이 뭣고'한 그 의심의 여운이 그때까지 오도록 조용하게 관조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한국에서 송담 스님의 특징적인 교습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8년 간 장좌불와 수행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 성철 스님은 "화두 수행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화두 의심은 망상에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되고 적적(寂寂)한 마음상태를 만들어 낼 분만이 아니라 해탈의 지혜를 이르킬 수 있는 성성(惺惺)한 정신적 상태도 함께 만들어 낸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의 깨달음의 정도를 살피기 위해 삼단수행이라고 알려진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동중일여(動中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가 그것이다. 혜민 스님은 "성철 스님은 삼단 수행을 거치지 않은 깨달음은 돈오가 아니라고 부정을 함으로서 진정한 돈오로 가는 길은 점진적인 세 단계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으로 가르쳤다"고 말했다.

김방룡 교수(충남대 철학과)는 주제발표 '한국 근 · 현대 간화선사들의 보조선에 대한 인식'에서 경허 이후 대부분의 선사들은 돈오점수와 선교일치 간화선 등을 회통하는 보조선을 수행의 지침으로 받아들여 왔으며, 특히 효봉과 구산에 의해 송광사를 중심으로 보조선이 크게 선양돼 왔음을 밝혔다.

### #중국

나타샤 헬러 박사(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전공)는 '거울을 닦는 도구'를 주제로 중국 원나라시대의 승려인 중봉명본(中峰明本 · 1263~1323) 선사가 재가신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들었던 화두를 고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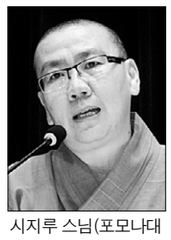
시지루 스님(포모나대학 종교학과 부교수)은 '부처를 염(念)하는 이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허운 선사(虛雲 · 1840~1959)와 현대 중국 불교의 화두참구를 조명했다.

시지루 스님은 "허운 선사는 20세기로 빠르게 전환하는 동안 제국주의 중국의 몰락과 현대 중국의 건립이라는 사회정치적 대변동기를 거쳐 선을 가르치고 화두를 설명했던 뛰어난 승려"라며 "전통적인 선 기법을 정교하게 재규정했으며, 관적으로 염(念)과 염불 등 고전적 불교 수행법의 측면에서 선을 해석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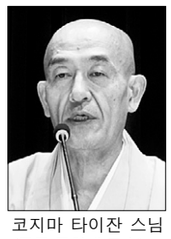

혜민 스님(햄프셔대 교수)


김방룡(충남대 교수)


나타샤 헬러 박사(하버드대)


시지루 스님(포모나대 교수)


윌리엄 보디포드(UCLA 교수)


코지마 타이잔 스님(중국 무한대 교수)

### #일본

윌리엄 보디포드 교수(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는 '간화선과 중세 일본의 자세검점(子細檢點)수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디포드 교수는 일본 조동종의 태조로 칭해지는 형산소근(1264~1325)의 <전광록>이라는 문헌을 통해 그의 수행방식을 발견하고 '자세검점'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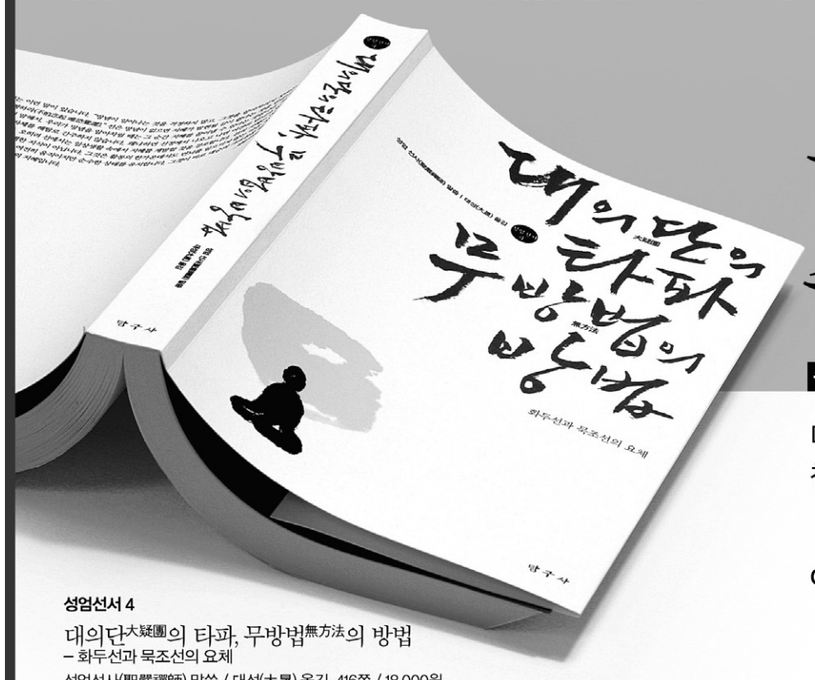
보디포드 교수는 "형산은 제자들이 공안을 좌선수행을 돕는 도구로써 활용할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편, 그들은 또한 제자들이 공안이나 좌선수행을 대오를 위한 기술로서 간주하지 않도록 훈계했다"고 분석했다.

코지마 타이잔 스님(중국 무한대학 철학부 명예교수)는 '일본 선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일본의 선은 천태선, 법화선이었다. 즉, 一을 근본으로 해 그 一안에 무 · 공 · 불성 · 불성 · 깨달음 등을 동일시 해 집어넣는다고 하는, 一을 근본으로 하는 일즉일절의 선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서출판 탐구사 전화 02) 702-3557 팩스 02) 702-3558 구입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 24, 운주사, 주요 불교서점

탐구사



한국불교가 몰랐던
중국(대만) 선불교의 진수!

중국에서는 선종의 맥이 끊어졌고 선종의 정통은 한국에 있다고 믿은 것은 한국 불교도들의 근거 없는 신화였다.

대만을 중심으로 일약 부흥하는 중국선의 중심인물 성엄선사,
침체에 빠진 한국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성엄스님의 법문집 시리즈 제4탄!

이 책의 주된 내용

- 화두와 묵조에 착수하기 전의 예비 수행에 관한 참신한 안내
- 간명히 정리된 화두선 3단계와 처음 소개되는 묵조선 3단계
- 선 수행자들과 선 수행 지도법사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의 설명
- 감산덕청, 황룡오신, 대혜종고, 굉지정각 선사의 법어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



성엄선사(聖嚴禪師, 1930~2009)
- 동서양을 넘나들며 중국선(Chan)을 세계에 알린 대만불교의 중흥조
- 계·정·혜 삼학을 두루 겸비하고 선풍을 드날린 당대 최고의 고승

성엄선서 4
대의단大疑團의 타파, 무방법無方法의 방법
– 화두선과 묵조선의 요체
성엄선사(聖嚴禪師) 말씀 / 대성(大晟) 옮김 416쪽 / 18,000원

수행 불자들의 필독서 – 성엄선서 시리즈!
1. 마음의 노래 – 우두법융 선사의 「심명」 강해, 320쪽 / 15,000원
2.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 「신심명」, 「참동계」, 「보경삼매가」 강해, 288쪽 / 12,000원
3. 지혜의 검 – 「증도가」, 「반야심경」 강해, 320쪽 / 13,500원
5. 선의 지혜 – 불교에 관한 문답 〈근간〉
*성엄선서는 계속 출간됩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삶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고통 속에서 가끔씩 행복을 느낄 뿐이죠. 사람은 왜 사는 것인가요? 왜 저는 태어났을까요? 있지도 않은 행복을 찾아야 하고 왜 괴로움을 항상 참아야 하는 것인가요?

세상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할 수 있는 조건보다 불행할 조건이 너무 많죠. 행복해 보이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죠.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으며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A 생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있으시군요.

찌루찌루와 미찌루 이야기 아시지요. 행복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다 집 처마에서 찾은 파랑새 이야기 말입니다. 구름 많이 있는 날 태양은 사라지고 없는 건가요? 단지 구름에 가려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일 뿐 태양은 언제나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 뒤에 늘 밝게 빛나고 있는 자성(自性) 즉, 본마음이 있답니다.

인간은 왜 사는지 궁금하다 하셨지요? 부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 태어났고,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행복함은 행복함대로 잘 느껴보세요.

혹시 더운 날 시원한 바람 한 자락에, 추운 겨울 따끈한 차 한 잔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슬쩍 건너뛰어도 좋을 일에 인상을 쓰며 기분 상했던 적은 없었던가요.

고통이나 행복감 모두 내가 만드는 맘의 작용이라고 사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고정됨이 없는 마술 같은 프리즘이 있답니다.

행복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은 조건과 조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변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지요. 부처님은 인간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진리를 아신 분이지요.

앞으로 왜 죽음의 공포와 병의 아픔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지 의문을 가지고 사유해 보시고,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저는 맞벌이 부부 8년차에 주말맘입니다. 다섯 살 된 아들은 친정집에 있습니다.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아들을 데려올 계획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양육방식으로 종종 가슴이 아프곤 합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인지 남편은 아이에게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입니다. 남편이나 저희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A 부부지만 살다보니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내담자님의 말도 남편의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8년 정도면 남편의 성격을 아실 겁니다. 화가 났을 경우에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니 대화를 피해 주시는 것도 서로 상처를 덜 받는 한 방법입니다.

어린 아들은 부모로서 충분히 사랑을 주시돼 남편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남편 역시 아내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큰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들에게 하듯이 남편에게도 해 보셔요.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차차 익숙해지시고 머지않아 반응도 올 겁니다. 남편이 변하길 바랐으면 좋겠지만 먼저 자신이 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남편도 서서히 변하실 겁니다.

모든 부부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지만 모두 이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살아보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헤어진다면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살아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노력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혼 후 생길 여러 가지 문제 보다는 더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절이 있다니 자주 들려 마음 찾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일로해서 8년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희노애락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며 왜 사는 겁니까?**

**부처님은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 산다 했어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 가사만 스쳐도 마음안정에 큰 도움

희망법당 탐방

## 봉은사 병원봉사부


묘수 스님(왼쪽)과 문수월 보살(오른쪽) 등 봉은사 병원봉사부 부원들이 불자 환자를 찾아 광명진언을 외우는 등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루 여섯 시간 주 오일 자원봉사… 차트 이동 · 환우관리 다양**

**매주 화요일 묘수 스님의 기도와 법회 인기…환자와 상담도**

강남에 자리한 서울의료원, 환자들 사이로 주황조끼를 입은 봉사원들이 바삐 움직인다. 바로 봉은사 병원봉사부 소속 보살들이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가 부담하기 힘든 공익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이다. 서울의료원은 1977년 건립돼 사설병원보다 장비 · 시설 및 인력 등이 열악하다. 봉은사 병원봉사부(연등장 문수월)는 이러한 서울의료원에서 2006년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3시간씩 노력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봉은사 병원봉사부의 서울의료원 봉사활동은 병원일손돕기와 법당관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병원일손돕기는 주로 전산화 미비 등으로 인해 각 원무과에 차트 등을 나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일 등을 진행한다.

차트를 각 층 원무과 등에 직접 전해주느라 힘들 터인데도 봉사하는 보살들의 표정이 밝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건강함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고맙죠." (심자력 보살)

봉은사 병원봉사부의 노력봉사는 매일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당에서 법회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와 상담, 환우관리 등 전반적인 일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 · 오후에 나눠 6~7명의 봉사부원들이 돌아가며 봉사하고 있다.

봉은사 병원봉사부는 강남 인근 지역 불자 외에 멀리 구리, 오산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부원들 등 70여 명으로 구성돼있다.

육아 등 바쁜 가사일 와중에도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부원들은 "다 따지면 못하죠~제치고 해야죠~"라며 밝게 웃는다.

병원봉사부 연등장 문수월 보살은 "봉은사 봉사부 부원들이 각자 봉사날이 정해지면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멀리 살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지도법사 묘수 스님의 쾌유기도 및 환자상담, 법회 등이 진행된다. 묘수 스님도 환자 상담, 호스피스 활동을 위해 남양주 봉선사에서 서울의료원까지 먼 길을 오가고 있다.

묘수 스님은 "봉사부원들이 미리 병원 라운딩을 하며 환자 중 불자이거나 기도 등을 원하는 신청을 정리해 놓으면 매주 상담과 기도 등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활발한 신도들의 봉사 참여에도 병원 봉사활동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많다. 병원 측의 까다로운 제약과 타종교 환자들의 시선 때문이다.

묘수 스님은 "보통 병원에서 봉사는 반기지만 포교는 꺼리는데 공공의료기관이어서 포교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했다.

스님은 서울의료원 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호스피스 병동의 한 거사와의 인연을 들었다.

묘수 스님은 "간암 말기였던 한 거사님이 계셨는데, 말할 힘도, 염주 돌릴 힘이 없는 와중에 기도 시 입모양으로 관음정진하고, 또 힘겹게 염주 한 알 돌리시던 모습이 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환자들에는 스님 가사 자락만 보고, 또 스쳐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올 10월 서울의료원 불교법당 건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는 봉은사 병원봉사부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내 지역균형 발전과 의료복지 확대 등으로 서울의료원이 2011년 3월까지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문수월 보살은 "현재 법당이 별관에 자리하고, 또 입구가 계단이어서 환자들이 찾기 힘들었다. 매월 본관 강당에서 법회를 열었는데 이전 후 본관에 자리할 법당에서 불자와 환자들을 위한 법회, 봉사활동 등을 보다 활발히 펼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봉 축

국태민안 및 국운융창 기원 **영산대재**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대한불교선각종 모후산 도 원 사 4주년 기념법회**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광주 • 전남 불교사암연합회
■ 주 최 : 모후산 도원사 봉행위원회 • 신도회
■ 후 원 : 화순군사암연합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선각종전국교구본사, 선각종중앙포교원(완도수양사), 불교TV,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화순군계사회, 한국디자인(기획사), BBS광주불교방송, 광주일보, 호남일보
■ 초청가수 : 일운스님(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50호 영산 보존회장), 법능스님, 김상배, 현진우, 우연히, 정현, 7080뮤지컬(경규와 뮤직), 통기타(주권기), 신명화, 혜랑
■ 일 시 : 2010년 9월 11일(토) 오전 9시 영산대재 / 오후 4시 산사음악회 및 신도노래자랑
■ 장 소 : 전남 화순 모후산 도원사
■ 문의전화 : 061)372-1047, 061)433-2233 총무원 / 신도회장 011-636-4110

원심회 하계수련회
'행복한 여름'



조계사 장애인 포교신행단체 원심회는 8월 6~7일 남해 용문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청각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서로 도우며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가운데)이 원심회원들을 위해 법문을 하면 엄재면 회장(왼쪽)이 수화로 통역을 했다. 혜봉 스님(오른쪽)은 회원들을 위해 다도법을 지도했다.

# 말하지 않아도 통해요 마음으로 눈빛으로

## 봉사자·수혜자 따로 없어 어울리니 행복

## "장애는 성장의 동력이요 역경 이기는 힘"





아침포행길에 회원들이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음을 나누고 있다.

수화로 삼귀의·사홍서원 등의 의식을 진행하는 원심회 회원들.

가을의 문턱 입추(立秋). 이글거리는 태양의 기세는 사그라질 줄을 모르고 있었다. 연일 이어지는 도시의 열대야에 숙면을 포기한지도 오래다. 낮이면 습한 공기에 불쾌감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여름이 어서 지나기만을 바라는데 다음 달까지 이 무더위가 이어진다는 기상예보에 숨이 턱턱 막힌다.

8월 7일 조계사 일주문 앞. 노란색 조끼를 입은 이들이 버스에 오른다. 버스 앞 유리에는 '행복한 여름'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천연덕스럽게 걸려있다. 여름은 행복을 삶아 먹는 계절인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뭐가 어찌하여 행복하다는 것인지.

버스는 만원이었다. 이 버스를 타고 40여 명이 경상남도 남해까지 내려간단다. 헉! 이동시간만 무려 6시간. 버스에 오르자마자 사람들은 말없이 나눠주기만 한다. 과자, 음료수, 얼린 생수, 사탕, 오징어, 뻥튀기에 중간 중간 즉석 냉커피도 서비스된다.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화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행복한 여름의 주인공인 조계사 장애인 포교신행단체 원심회 회원과 가족들이었다.

원심회는 8월 6~7일 경남 남해 용문사(주지 성전)로 여름수련회를 떠났다. 엄재면 원심회 회장은 수화통역을 하고, 봉사자들은 이것저것 챙기고 나눠주기 바빴다. 행사 내내 그랬다. 먹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었다. 청각 장애인들은 누구나 눈이 마주치면 미소로 인사를 하고 "예뻐"라고 말하거나 수화로 전했다. 주는 대로 받고, 갖는 대로 나누는 사이 남해에 도착했다.

용문사에 도착하기 전 한국 최초의 현수교(懸垂橋) 남해대교에 올랐다. 바다는 조용했다. 싱그러운 바닷바람이 코를 스치고 지나갔다. 입추를 맞은 하늘과 바다는 하나였다. 가까이 내다보이는 섬들은 옹기종기 모여앉아 모두를 반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끌어안고, 푸른 하늘과 바다와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달궈질 데로 달궈진 아스팔트 다리 위에서도 다리가 불편한 이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사랑하는 이와 팔짱을 끼고, 들리지 않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보통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통제하기 힘든 것이 단체 행사인데, 행사는 조용히 여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수화로는 공양게송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 자비관 명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모두 따라하세요.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엄재면 회장의 수화통역에 맞춰 용문사에서 수련회의 첫 과정인 발우공양이 시작됐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혜봉 스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세상은 꼭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눈빛과 손동작으로 발우공양법을 설명했다. 청수물을 받자마자 마셔버려 공양 내내 물만 한껏 먹는 이도 있었고, 마지막 단계에 쓸 단무지를 놓아 줄 때마다 먹어 단무지만 계속 먹는 사람도 있었다. 이정도 실수는 애교 수준이었다.



"발우공양 지도한 이래로 이렇게 목 안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말을 거의 안 했는데도 너무 잘했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절집에서 젓국을 얻어 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딱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말인 것 같네요."

혜봉 스님은 발우공양을 마치고부터는 필요한 말만 봉사자들에게 했다. 말없이 간단한 손짓과 눈빛으로 저녁예불, 스님과 함께 바닷가 걷기 명상, 다도, 새벽예불, 108배, 참선을 진행했다. 몇 가지 의식문을 수화로 하고, 목탁 대신 북을 사용할 뿐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6시간 이동에, 2시간 여의 포행, 새벽기도 등 일정이 벅찰 만도 한데 참가자들은 빠짐없이 참가했다. 온 몸이 아프다는 이봉규 씨는 힘든 산행길에 "힘드시죠?"라며 옆사람에게 먼저 안부 인사를 묻는다. 또 사람들은 "봉규씨 괜찮으세요?"라고 걱정해주자, "땀은 많이 나는데 힘들지는 않아요"라며 걱정을 덜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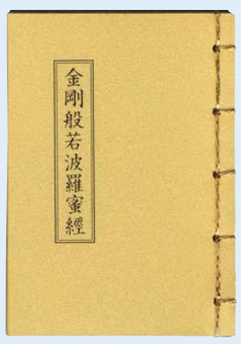
성전 스님은 원심회원들은 격려했다. "몸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탐·진·치에 이끌려 자신의 몸을 쓴다면 성한 몸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온전치 못한 몸이라도 오롯이 마음을 밝히는 것, 어떤 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몸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마음 불구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행복과 자비가 넘치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불제자이기를 발원하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애는 곧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명한 성전 스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행복은 스님의 목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원심(圓心)으로 통했다.

멀고 먼 남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여서 그 길은 멀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사람들과 수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고루 섞이어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봉사자와 수혜자가 따로 있지 않았다. "같이 부처님께 귀의해 공부하고, 때로는 같이 어울려 노는게 좋을 뿐"이라는 한 봉사자의 말처럼 모두가 격의 없이 한 마음이었다.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이나 봉사자 중에는 이곳에서 휴가를 지내는 이들도 많았다.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곳에 온 이유를,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 일 조차도 이들에게는 입 아픈 일이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영산강 문수선원 "실험대상 아니다"

전남 영산강 승촌보 문수선원(선원장 법선)은 4대강을 지키기 위한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문수선원을 운영하는 영산강 살리기 광주전남시민연대(공동대표 임낙평)는 8월 22일 문수선원에서 '문수선원 음악제'를 개최한다. 놀이패 '신명'과 민족극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음악제는 오후 2시 순례에 이어 3시 마당극과 공연의 순으로 진행된다.

28일에는 문수스님추모위원회 주최로 문수스님 산골의식이 봉행된다. 9월 11일에는 '4대강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시도민의 날'로 지정해 4대강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수선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불교평화운동가 정의행씨는 "불교계 일각에서 영산강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4대강을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수술방법을 가지고 자연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29일 개원한 문수선원에는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통일선봉대, 비전한반도포럼 등이 다녀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뜨거운 여름 자연과 함께해요"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생태학교 · 익산 숭림사, 템플스테이

방학을 맞아 전국에서 어린이 캠프가 한창이다. 전국 사찰과 불교계 단체에서는 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교 및 자연체험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6~8일까지 완도 신흥사에서 '제4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개최했다. 건강한 먹거리와 놀이거리, 그리고 자연을 체험하는 행사에는 60여 어린이가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완도 천혜의 자연지 정도리 구계, 청산도, 보길도 등에서 자연생태 바로알기, 손수건 천연염색, 우뭇가사리 만들기, 전래놀이, 물놀이, 빈그릇 공부, 건강한 먹거리 강의, 도자기 만들기, 오감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생태학교에서는 휴대폰, 게임기 없이 지내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다. 또 비누와 치약 등은 환경연대에서 나눠준 친환경제품을 쓰면서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체험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진현우(초등 6년)군은 "밥은 맛있었고, 108배는 운동이 되었다. 물놀이, 춤추는 것,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아 아쉽다. 게임기나 핸드폰이 없이도 행복했다"며 참가소감을 말했다.


전북 숭림사는 8월 6일~8일 자연과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어린이들이 함라산 둘렛길을 탐방하고 있다.

전북 숭림사(주지 지광)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한자교육과 생태체험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6~8일 '자연과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는 40여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한문 교실은 전주 효정중학교 한문교사인 고현욱 선생님이 인성교육은 일산 정발중학교 도덕 교사 장미숙 선생님이 맡았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인근의 함열성당 초등학교 교리반 학생들도 함께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생태체험으로는 최근 조성된 함라산 둘렛길, 불교문화재를 탐방하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지광 스님은 "짧은 기간 숭림사에 머물며 음식의 소중함과 우리 문화재와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

### 아시아 청소년들 한국불교 체험

제27회 국제 잼버리대회에 종교관이 운영돼 아시아지역 청소년들과 종교를 통한 문화교류가 진행됐다. 잼버리대회에 운영된 불교관을 비롯해 각국 대원들은 각 종교관에서 기도와 예배를 보며 바쁜 프로그램에서도 평소의 신심을 다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진정순)는 8월 4~9일까지 전남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제27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겸 국제패트롤 잼버리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과 함께 종교 참여시설을 운영했다. 종교관 중 가장 인기를 끈 불교관은 사찰예절, 풍경만들기, 108배, 참선, 목탁치기, 실크스크린인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121명의 청소년이 불교장(스카우트의 기능장 중 하나)을 취득했다. 8일 일요일에는 일요법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대법회에는 선암사 스님들의 영산재 시범에 이어 법요식이 진행되어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법문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터득해야한다.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27회 국제 잼버리대회가 8월 4~9일 전남순천에서 개최됐다. 8월 8일 일요일 대회장내 불교관에서 열린 일요법회에 참석한 청소년과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손실되어가는 우리 문화재

### 군산 발산리 석등 탁본행위로 몸살

보물급 문화재인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석등이 무분별한 탁본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발산리 5층 석탑과 함께 군산지역을 대표하는 발산리 석등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이다.

발산리석등 기둥돌(중대석,간주석) 받침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사각의 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표면에 구름 속을 요동치는 용이 새겨졌다. 현재 용 문양에는 무분별하게 탁본을 시도해 탑의 일부분이 먹물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이다. 또 비교적 현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석조(石槽:큰 돌을 파서 물을 부어 쓰도록 만든 석기. 큰 절에서 잔치를 하고 나서 그릇 따위를 닦을 때 흔히 쓴다) 안에는 각종 오물과 잡석으로 오염되고 있다.

현재 발산리 석등은 발산초등학교에 위치해 있다. 석등을 지키는 관리자나 CCTV도 없다.

발산리 석등은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봉림사지에 있던 석조물로 일본인 시마타니가 자신의 농장으로 이전해 온 것이다. 이전과정에서 석등의 기초가 되는 지대석을 그대로 놓아두고 상부만 옮겨왔다. 현재 지대석은 전북대 박물관 앞마당에 전시돼 있어 한시바삐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행복한 완도생협 설립 완도 신흥사

## 올바른 지역문화사업 창출이 목적

남도 끝자락 완도. 남도 끝자락 완도는 남해의 청정해역중 하나로 명사십리 등 휴양지와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이 설치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맑고 깨끗한 수산물로도 잘 알려진 완도에서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문화공동체 '행복한 완도 생협'이 설립돼 관심을 끌고 있다.

완도의 전통사찰인 신흥사는 지역민과 사찰이 연합해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지역문화사업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행복한 완도생협'을 설립했다. 특히 생협은 사찰이 지역과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행복한 완도생협 이사장 법일 스님.

생협 이사장에는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이 맡았다. 법일 스님은 "지역에서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지역적 한계로 인해 활동을 고민하다가 생협을 만들게 되었다"며 "문화교실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일 스님은 이서 부이사장과 함께 2009년 12월 창립한 단체를 지역 제1의 반석위에 올려놓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쿠키베이커리 교실' '건강교실' '도자기 만들기'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한 완도생협'은 매일 10시 업무를 시작한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매장관리를 전담하는 김은주 총무팀장,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박지영 교육팀장, 완도의 특산물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김성현 유통팀장, 도자기의 제작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지영 도자기 팀장 등이 참여한다. 완도읍내에 마련된 판매매장과 교육장은 매일 강좌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행복한완도생협은 유통사업도 시작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생협의 항구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유통사업은 청정해역인 완도의 해산물과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참전복, 멸치,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홍합, 굴 등 선별된 싱싱한 해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유통하는 것이다.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의 어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해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유통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은 고스란히 지역문화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빈그릇운동 · 쓰레기제로운동 등 환경운동기금, 다문화사업 및 제3세계의 구호사업에도 지원된다. 이서 부이사장은 "보통 '생협' 하면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은 사회운동과 환경운동을 위한 한 방법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사찰의 문화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활동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상임대표로 3년째 지역 환경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법일 스님의 역할이 크다.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사찰의 지역문화사업과 건강한 먹거리 유통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신흥사 생협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다. 하지만 도심사찰이 아닌 작은 시골마을의 사찰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불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061-555-3017. www.wandocoop.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자상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만해마을, 만해축전

# 님은 갔지만, 님 그리는 이들이 만든 꿈의 터


만해마을.

#만해마을을 들어서며

만해마을은 반듯하다. 그리고 단정하다. 마치 생전 만해 스님(1879~1944)의 모습을 보듯, 어딘가 깐깐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다. 집은 본래 집 주인의 성품을 가장 알 수 있는 요소다. 만해 마을을 설계한 건축가 김개천(국민대 교수)은 만해 마을을 '허공 위의 일획'이라는 주제로 기획했다. '허공 위의 일획'이란 주제가 만해 스님이 일본 강점기에 승려로서, 시인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살아온 삶을 잘 대변해 주는 듯하다.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만해 스님의 집을 건드리는 일은 쉽지 않다. 잘 정돈된 집안은 왠지 어지럽히기 더 힘든 법이다. 하지만 만해 마을의 이곳저곳은 어지럽혀 있다. 다름 아닌 한국문학계를 이끌어가는 거장들의 시(詩)들로 말이다.

고은, 신경림, 오세영, 신달자 등 현대에 내놓으라 하는 문인들의 글귀가 만해마을 이곳저곳을 어지럽힌다. 하지만 결코 그 어지러움이 싫지 않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을 묵직하게 만든다.

만해마을 입구부터 현대 문인들의 시를 동판으로 제작해 걸어놓은 '평화의 시벽'과, 시비 들이 즐비해 있다. 한 편의 시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뿜어낸다.

'평화의 시벽'을 지나치면 문인의 집, 만해학교, 서원보전, 님의침묵 광장, 만해평화지종, 만해문학박물관이 일직선으로 순서대로 자리하고 있다. 그 주변을 님의침묵 산책로가 감싸고 있다.

만해마을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만해문학박물관 입구에는 만해 한용운의 흉상이 서있다. 생전 만해 스님의 기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표정이 살아있다. 1층 상설전시실에는 만해의 저서와 유품이 연대 · 주제별로 전시돼 있으며, 2층 기획전시실에는 각 예술분야의 기획 및 초대전시가 열린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만해학교는 청소년들의 단체 활동을 위한 숙소 공간이다. OT, MT 등 각종 수련회 및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250여 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공간이다.

만해마을 입구에 들어서기 전 위치한 심우장은 현재 여러 문인들이 모여 문학 토론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해학교 옆에 자리한 서원보전은 발우공양, 참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대적 개념의 법당으로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선입견 없이 사찰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밖에 님의 침묵 광장, 산책로 등은 레크이션, 공연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문인들의 둥지 만해마을

문인들에게 있어 만해 마을은 둥지나 다름없다. 어미 새가 새끼 새를 위해 정성껏 만든 푸근한 보금자리처럼, 만해 마을은 현 문인들에게 하나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만해 마을은 만해 한용운의 자유사상, 민족사상, 문학사상을 높이 선양하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언제나 문학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며 문인 · 예술인들에게 유토피아로 자리 잡고 있다.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문인들도 만해마을에 오면 만나 볼 수 있다. 현재 만해마을에서는 문인과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집필 공간을 지원하고, 매달 우리시대 대표작가를 초청해 문학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는 문학 강좌와 문학 교실 학술 세미나 및 수련회, 템플스테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년 만해축전 기간에 실시되는 시인학교는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원로 및 중진 작가들이 시 창작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인학교 백일장,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게끔 한다.

문인들에게는 서로 소통의 자리를 통해 창작의 질을 더 높게 해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새로운 문학적 경험과 사상을 체험하게 한다. 만해 한용운을 선양하고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모여 자신의 감성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곳이 바로 만해마을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만해축전

만해 마을의 진가는 만해축전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0 만해축전이 8월 11~14일 만해마을과 인제군에서 개최됐다.

본격적으로 행사의 막이 오른 11일에는 대구시조시인협회 심포지엄, 단시조 한글서예전개막식, 만해시인학교 입교식, <유심>신인추천작품 시상식, 유심작품상 시상식, 축전 전야제 등이 열렸다. 이어 12일에는 현대시학 · 경남시조시인협회 · 계간 시안 · 현대불교문인협회 ·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 시와 세계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과 전국고교생백일장,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만해대상 시상식, 지역민들을 위한 인제군 노인게이트볼 대회, 7080콘서트가 개최됐다. 13일은 창작21작가회 평화문학 심포지엄, 평화 시전, 만해시인학교 수료식이 진행됐으며, 마지막인 14일에는 대동축구대회와 회향식으로 축전의 막을 내렸다.

올해 만해축전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선 점이 특징이다. 그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실시했던 만해대상 시상식 및 축전, 입재식 등 대부분의 행사가 인제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상이 걸린 전국고교생백일장도 인제실내체육관에서 치러졌다.

8월 12일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에는 750여 관람석이 모자를 정도로 내 · 외부 인사를 비롯해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송훈기씨는 "행사가 인제읍내로 확장된 만큼 전년에 비해 지역민들의 참여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만해축전이 만해의 가르침대로 평화와 상생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로 회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만해대상 수상자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前 국제로터리 클럽 이동건 회장, 국제 PEN 클럽 회장 존 랠스톤 소울, 정진규 시인, 미국 UCLA 동아시아학과 한국학연구소장 존 던컨, 성균관대 김학성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10 만해대상 수상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이동건 前 로터리클럽과 회장, 성운 스님, 존 랠스톤 소울 PEN클럽회장, 정진규 시인, 존 던컨 교수, 성균관대 김학성 교수의 모습이다.

## 인제군 용대리 정연대 이장

## "백담사와 유대 이어 사찰 · 지역 모범될 것"



"만해축전은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닌 만해 스님을 선양하고 기리는 축제로서, 이러한 큰 문화축제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항상 만해축전의 주인공은 지역 주민임을 강조하며 인제군 북면 용대리 정연대 이장(사진)을 만해축전의 내빈으로 초청해왔다. 정 이장은 "작년까지 모든 행사가 만해마을에서 이뤄져 용대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했다. 읍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아 교통편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용대리 주민 외에 군내의 많은 분들이 더 즐길 수 있어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6년 만해마을이 들어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박 · 음식점 등을 이용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문학 강좌나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모두들 좋아한다"고 전했다.

또 정씨는 "만해축전 외에도 평상시에 많은 문인들이 만해마을 다녀가는데, 가끔 어떤 문인들은 마을회관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용대리에는 매년 60~80만 명 가까이 백담사를 오가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그러다 보니 마을자체에서 사람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백담사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법인으로 설립한 마을 버스사업은 처음 지역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운영 수익금의 대부분은 백담사 사찰 지원과, 청소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로 사용되며 일부 금액은 마을발전기금이나 인건비로 지출된다.

정씨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아 교통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을버스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연대씨는 "종교를 떠나 마을주민과 백담사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협력이 잘 된다"며 "앞으로도 만해마을과 만해축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문화적 공간과 행사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 · 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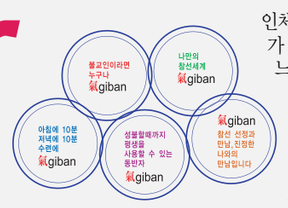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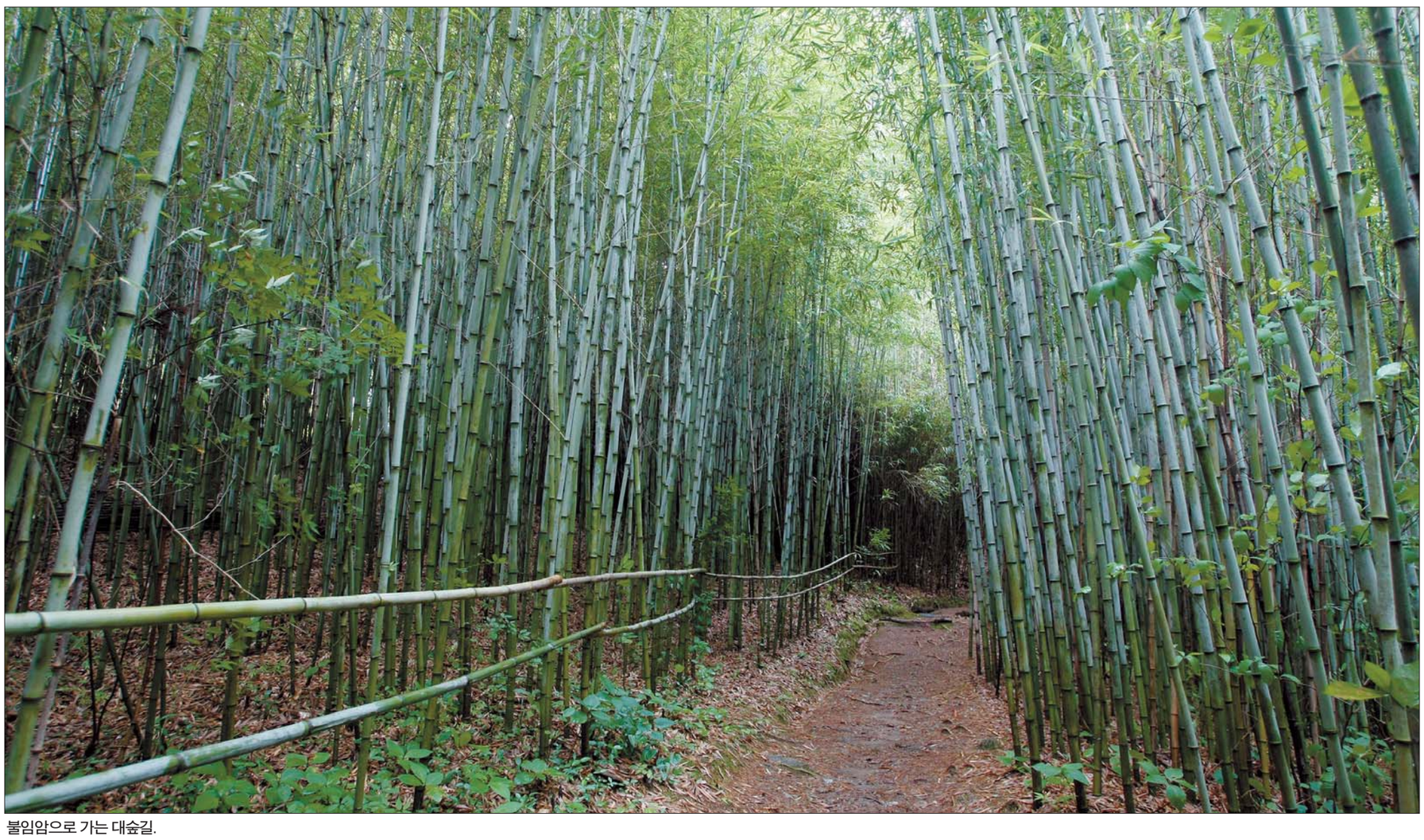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불임암으로 가는 대숲길.


법정 스님의 유골은 불일암 후박나무 밑에 뿌려졌다.

## 법정 스님의 별나라
## ⑯ 순천 불일암(佛日庵)

### 어린 왕자! 지금 밖에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롭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 의자의 위치만 옮겨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런 별나라."
[무소유-미리 쓰는 유서]중에서

그리고 30년이 지난 2010년 봄. 그는 한 그루 나무 곁으로 돌아온다. <무소유>의 법정(法頂 · 1932~2010) 스님이다. 스님은 열반에 들었고, 다비를 치른 유골은 손수 심었던 불일암 후박나무 곁에 모셨다.

불일암은 순천 송광사의 산내 암자로, 송광사의 제7세 국사인 자정 스님이 자정암으로 창건했다. 몇 차례 중수를 거듭한 암자는 한국전쟁으로 퇴락했고, 1975년 법정 스님이 중건하면서 불일암이라는 편액이 걸렸다. 스님은 17년간 이 곳에 머물렀다.

스님은 충남대 3학년을 수료한 후 1956년에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비구계를 받고 난 후에는 역경 불사와 <불교사전> 편찬 등에 매진했다. 4 · 19와 5 · 16을 겪으며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동참했던 스님은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이 후 산으로 돌아간다. 스님은 불일암을 손봐 이곳에서 홀로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6년 <무소유>가 출간된다. 간디와 함께 스님이 영향을 받았던 소로우가 월든 숲으로 들어가 그의 대표 저서인 <시민의 불복종>을 썼던 것처럼, 스님은 산으로 들어가 <무소유>를 썼다.

한바탕 비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어왔다. 2km 남짓의 불일암 가는 길은 편백나무숲과 대나무숲이 이어진 오솔길이다. 침묵으로 서있는 편백나무 숲과 천년의 소리로 쓸려다니는 대숲의 오솔길은 주인을 닮아가고 있었다.

<무소유>는 인쇄를 거듭했다. 스님의 불명(佛名)은 종교를 초월한 이름이 되었고, '무소유'는 별호처럼 스님의 이름을 따라 다녔다. 걱정스러운 시절을 걱정하던 한 선지식은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무소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중략>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무소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173쇄를 찍었고, 3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2010년 3월 11일, 스님은 원적에 들었다. 장례는 간소했다. 간소한 삶을 찾아 떠나는 마지막 길이었다. 스님의 유골이 모셔진 후박나무 곁에는 스님이 생전에 손수 만들어 앉았던 '빠삐용 의자'가 조계산을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하루에도 몇번씩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린왕자의 별나라가 불일암이었을까.

언젠가 스님은 어린 왕자에게 편지를 썼다.

'어린 왕자! 지금 밖에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창호에 번지는 하오의 햇살이 지극히 선하다. 이런 시각에 나는 티 없이 맑은 네 목소리를 듣는다. 구슬 같은 눈매를 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그 눈매를 그린다. 이런 메아리가 울려온다. "나하고 친하자. 나는 외롭다."'
[무소유-어린 왕자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불일암에 간다면 어린왕자의 마음으로 갈 일이다. 빠삐용 의자에 앉은 스님이 어린 왕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석우 스님의
## 조주록 선해 <28>

# 대도는 바로 눈앞에 있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선가(禪家)에 있는 자는 앉아서 곧바로 보신불(報身佛) · 화신불(化身佛)의 머리를 잘라내어야 비로소 얻는다."
학승이 물었다.
"보신불 · 화신불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의 경계는 아니야."

師示衆云 衲僧家 直須坐斷報化佛頭始得
問坐斷報化佛頭是什麽人
師云 非麽境界

선가는 교가와 다르게 굳건한 믿음과 진심직설(眞心直說)로 곧바로 깨닫고 행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믿음은 '부처님의 교설과 역대 선지식'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억만겁 동안 변하지 않는 부처이다'라는 가르침을 믿는 것이다. 진심직설로 곧바로 깨닫고 행하는 것은 선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즉석에서 '자신이 정말로 부처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곧 부처의 행을 행하면서 역대 선사가 그러했듯이 중생이 진심직설로 깨닫게 하는 방편을 내려주는 것이다.

위 조주 선사의 말이 바로 진심으로 하는 직설이다.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한 부처는 바로 그대이다. 그대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잠들어 있다. 잠에서 깨어나려면 일체에 유혹되지 마라. 삼신불이라는 명칭도 버려라. 오직, 그대 자신이 가장 위대한 자이니 지금 여기서 즉시 모든 생각을 잘라내 버려라." 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지름길을 가르쳐 주면 즉시 깨어나서 중생의 습성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 설법을 듣고 "보신불 · 화신불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하고 묻는 것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잠꼬대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처를 회복했다면 어찌 또 궁금함이 있으랴!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난 자라면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조주 선사를 흡족 시킬 수 있을까? 본 납자라면, "이 노인네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시득(始得) 운운하는 거야!"하고 벽력같은 소리를 내지르겠다. 그대 납자들은 어떠한가?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대도는 바로 눈앞에 있다. 요컨대 그것을 보기 어려울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눈앞에 어떤 것이 있기에 학인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강남이건 강북이건 자네에게 맡기노라."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어찌 사람을 위해 방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까 무엇을 물은 것인가?"

師示衆云 大道只在目前 要且難睹
僧乃問 目前有何形段令學人睹
師云 任麽江南江北
學云 和尙豈無方便爲人
師云 適來問什麽

눈은 창문이고 방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다. 방안에 있는 사람을 보려면 방안의 사람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아야 한다. 그때서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방안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강남을 보건 강북을 보건 그것은 방안의 사람이 마음대로 보는 것이다.

밖을 내다보고 보이는 대로 선(禪)을 말하고 유일신(唯一神)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는 것은 좋다. 어떻게 되었건 그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아라. 남에게 듣고 정의한 말을 믿지 말고 직접 들여다보라. 방안에 있는 자가 창문 밖을 내다보는 순간 세상사가 펼쳐진다. 그 순간 대도(大道)가 작동한 것이다. 밖을 내다보던 것을 거두어들이고 방안으로 들어가면 대도(大道)는 숨어버린다. 따라서 대도를 알려면 밖을 내다볼 때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도는 문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者), 내다보면 대도가 펼쳐지고 내다보지 않으면 대도는 거두어지는데, 분명 대도를 드러내고 거두어들이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인가? 그자가 인류의 흥망을 한 손에 쥐고 흔들고 있다.

**잠에서 깨어나려면 일체에 유혹되지 마라**

**남의 정의를 믿지 말고 직접 들여다 보아라**

학승이 물었다.
"법계(法界)에 들어가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가 법계에 들어간 사람인가?"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법계에 들어가면 모르는 것이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 식어빠진 재(灰)더미이거나 죽은 나무와 같지는 않아. 백가지 현란한 꽃을 나타내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법계에 들어가면 용(用) 아님이 없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런 것과 상관없어."

問 入法界來還知有也無
師云 誰入法界
學云 與麽卽立法界不知去也
師云 不示寒灰死木 花錦成現百種有
學云 莫是入法界處用也無
師云 有什麽交涉

여기서 법계는 '진리의 세계'를 말한다. 법계에 들어간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성현(聖賢)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며 처세가 다르다. 마음 깊은 곳에 번뇌가 없고 양변에 집착이 없으며 말끔한 가을 하늘처럼 마음이 언제나 청청(淸淸)하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알아도 아는 것이 없다한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도 들어간 지도 모른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하다. 남에게 아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기의 일에 충실할 뿐, 시골의 밭가는 농부처럼 욕심도 없고 무엇을 강제로 이루려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웃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활동을 하지만 구하였어도 누구를 구하였다는 말이나 생각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세계에 이른 사람이 마치 다 식어빠진 재(灰)더미 같거나 죽은 고목과 같은 삶을 사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삶을 누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 갈수도 있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성 있는 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혹은 석가모니처럼 많은 사람을 제도하는 화려한 스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남의 스승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어둔하고 글이 어둡고 밑천이 얕다면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평범하게, 아주 평범한 삶을 즐기면서 살아 갈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주인공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법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정해진 것은 없다. 만물이 제각각의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듯이 성현(聖賢)도 제각각의 빛을 내기 때문에 법계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용(用)이라고 단정하지도 마라. 그러면 도(道)는 즉시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 선어록 해제 ❾ 증도가(證道歌)

# 도의 깨침을 노래하다

영가현각(永嘉玄覺: 675~713)의 휘는 현각(玄覺)이고, 자는 도명(道明)이며, 성은 대(戴) 씨로서 절강성 온주부 영가현 출신이다. 어릴 때 출가해 삼장(三藏)을 섭렵하고 널리 외전에도 통달했다. 본래 천태의 교학에 밝았던 천태종 인물로서 천궁혜위(天宮慧威)로부터 천태학을 배우고, 동문이었던 천태종 제8조 좌계현랑(左溪玄朗)과 더불어 항상 좌선을 수행했으나 특별히 스승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범혜홍의 <임간록>에 의하면 영가는 <유마경>을 통해 불심의 종지를 깨쳤다고 한다. 이후 개원사의 현책(玄策)이라는 선사를 만나 탁마했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현책과 함께 31세 때 혜능을 찾아갔다. 조계산의 육조대사는 상당법문을 하고 있었다. 영가는 예배도 하지 않고 선상을 세 번 돌고 나서 육환장(六環杖)을 짚고 앞에 우뚝 서 있자니 육조대사께서 물었다. "대저 사문이라면 삼천위의(三千威儀) 팔만세행(八萬細行)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하게 아만을 부리는가." 그러자 영가는 생사사대(生死事大) 무상신속(無常迅速)이라 응수했다. 이에 육조가 말했다. "어찌하여 무생은 체득했으면서 신속하지 않는 도리는 요달하지 못했는가." 영가가 말했다. "본체는 무생으로 본래 신속이 없음을 요달했습니다." 육조가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인가하시니, 1000여 명의 대중이 모두 깜짝 놀랐다. 그제 서야 영가는 육환장을 걸어 놓고 위의를 갖추어 육조에게 정중히 예배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하직 인사를 드리자 육조가 말했다.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본래 움직임조차 없는데 어찌 빠름인들 있겠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줄을 누가 아는가." "화상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그대가 진정 무생의 도리를 알았구나." "무생이라면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른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것도 뜻은 못됩니다." "그래, 장하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하룻밤만 쉬어 가거라." 그리하여 조계산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 하여 일숙각(一宿覺)이라 불리웠다. 713년 10월 17일에 입적하니 세수 39세였고, 시호는 무상대사(無相大師)이고 탑호는 정광(淨光)이다.

<증도가>의 형식은 총 267구 1858자로서 무릇 7언조의 장편시에 속하는데 전형적인 당나라 시대의 고시(古詩)이다. 고시의 특성상 전체가 7자구가 아니라 51구의 6자구가 뒤섞여 있다. 이 6자구에는 바로 7자구가 3회씩 수반되어 '6 · 7 · 7 · 7' 자구의 형태인데 49조(組)로서 구성되어 있다.

<증도가(證道歌, 佛性歌, 道性歌)>는 종파 내지 불법을 초월한 인간의 본래모습을 절학무위한도인(絶學無爲閑道人)으로 설정해 대립과 분별을 초월한 절대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을 드러내었다. 집착과 분별을 초월한 무생(無生)과 무념(無念)의 사상을 바탕으로 돈오사상을 전개했다. 영가현각의 존재와 그 <증도가>는 돈황본 <단경>에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8세기 말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증도가>는 이후에 수많은 어록 및 가송(歌頌) 등에 인용됐다. 돈황사본에는 <선문비요결초각대사일숙각(禪門秘要決 招覺大師一宿覺)>이라는 제목으로 페리오본 2104에 수록되어 있고, 기타 스타인본 2165 · 4037 · 6000 등에도 <증도가>가 수록돼 있다. 송대부터 청대에 걸쳐 다수의 주석서가 출현했고, <조정사원(祖庭事苑)> 권7에 그 어석(語釋)이 수록돼 있다. 청나라 때 위림도패(爲霖道霈)가 1687년에 편집한 <선해십진(禪海十珍)>에도 수록돼 초학자들을 위한 지침서로서 선별됐다. <증도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개판됐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한글 언해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 보물 제758호). 고려 고종 때 남명선사 법천(法泉)이 편저한 증도가를 복각(覆刻)한 책이다. 책의 내용이 되는 증도가(證道歌)는 당나라의 영가현각(永嘉玄覺)이 선(禪)의 깨달음을 7언의 운문으로 읊은 것인데, 이 책은 남명화상이 거기에 320편의 송(頌)을 덧붙인 것이다.

첫머리에서 "그대는 보았는가(君不見)." 라고 설정한 것이야말로 증도의 도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준다. 이 말에는 나와 상대의 분별이 초월되어 있다. 부처이기 때문에 증도(證道)가 완성되어 있다든가 중생이라 해서 증도(證道)가 미완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닌 본디의 모습이다. 때문에 영가는 이미 법이연(法爾然)하게 드러나 있고 작용하고 있으며 구비되어 있는 수행과 깨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증도가>를 시작한다. <증도가>의 제목을 굳이 해석하자면 깨침의 노래 혹은 글, 도를 깨치는 노래, 깨쳐 있는 도를 노래함 등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저 깨침일 뿐이다. 도를 목적어로 하여 수행을 통하여 그것을 깨친다거나 깨쳐진 도라는 의미가 아니다. 본래부터 증(證)이고 도(道)이며 그렇게 드러난 가(歌)이다. 때문에 굳이 도를 닦는다든가 구한다든가 터득한다든가 하는 분별의 행위와 조작의 집착을 벗어나 있다. 영가는 이것을 곧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행이 완성된 무위법의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끊지도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무명의 본래 성품이 그대로 참불성이고
허깨비 텅빈 몸뚱아리 그대로 법신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불기 2554(2010)년
## 대한불교대승종 연수교육 안내

종헌종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승종 전 종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9월 4일부터 ( 오후 3 시까지 입소 바랍니다.)
■ 회 향 : 2010년 9월 6일까지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세면도구등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접수.문의처 :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 140번지 상원사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 951-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10-7322-4747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대중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 수행 및 교육 희망자 모집공고

대중포교와 인재양성 그리고 수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봉화산 정토원에서
생활속에서 불교지도자가 되어 전법에 매진하겠다는 원력을 가진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1. 수행 및 교육목표 : 도덕적인 수행력을 갖춘 내실있는 대중불교 포교사 양성
2. 모집인원 : 매 기수별 5명 (승속 및 남녀불문, 종단 사회단체 관계 없음)
3. 교육기간 : 2010년 10월부터 6개월 과정 / 1년 과정
4. 교육장소 : 봉화산 정토원 (고 노무현 대통령 49재 봉안 도량)
5. 교육혜택 : 숙식 및 교육에 따르는 편의제공(무료) / 기간중 1인당 매월 30만원 장학금 지원
6. 교육환경 : 정토원에 있는 대중과 함께하는 생활
7. 교육방법 : 전 과정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수행 및 교육
8. 수행 및 교육내용 : 조석예불, 염불선 수행, 교리탐구, 불교의식,
구술포교를 위한 원고작성 및 스피치 실습,
회의진행법과 토론술 연마, 도량 청소 및 노력봉사
9. 진행총괄 : 선진규 법사 (봉화산 정토원장)
10. 특 강 : 국내최고 권위있는 불교학자 및 큰스님 초빙
11. 응모자격 : 고졸이상의 자격자, 대중불교운동에 뜻이 있는 창의적인 불자
12. 신청서류 : 신청서, 이력서, 사찰주지 및 불교단체장 추천서
13. 응모기간 : 2010년 8월 15일 - 31일까지
14. 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전화면접 후 개별통지 합니다.



※ 문의 : 봉화산 정토원 055)342-2991~2 / www.bonghwasan.org

봉 화 산 정 토 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

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은 8월 12~1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간화선 종장인 前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간화선의 유래와 수행방법),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참선 수행의 목적),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간화선 수행의 대중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향상의 정맥)이 기조발제와 회향법문을 통해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고 끝을 맺었다.

❶혜국 스님 기조법문
간화선의 유래와 수행법문

# 법에는 돈도 점도 본래 없어 삼처전심이 간화선의 시작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고 마야 부인 태속에 들기 전에 중생을 제도해 마쳤다."

젊은 시절 이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양의 세계' 즉 '말의 세계'에 너무나 익어진 삶을 살아 왔기 때문에 말 이전의 세계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문이 간화선을 바로 알려준 법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는 조사스님의 낙처를 바로 보는 안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눈으로 보면 간화선은 이 모임이 시작되거나 시작되지 않거나 간에 이미 완벽하게 보여 지고 있다. 간화선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대나무 그릇을 바다에 담갔을 때 그릇마다 바닷물이 가득 차 들어오지만 바닷물 자체는 온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는 이치와 같다. 다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자기 그릇 속에 들어있는 물만 따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고, 내 영혼 네 영혼이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도리 즉 연기법을 모르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독립된 실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생들의 생각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간화선의 특성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요 심행처멸(心行處滅)이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요 불립문자(不立文字)이다. 내가 부처임을 바로 보는 세계이다.

기록의 역사가 아닌 존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 스님이 파안미소했다. 이것이 천지미분전(天地未分前) 소식이다. 바로 마음과 마음을 전한 소식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소식이다. 이러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도리를 세 곳에서 보이셨다고 해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한다. 고불미생전 면목(古佛未生前 面目)을 역력하게 보여준 소식이다. 이 삼처전심이 바로 간화선 역사의 시작이다.

## 기록하는 주인공 보라 기록만 보면 허상이야

혹자는 삼처전심의 기록이 있고 없고를 갖고 진위를 따지려고 한다. 이는 인간의 기록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생각이다. 기록할 줄 아는 주인공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록만 갖고 진리를 보려면 그런 생각은 실상을 부정하고 그림자를 쫓는 격이다. 기록이란 이미 상법(相法)일 수밖에 없다. 존재자체인 무성연기(無性緣起) 즉 실상의 세계는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가(禪家)에서는 인간의 기록을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달은 선지식들의 점검을 믿는다. 역대 33조사와 제대 선지식들이 한결 같이 삼처전심을 찬탄하고 거량해온 터에 그 보다 더한 참 기록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기에 동토 초조 달마 대사는 확연무성이라 하셨다. 확연해 말길이 끊어진 자리요. 마음길이 멸한 자리라는 것이다. 2조 혜가를 거쳐 3조 승찬 스님은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인데, 오직 고르고 분별함을 꺼린다. (고르고 분별하기 때문에 지극한 도에 이르지 못한다) 단지 미워하고 사랑함이 없다면, 텅 비어 명백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라고 말한 것이다. 양변을 여읜 중도를 깨달아야 이 심전심이라는 가르침이다.

4조 도신 스님의 안심법문에 이어 5조 홍인 조사에 이르면 이심전심의 세계를 선문답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다. 홍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한 채의 집이 있다. 그 속에 온갖 오물이 가득하다. 이 어떠한 물건인가?" 거듭 말씀하시기를, "모든 오물을 깨끗이 씻어내어 한 물건도 없을 때 이 무슨 물건인가?" 여기서 몰록 깨달으면 조사선(祖師禪)이요 깨닫지 못하고 참구해야 한다면 간화선(看話禪)이다. 이와 같이 조사선과 간화선은 이름만 다를 뿐이다. 선 그 자체에는 그 이름도 없다. 5조를 이은 6조 혜능 스님은 이러한 사상을 무념위종(無念爲宗)이요 무상위체(無相爲體)요 무주위본(無住爲本)이라는 사상으로 본래성불(本來成佛)의 도리를 깨달으라고 했다. 바로 돈오사상이다.

이렇게 생각 끊어진 자리인 참선법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6조 문하에서 강호제현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강서의 마조 스님, 호남의 석두 스님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마조 스님(709~788)의 중도(中道)와 평상심(平常心)을 살펴보자. 마조 스님은 중도를 자성청정(自性淸淨)이라고 가르쳤다. 그 중에서도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많이 강조하셨다.

"무엇이 평상심이냐? 조작이 없고 시비가 끊어졌으며 취하고 버림이 없으며 단상(斷常)이 없고 범성(凡聖)이 없는 것이다"라고 평상심을 정리해 스승인 6조의 무념위종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까닭에 간화선(看話禪)에서는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되어 화두를 타파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평상심이요 중도라고 한다.

북종선 신수 대사 계열에서는 자성청정 가운데 청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닦는 법을 강조하여 점수돈오(漸修頓悟)라고 했고 남종선 6조 혜능 계열에서는 자성청정 가운데 청정을 본각(本覺)으로 보고 본각에 중점을 둔 까닭에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법 그 자체에는 돈이니 점이니 본래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백장을 거쳐 황벽의 전심법요, 임제의 무위진인, 조주(778~897)에 와서 무자(無字)화두,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뜰앞에 잣나무), 판치생모(板齒生毛, 앞니에 털이남) 등 많은 화두가 제시됐다. 특히나 조주 스님은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에서 5칙이나 되는 공안을 들어 보였다. 이는 간화선이 이미 3조 때부터 이야기됐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혜 스님(1089~1163) 대에 와서 간화선이 새로 생긴 걸로 본다면 그것은 문자로 정형화된 간화선만 보는 것이 된다.

조주 스님을 거쳐 벽암록의 저자 원오극근 선사는 제자인 대혜에게 임제 정종기를 내렸다. 그 일부를 옮겨보면 "삼현(三玄) 삼요(三要)와 사료간(四料簡) 사빈주(四賓主)와 금강왕의 보검과 땅에 웅크린 사자(踞地獅子)와 한 할이 한 할의 작용을 하지 못함(一喝不作一喝用)과 고기 찾는 장대 그림자 풀(探竿影草; '고기 찾는 장대[探竿]'는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에는, 먼저 물의 깊고 얕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림자 풀[影草]'은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할 때에 먼저 불 커진 방안에 주인이 잠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풀 묶음을 달빛에 흔들어서 그 창문에 비추어 보는 것)과 한 할에 손과 주인의 나뉨(一喝分賓主)과 비침과 작용이 동시에 행하여짐(照用一時行) 등의 허다하게 얽힌 실오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알음알이를 따라 주해를 내리는데 나의 왕궁창고 속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함을 결코 몰랐다 하리라. 막상 염롱해 드러내 보이면 보는 자들은 그저 눈만 껌뻑 거릴 뿐이다. 모름지기 저 으뜸가는 근기라면 계합증득하고 시험 인정함에 있어서 정면으로 또는 측면으로 제접해 본분수단을 쓰거늘 어찌 방편과 지위점차를 빌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원오가 대혜에게 수시한 유명한 임제 정종기의 한구절로서 종문만세의 궤범이다. 삼현삼요와 조용일시 등의 전기대용(全機大用)도 눈 속에 모래를 뿌림이요. 평지낙절(平地落節)이거늘 이것을 교가에서 주석을 붙이듯 알음알이 따라 해석하면 가소로울 뿐만 아니라 본분종사들이 금기하는 것이다"라고 절절이 밝혀 놓으셨다. 그뿐 아니라 근세의 서산 대사 역시 <선 교결>에서 간화선의 수승함을 간절하게 밝혔다. 또,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자성이 공했기에 삼계가 유심(唯心)이다. 삼계유심이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말함인데 일체

## 화두 타파한 자리가 평상심이요 중도

만법(一切萬法)이 모두 공하여 쌍차쌍조(雙遮雙照)하며 진공묘유(眞空妙有)라, 이를 일러 마음이라 중도(中道)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선도 취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더러움도 취하지 않으며 양변을 초월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일법지소인(一法之所印)으로 자성청정을 빼고서는 하나도 성립될게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봉(中峰) 선사의 가르침을 들어보자. 중봉 스님은 스승을 생각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보이고 있다. 내 스승 고봉 화상은 항상 학인에게 이르기를 "오직 본참 공안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행주좌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간절히 참구하라. 궁구하고 궁구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머무를 수 없는 곳에 이르러 문득 화두를 타파하면 바야흐로 성불한지 이미 오래임을 스스로 알 것이다. 이 도리는 기왕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생을 요달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데 모두가 시험하신 묘방이다. 오직 귀한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뿐이니 오래오래 물러나지만 않으면 누구나 상응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화두를 들고 공부를 지어감에 "첫째 입각처가 온당해야만 깨달음도 친절하니라. 설사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다만 철저한 신심만 퇴전치 않으면 반드

초기불교 VS 선불교




한국불교의 미래는 선불교인가 초기불교인가?
불교 전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홍미진진하게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 현대 한국 불교를 관통하는 두 개의 흐름, 전통적인 선불교와 새롭게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한판 대결! 한국사회에서 선불교는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남방불교의 득세는 일시적 유행인가, 아니면 한국불교의 미래인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 초기불교주의자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올바른가?

방경일 저 | 신국판변형 | 296쪽 | 값 13,000원

다음 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티벳 사자의 서』에 의한 중음에서의 해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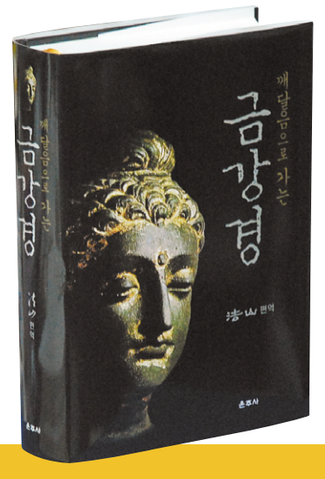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49일의 중음 기간 중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천도를 하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망자를 어떻게 경책해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석법성 편역 | 신국판변형 | 144쪽 | 값 8,000원

금강경 해설의 새로운 지평!!!
풍부한 일화와 사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넘나드는 깊고 폭넓은 해설!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초기불교를 자양분 삼아 더욱 풍부해진 금강경 해설!
이 책은 계율과 선정을 중시하는 초기불교와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승불교, 번뜩이는 지혜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수행자의 안목에서 한 맛으로 회통하고 있다.

사진과 일화로 읽는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듯한 생생한 해설과 다양한 사진자료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수까지도 오롯이 드러내 보인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흥미진진한 금강경!
마치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 재미있고 친절한 풀이를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지혜의 완성, 번뇌의 타파에 한 발 다가가 어느덧 참나를 찾는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법산 편역 | 신국판양장 | 올컬러 | 764쪽 | 값 38,000원



*저자 법산 스님은 국내 제방과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 대각사(053-6565-108)에서 불교명상대학 지도와 금강경 강좌를 통해 법연을 나누고 있다.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주문 (02) 3672-7181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삶·수행 하나 되어 정견 서야

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간절하게 가르쳐 보이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교(敎)이다. 그 가르침의 근본 뜻을 선(禪)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근본 뜻인 선에 들어가자면 직접 체험을 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교를 객체화시켜서 지식화가 되어선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을 교외별전 불립문자(敎外別傳 不立文字)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정견이 확실하게 서야한다는 말이다. 영상으로 비쳐진 대상화된 사물이라면 중도연기(中道緣起)와는 거리가 멀다.

정견(正見)이란 중도연기에서 본 세계관이요 인생관이다. 정견이 바로 서야 연기법(緣起法)과 무아(無我)사상 그리고 공(空)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견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참선을 시작해보니 주로 번뇌 망상과 싸우느라 공부가 순일하지를 못했다. 화두가 무엇인지 깊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선원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자리를 화두(話頭)라고 한다. 그런데 그 화두가 반야공성(般若空性)을 일러준 일구라는 걸 모르고 잘못 생각해 소소 영령한 주인공이 각자 따로 있는 걸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하겠다는 구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깨달아야 할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푹 쉬지를 못하고 빨리 깨닫겠다는 속효심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참선이란 쉬고 쉬어서 의정이 독로하게 되면 비우고 또 비워 철저한 무(無)에 도달하게 된다. 그 순간 우주전체가 내가 되고 내가 곧 우주 전체가 된다. 즉 체로금풍(體露金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여러 해를 방황하다가 성철스님 문하에 살 때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다.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세계는 곧 바로 참구해 들어가야지 생각으로 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화두참선이란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세계임을 알게 되었다.

영원한 행복 참다운 평화는 부족함을 채워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덜어내고 덜어내서 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에야 영원한 평화 참다운 행복이 온다. 간화선은 구하는 세계가 아니고 덜어내는 길이다. 돈오의 길이다. 돈오란 더 이상 덜어낼게 없는 상태다. 그런데 덜어낸다고 해서 덜어낼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것이다. 처음 참선한다고 앉았으면 주로 번뇌 망상과 싸우게 마련이다 참선하는 이가 처음 화두 탈 때로 돌아가 보자. 제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하고 물으니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니라"라고 답했다. 우주의 대 진리를 묻는데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것이 화두다.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참선하는 내가 있고 깨달아야할 뜻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깨달아야 할 참 나라는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 그 원인은 화두가 반야공성을 바로 일러준 일구라는 걸 모르고 화두를 통해서 소소영령한 주인공을 깨달아야 하는 실체가 있는 걸로 잘못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제법무아도 아니요. 중도 연기법도 아니다.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가 화두이기에 다만 모를 뿐이라야 한다. 여기서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다만 모르는 놈을 참구하고 참구하되 목마른 이가 물 찾듯이 배고픈 이가 밥 생각하듯 간절 간절하게 참구해야한다. 참선할 때 일어나는 모든 번뇌 망상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바닷물이 마음이라면 파도는 망상 번뇌다. 파도가 바닷물이다. 바람만 잠재우면 파도는 그대로 바닷물이다.

파도를 없애려고 싸우지 말라 파도란 없는 것



이다.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일어나는 바닷물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바람을 잠재우라 그릇을 비우라 가득 찼던 그릇을 비우면 그릇은 그대로 허공이 가득하다. 그 허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 허공이었다. 고로 본래 부처다. 허공을 만들 수 없듯이 부처도 닦아서 새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 바로 서야 되고 정견에서 대신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憤心)이 일어나야 한다.

끝으로 원오 스님(1063~1135)이 문장로에게 보낸 경책의 글로서 우리들의 경책을 삼고저 한다. <원오심요>에 나오는 글이다.

"부처와 조사는 모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는데 모두 투철하게 깨달아서 마치 두 거울이 서로 비추듯 말이나 현상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격식과 헤아림을 멀리 초월하여 화살과 칼끝이 서로 마주 버티듯 애당초 다른 인연이 없어야 도의 오묘함을 전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음알이가 끊겨 사유를 벗어나고 정식(情識)을 뛰어 넘어 호호탕탕하고 자유자재한곳에 도달하였습니다…(중략). 지난날 스승 오조 법연 스님을 뵙고 내 공부를 몽땅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모두 보고 들은 기연의 어구들로서 모두 불법과 심성의 현묘함에 대해였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유구(有句)와 무구(無句)는 등 넝쿨이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재주를 다 부려 보았고 다음은 논리를 세워 열심히 설명하였으며 끝에 가서는 해보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그 때마다 노스님은 꺼내는 족족 간략하게 물리치셨으니 나도 몰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재삼 이끌어주시기를 간구하였더니 '네가 견해로 헤아리는 것이 다하여 일시에 모두 없어져 버리면 자연 깨달으리라'…(중략). 그 뒤 2년쯤 지나 소옥아 하고 자주 부른 것은 원래 딴 일이 아니라 한 구절에서 통 밑바닥이 빠진 듯하여 스승이 전에 보여주셨던 것이 참다운 약석(약이 되는 돌, 돌을 뜨겁게 하여 배앓이를 치료함)이었음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고조사(古祖師)스님들의 자비가 이와 같았다. 거듭 말하지만 간화선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간화선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모든 말과 글로 부득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중언부언 허물을 쌓는 일이다. 섶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부처님대로부터 근래까지 간화선의 흐름을 대강 짚어 보았다. 결국 법이란 중도연기를 달리 표현할 뿐 그 근본 뜻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본분사이기에 각자 본인이 해결해야할 당사자의 몫일뿐이다. 노력하고 노력할 일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 민중포교의 대명사 교키(行基) 스님

822년 쓰인 것으로 알려지는 일본 최초의 불교 설화집인 <일본영이기(日本靈異記)>에는 카니만지(蟹滿寺)라는 절의 유래가 실려 있다.

옛날에 7세 때부터 <법화경>을 독송하며 늘 관음보살을 염하던 자비심 깊은 소녀가 있었다. 어느 날 동네의 소치는 아이가 게 8마리를 잡아 먹으려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소녀는 자신의 옷과 바꾸어 게들을 살려줬다. 훗날 산에서 커다란 뱀이 개구리를 삼키려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네게 시집갈 테니 개구리를 놓아줘"라고 말해 개구리를 살려주었다. 3일 후, 큰 뱀이 소녀에게 시집을 것을 요구하러 왔다. 소녀는 교키 보살(行基菩薩, 668~749)에게 이 고민을 호소했다. 그러자 보살은 "불·법·승 삼보를 깊이 믿어라"라고 답했다. 뱀과 약속한 날, 소녀는 집밖을 나가지 않고 삼보를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뱀이 지붕 위에서 구멍을 뚫고 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뱀은 8마리의 게에게 물려 8조각으로 찢어져 있었다. 소녀가 예전에 살려준 게들이 은혜를 갚은 것이다.



전철 킨테츠 나라역 입구에 세워진 교키 보살상.

불교교리의 핵심인 인과의 진리가 미물의 보은행을 통해 잘 드러난 이 이야기는 교키 보살에 의한 민중포교의 일단을 전하고 있다. 교키는 일본에 유학과 한문을 전한 백제 왕인 박사의 후손이다. 설화에 의하면 그는 태어날 때, 태반을 뒤집어쓰고 나와 부모가 이를 꺼려 개오동나무에 걸쳐놓았다고 한다. 15세에 일본 법상종 초조인 도쇼(道昭)를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했다. 도쇼는 중국에 건너가 현장의 가르침을 받고 왔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그의 유해를 화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의 불교는 국가를 보호하는 진호(鎭護)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때문에 사적으로 승려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민간교화, 산림수행, 걸식행위 등을 할 경우 국법으로 다스렸다. 소위 승니령(僧尼令)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해 승려의 자율적인 규제는 물론, 국가가 불교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감하게 자비행을 바탕으로 민중전도에 나선 이가 교키였다. 교키는 토목기술을 배워 각지에 저수지와 제방을 쌓고 수로를 만들었고, 도로나 다리를 놓아 백성들의 삶에 이익을 베풀었다. 각지에 피부병 환자를 위한 온천을 건설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장안을 본떠 건설중이던 수도인 헤이죠쿄(平城京, 현재의 나라)의 부역에 동원된 각지의 백성들이 귀향길에 길거리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후세야(布施屋)를 만들어 구제했다. 국가의 권력 앞에 쓰러져가는 힘없는 민중을 불법의 정신으로 구제한 것이다.

이를 국가가 가만둘 리 없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키 무리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버리고 집단 걸식을 한다는 죄목 아래 교키는 수차례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의 제지에도 사회사업과 전도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율령제에 바탕한 고대국가체제가 갖춰지자 강력한 왕권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불법의 보호자를 자처한 쇼무(聖武)왕은 60여 곳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분사(國分寺)와 국분니사(國分尼寺)를 건립했다. 수도에는 총국분사로서 토다이지(東大寺)를 건립하고자 했다. 이 때 토다이지 대불 조영을 위해 교키가 등용됐다. 교키의 활약으로 비로자나 대불이 완성됐다. 교키는 이 공덕으로 745년 일본 불교 최고의 지위인 대승정에 최초로 임명됐고, 그의 제자들은 출가자로 인정받았다. 교키는 50여 대사찰과 1400여 곳의 중소사원을 건립했고 제자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대중으로부터 살아있는 보살의 칭호를 받았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 민중포교의 선두주자… 불교 토착화 일등공신

교키의 교화행에는 불교의 토착화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일화들로 가득 차 있다. 그 한 예가 감득불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일본의 국보급 불상은 불사(佛師), 즉 불상 조각에 뛰어난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지방 유서 깊은 사찰에는 교키 전설을 간직한 이름 없는 불상들이 산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특징들이 일목불, 즉 나무 하나에 새겨진 불상이자 국보급의 균형미와는 다르게 불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얼굴이 여럿인 불상, 뒤를 돌아보는 불상, 한쪽 팔이나 한 쪽 눈이 없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불상 등 그 다양성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당시 민중들이 불보살을 꿈이나 계시 등 여러 형태로 친견한 내용을 영목, 즉 신령한 나무에 새긴 것으로 이러한 불상을 감득불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는 교키가 직접 조각한 것도 있지만 다수는 제자들이 조각하거나 가탁한 것이다. 불교가 민중들에게 파급되면서 토착신들에게 의지하던 신앙이 불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도 순수하고 소박한 민중의 애환을 담은 신앙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키를 민초의 희비애환과 함께 하는 친근한 대승행의 보살로 떠받드는 의미를 여기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HOT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멍석(카페트)로 cool 하게~~

네츄럴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매트(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수제 멍석(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참여 확대가 유지 받드는 길”

##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 학술 세미나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는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문수 스님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의미’를,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4대강 사업의 본질, 무엇이 문제인가’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회불평등의 정책적 요인’을,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부정부패와 시민의 자율적 개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6월 4일 군위 지보사에서 문수 스님의 다비식이 봉행됐다. <현대불교자료사진>


박경준 교수

#문수 스님의 죽음은 대자비행

박경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소신공양의 전거를 통해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한 의미를 밝혔다.

박 교수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개인적 · 종교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커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 스님의 분신 또는 자살을 미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박경준 교수는 “<사분율> 등에서 ‘스스로 남을 죽여서도 안되고, 제3자를 시켜서 남을 죽여도 안되고, 자살해도 안되고, 누군가에게 시켜서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것도 안된다’고 했다”면서 “불교 계율에는 금계(禁戒)의 문을 열어도 되는 특별한 예외조항인 개차법이 있다. 문수 스님의 죽음은 결코 이기적인 자살이 아니라 법공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문수 스님의 죽음을 소신공양 또는 대자대비의 보살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뭇생명을 위해 대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롭고 효과적이며 최선의 선택으로 도피적 자기파괴가 아닌 적극적 자기실현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는 논평에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오늘날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파괴와 생명 살상을 대신 속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흠 교수

#4대강 거버너스-시범 사업 제안

이도흠 교수는 “4대강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공사”라며 “토건카르텔의 장기집권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는 연간 발주액이 200조원에 이르는 토건업이다. 중앙 · 지방의 건설사, 투기자본, 토호 및 정치인 등 토건세력의 지배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이루자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4대강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이도흠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과 바다가 오염돼 뭇생명이 죽고 국민 건강이 해쳐지며 △경제위기를 야기하며 △홍수나 침수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243점의 문화재와 1400여 문화재분포지역이 침수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마을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지향형 인간을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흠 교수는 MB정부에 4대강 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하천 거버넌스를 구축한 후 국민적 합의와 동의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유승무 교수

#불교적 마인드로 사회불균형 해소를

유승무 교수는 “한국사회에 만연된 불평등은 자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위해 한국불교는 그것을 추동하고 견인해야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 문수 스님이 남긴 유훈을 제대로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승무 교수는 불교적 관점을 통한 경제활동의 재해석을 촉구했다.

유 교수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등장한 MB정부에 신자유정책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불교적 관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부정부패 언젠가는 드러나”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직부패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요소 중 하나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반부패 의지”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반부패전문기관을 통폐합하고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반부패정책을 대부분 폐기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정세력의 국정농단과 인사농단은 반드시 부패로 귀결된다”면서 “국가재정을 탕진하는 4대강 토목 사업의 뒷이야기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권력 탈피해 자녀행 실천해야

참가자들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계기로 불교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도흠 교수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조계종단장이나 환경위원장으로 하자는 수경 스님과의 약속을 번복하고 은해사 교구장으로 치룬 종단은 정법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면서 “조계종단은 권력은 무섭고 부처님과 사부대중은 두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한 것은 자비행과 멀어지고 권력에 종속돼 파행을 일삼기 때문이다. 자비행과 보살행의 실천, 처절한 참회와 책임 있는 당사자의 퇴출과 시스템 혁신을 통한 종단 개혁,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불교는 머지않아 소수종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준 교수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계기로 불교는 ‘신대승’의 정신을 선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와 죽어가는 뭇 생명을 살리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절망과 고통에 내몰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정치 · 사회 · 경제의 여러 구조적 모순과 병폐를 혁파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탐색하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제안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게 하는 길은 국민이 거대한 힘을 결집해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수 밖에 없다”며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부패와 반칙, 특혜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의 실천에 나서자”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공동체 위한 구도가 더욱 중요

1963년 베트남 전쟁에서 반정부적이라 하여 사찰이 강제 폐쇄되자 이에 격분한 베트남 스님들 36명이 소신공양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 일로 소신공양이라는, 분신자살이 일견 사회적 의미부여가 된 바 있었던 기억이 난다.

알다시피 소신공양이란 말엔 분명 희생의 정신이 담겨 있다. 자신의 ‘희생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속죄를 구하려는 의미도 얼마간 있겠고, 집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겠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현실의 부당함, 불공평에 대한 항의나 호소를 하려는 간절한 소망도 있다. 해서 이타적 자살이란 성격을 띄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소신공양이 과연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화경>에 소신공양은 몸을 태워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이다. 무작정 소신공양을 찬양하는 뜻은 결코 없다. 여래에게 법으로 공양하는 게 으뜸이란 의미를 전한다. 그러니깐 몸과 목숨을 다하는 구도자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소중한 거다. 때문에 소신공양 역시 한 방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리라.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요즘 우리의 노인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70여명 수준. 청년층에선 주요 사망의 3대 원인이 자살이다. 오로지 사회가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고, 권력이나 명예 차지에 혈안이 된 그 배경의 원인도 있다. 여기에 뒤처진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자살의 고위험군이다. 더해서 사회는 이들에게 냉대하는 분위기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회에 절망감이나 반항심이 생길 법 하다. 어떤 이는 특정 사회적 스트레스에 더 큰 타격을 받기도 한다. 상처받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 자살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遠因)엔 역시 사회의 공격성이나 폭력성도 문제다. 해서 자살은 부분적으로 사회에 대한 외침이며, 항변이며, 호소이고, 호소에 대한 포기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어느 자살이든 죽음으로의 도피란 성격을 지울 수 없다. 유명인사의 자살로 사회 일반에선 자살의 합리화나 그 전염성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비록 자살의 동기가 뚜렷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의 합리화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다면 어디까지나 집단 공동체의 삶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부당성이나 비참의 희생자로 자처하기 전에, 공동체의 의지를 함께 다지며 투쟁을 해야지,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타자의 의견도 끝까지 경청하고, 인내하며 심지어는 적대자에게 존경하는 마음까지 담고 그 해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전투적 비폭력이 그 모범적 예일 것이다.

분신자살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신자살을 미화시키거나 신비화 시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일반에서 자살의 가능성을 촉발시키는 잠재적 촉매 역할이 우려 돼서다. 불교의 근본정신은 역시 평화, 자비, 생명 아닌가. 불의(不義)를 보고 양심이 격앙되는 일, 무관심한 사회를 단죄하려는 정신, 그리고 공공의 선이나 목표를 향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키려는 행위 등은 그 자체에 분명 잘못된 뜻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사의 그 모든 게 상대성 아닌가.

번뇌도 불보살의 화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종교계 지도층 인사의 극단적 행동은 그 사회적, 정신적 여파가 크다. 수행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와 영향을 준다. 소신공양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수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신승철
시인 · 정신과전문의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교육과목 | 교육기간 |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br>·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br>※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 14주 과정<br>토요일 반 |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꿈을 이루려면 ★행동★ 말 ★생각이 변해야 한다!
“자비명상 지도자” 모집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스님 과정 : 1) 9월 매주 수요일 오후 2 ~ 5시. 20명 / 12주와 2박 3일 / 장 소 : 동국대 정각원
2) 매달 1박2일 집중과정. 20명. 6회 / 장 소 : 수련원
3) 2박 3일 단기코스. 20명 / 미타정사, 지방순회
문의 : 070)4159-2469 자비명상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교육 프로그램으로 종단의 연수교육 이수로 인정받습니다.

재가 과정 : 9月 매주 화요일 주간반 14:00 ~ 16:30 / 야간반 19:00 ~ 21:30
15주와 1박 2일 / 정원 - 30명 선착순
문 의 : 동국대 사회교육원 02)2260-3730
교 재 : 고마워요 자비명상(불광출판사) , 내마음 바로보기(홍익출판사)




(사) 자비명상 (마가 두손 모음)
입금계좌 : 농협 095-02-371251 (신화식)
문 의 : cafe.daum.net/jurira 070)4159-2456

# 요절복통 여래네 집

#23.옥상 텃밭 이야기



스튜디오 돌

#5. 불꽃놀이 편에서도 밝혔다시피 여래네 집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4층짜리 맨션의 맨 위층이랍니다.




그러다보니 바로 위가 옥상이라 엄마는 빨래 널기에 좋다 하시고 아빠는 담배 필 장소로 마춤이라고 하십니다.




옥상에는 평상 말고도 여래네가 이사오기 전에 살고 계시던 노인내외가 가꾸던 스티로폼 상자로 된 작은 미니 텃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 받은 엄마는 좋아라 이것저것 씨를 구해다가 뿌렸습니다.




아빠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스티로폼 상자를 더 구해다 놓고는 흙을 퍼다 날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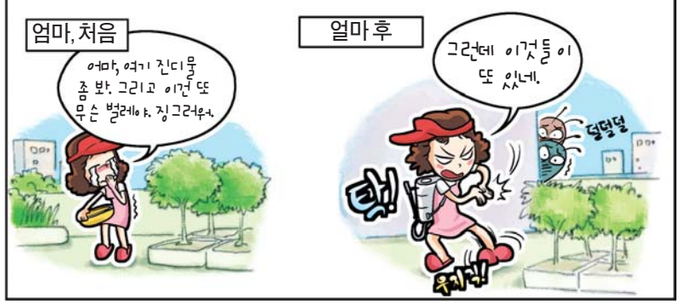




이제 여래네집은 옥상 상자텃밭을 떼 놓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옥상 작은 미니텃밭이래도 생각보다 일이 많답니다. 매일 물도 줘야하고 김도 매야 되고 벌레도 잡아야 하고,




이쯤해서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로 할까요?




한마디로 여자들은 생태적인 삶 + 안전한 먹을거리 + 식단변화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텃밭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반면에 남자들은 그냥 경작 그 차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삽질하고 막걸리, 흙 나르고도 막걸리, 씨 뿌리고도 막걸리, 김매고도 막걸리, 오로지 일 + 보상(막걸리)= 만족, 이런 패턴이죠.




그리고 한없는 과장, 회사동료들과의 술자리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런데 다른 동료들도 지지를 않네요. 역시 대단한 족속들이죠?




사실 남자들의 경작 본능은 몸을 움직여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냥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남성미 이게 중요한 건데, 잃어버린 남성의 본능을 일깨운다고나 할까요?




암튼 이제 옥상 상자 텃밭은 여래네 아빠 엄마의 좋은 소일거리가 되었답니다.




## 이주일의 화두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법구경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 이야기 숲을 거닐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chol.com www.minjoksa.org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 · 분노 · 슬픔 · 즐거움의 지혜 !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깨우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영혼을
꿈꾸게 하는 마법과 같다.
상상의 안개가 가득 가득 피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난 이야기가 좋다!

보경 스님 지음 | 도서출판 민족사
국판 (140×210mm) 280쪽 | 본문 2도 | 값 12,000원

# 종교문제? 아소카왕에게 해답 찾자

## 종교의 시대 제대로 사는 법… 백찬홍 '종교의 안부를 묻는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의 시대'다.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 열기 바람은 실로 엄청났으며, 맑고 향기로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종교가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종교의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알고 보면 이슬람과 유대인을 학살한 무대의 배경이었다는 것. 한국에서는 '예수'로 시작되는 교회와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교회가 치열한 싸움을 한다는 것. '민주화의 메카'였던 명동성당 등 천주교회가 지금은 강남과 분당의 중산층을 위한 종교가 된 사실 등.

책은 신이 있다, 없다 등의 갑론을박, 창조론, 진화론의 논쟁이나 교리를 둘러 싼 사변적 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 종교의 속살을 31가지의 에피소드로 낱낱이 공개한다. 한국 종교를 넘어, 세계 종교의 겉과 속을 두루 살피게 해 진정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할 종교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

독실한 개신교인인 저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교, 통일교 등 너나할 것 없이 종교판에 천라지망(天羅地網)같은 독설과 비판을 과감하게 던진다.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주요 종교와 종단의 비판에 거침이 없다.

저자는 개신교 외 불교, 가톨릭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범종교인으로 활동을 해왔다. 인도, 중동, 티베트 등을 여행하면서 힌두교, 이슬람교, 티베트불교와도 접했다. 그는 주로 종교권력의 문제점과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글들을 많이 써왔다. 특히 개신교의 패권적이고 물신적 경향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아소카왕의 다원주의적 행동이 현재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불교는 종교전쟁을 겪지 않은 유일한 종교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위대한 사상가-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라는 저서에서 "불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교도 탄압, 종교 재판,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종교"라고 말했다






불교가 북방불교, 남방불교, 티벳불교 등으로 나눠져 있고, 교리 상에도 차이를 나타내지만 기독교와 달리 종교 전쟁이 없는 것은 다른 종교에 비해 비폭력 사상과 다원주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원주의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다. 아소카왕은 현재 인도 동부 오리사 주에 위치하는 칼링가국과의 전투에서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아소카왕은 정통 불교를 세우기 위해 무력대신, '다르마를 통한 정복'으로 포교사를 통해 불교를 전파해 갔다. 물론 이단들을 교단에서 축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인 탄압을 하진 않았다. 브라만교 · 자이나교 · 아지비카 등 다른 종교들을 동시에 보호하며 불교를 전파하는데 힘썼다.

특히 아소카왕은 "누구나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존경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를 포교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봉사해야 한다 (생략)"라는 칙령을 새긴 돌기둥을 세워, 영토 전역에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이렇게 불교는 다원주의를 존중하며 현지 종교 또는 문화와 대결하기보다 융화하면서 성장해 왔다. 중국에서는 도교와 교류해 선불교를 만들어 내고, 한국에서는 토속 신앙을 받아들여 절 안의 산신각, 칠성각을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티벳의 전통 신앙인 본교와의 통합을 통해 라마교를, 일본에서는 정토종의 일파인 일련정종을 탄생시켰다.

이 밖에도 저자는 한국 개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교 정복인가? 단무지를 만든 일본의 선사가 검법가 미야모도 무사시의 스승이라는데!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예수를 만났을까? 조니 워커 교황, 진정 교화와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천벌을 받은 이유가 동성애에 대한 신의 분노인가? 김대중, 노무현 前 대통령 시기, 기독교가 반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 흥미로운 질문과 답변들로 현 종교 현상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무게감을 덜기 위해 31가지의 이야기들을 가끔 영화, 스포츠, 미술 등의 이야기들과 섞어내기도 했다. 더불어 책 사이 종교안의 재미있고 다양한 면모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종교의 안부를 묻는다 | 백찬홍 지음 | 평사리 | 1만38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그대가 부처기에 지금 이대로가 무한자유

납승의 한 눈썹털이 삼계를 꿰뚫어서 구름종 한 소리에 들꽃이 가득 피어나고 이를 쫓아 맑은 향기 온 누리에 가득해 온 세상 온 만민이 온갖 낙 길이누리구나. (납승가 중에서)

예로부터 중국의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도의 경지를 노래한 것을 '증도가'라 해 참나(眞我), 본래 나를 찾는 이들의 지침서로 불려왔다. 중국에는 신심명 중 도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영흥 선사의 '납승가(衲僧歌: 누더기 중의 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납승가(衲僧歌)>는 2002년 초판이 발행돼 1만 불자들과 출가자, 선을 공부하는 재가 참선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을 향한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2010년 재판이 출간됐다.

과거로부터 많은 조사 스님들이 조사어록을 통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주석에 주석을 달고 해석에 해석을 거듭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의 의미는 희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꿰뚫는 골수는 하나. 바로 '본나'를 깨우침이다.

영흥 스님은 '납승가'에서 깨달음 이후 스님 내면으로부터의 본나, 참나를 나투고 쓰고 누리는 무애자재한 자유의 세계를 우리 정서와 우리 말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꿰뚫고 천칠백 공안을 하나로 녹이는 진정한 '선(禪)의 골수'를 친근한 우리의 정서로 표현해 우리의 눈앞에 활발발하게 살아있는 듯이 그대로 펼쳐 놓아 보여주고 느끼게 한다.

영흥 스님은 1947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21세에 망월사에서 우연히 친견한 춘성 스님의 벽력같은 고함소리에 자성을 깨닫게 됐다. 1974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한 영흥 스님은 현재 인연닿는 스님들과 재가 참선 수행자들을 지도하며,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납승가 | 영흥 스님 지음 | 꽃숲 | 1만1000원 이나은 기자

#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 일선 스님의 '행복한 간화선'




올해는 간화선을 제창한 보조 국사가 열반한지 8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물론이고 선(禪)을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간화선은 매우 어렵게만 느껴진다.

20여 년 동안 대중들과 동고동락하면 간화선을 해온 일선 스님은 자신이 직접 겪은 수행의 방법, 시행착오 등의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소리>에 이어 두 번째 수행이야기인 <행복한 간화선>을 통해 그간 못다한 이야기와 한층 깊어진 수행력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간화선으로 쉽게 풀어놓았다.

전남 거금도 금천선원에서 안거중인 스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왕 수행을 한다면 간화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다.

간화선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길이라 믿는 스님은,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다.

행복한 간화선 | 일선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 밤마다 옛날 얘기 해주던 엄마처럼…

## 보경 스님 '이야기 숲을 거닐다'

'이야기 하다'는 '모방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삶의 경험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윤곽을 사건으로 그려내 타인에게 제시하면서 '이야기 하다'가 탄생됐다. 결국 이야기는 개인적인 체험담에서 모두의 것이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닮아가기도 하고, 때론 인간사회를 황폐하게도 만들었다.

인간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정확하게는 이야기 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자신은 객관화 돼버리고, 이야기 속에 비쳐지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종교적으로 보면 사유고, 보편적으로는 성찰이 된다.

특히 종교는 '잘 들음'을 강조한다. 노장사상에서는 '비움'을 이야기한다. 저자인 보경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 보경 스님이 어린 시절, 노모는 항상 옛날이야기를 매일 밤 들려주셨다. 하지만 노모는 항상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라는 말을 했다. 어린 마음에 흥이 깰까, 이유도 묻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곧 이야기를 좋아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의미가 결국,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며, 진정 마음이 가난한 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매사에 고집을 부리며 막다른 골목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은 몸을 돌릴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삶의 여백이자 빛을 모을 빈 공간을 가졌다.




보경 스님의 글은 그런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이야기다. 희 · 노 · 애 · 락의 네 가지 주제로, 각 문화의 우화 · 신화 · 민담 · 종교 등의 이야기를 곁들어 또 다른 이야기를 탄생시킨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과 동물, 동물과 자연, 동물과 동물과의 대화가 오가며 그 속에서 삶의 교훈을 펼친다. 한 마디로 '삶의 적절한 자세' '지나치면 탈이 난다'는 암시를 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오히려 잔소리로 알아듣기 일쑤다.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 주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기도 같다.

이야기 숲을 거닐다 | 보경 스님 지음 | 민족사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젊은 날의 깨달음 | 혜민 | 클리어마인드 |
| 2 | 기도 | 법륜 | 정토 |
| 3 | 이야기 숲을 거닐다 | 보경 | 민족사 |
| 4 |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 법성 | 운주사 |
| 5 | 소설 무소유 | 정찬주 | 열림원 |
| 6 |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있네 | 원철 | 뜰 |
| 7 |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 일아 | 민족사 |
| 8 | 싯다르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 | 백승권外 | 불광출판사 |
| 9 | 마중물의 힘 | 허달 | 여시아문 |
| 10 | 대의단의 타파, 무방법의 방법 | 성엄 | 탐구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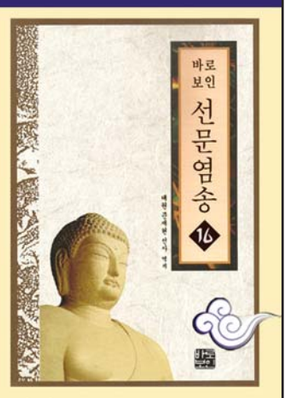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이 중국천하에 우뚝하도록 한 장본인, 하택신회대사의 현종기. 세간에 지해종도로 알려져 있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뛰어난 깨달음의 경지가 여기에 담겨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하택신회대사의 실경지를 드러내고 바로보임으로써 빛냈다.




신간! 선문염송 1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6권 출간! 임제, 목주 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이 실려있다. 뿐만 아니라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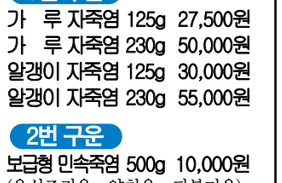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주)현대에너텍 2010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금강경 주석서의 진화>
금강경
회상승해

이 책에는 眞理와 科學과 敎와 禪이 함께 있다.

근원을 넘나드는 거침없는 해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한다.

〈구입문의〉
유명서점 · 불교서점
총판 :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저자 고목 | 신국판 478쪽 | ₩17,000
도서출판밀양 T.055-355-9122

# 생활 속 다양한 태도, 무슨 심리일까?

## 대화로 풀어가는 심리학… 교양작가 이남석이 풀어낸 심리학에 대한 궁금증 108가지

스님: "사람은 왜 고독할까요?"

박사: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대인관계를 가지면 고독을 느낍니다."

박사: "하지만 사람은 단순히 양뿐만이 아닌, 질에도 신경을 씁니다. 대인관계의 질이 좋지 못할 때에도 고독을 느낍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비밀을 나눌 진정한 사람이 없다면 고독을 느낍니다."

스님: "결국 자신이 애착을 가질만한 대상이 없을 때 고독을 느끼는군요."

박사: "연령대에 따라 고독의 유형도 다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의 양적인 면을 중요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접촉의 질을 더 많이 고민합니다."

스님: "어른도 이사를 가면 외로움을 느낍니까?"

박사: "어른이 관계에 더 민감합니다. 세상이 각박해 아무리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과 말을 나누는 몇 명의 사람정도는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결국 그 마저도 남지 않아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스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고독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별에 아파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박사: "고독이란 특수합니다. 고독은 대인관계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애인은 애인대로의 대인관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친구의 자리를, 친구가 애인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내 빈 곳을 채워 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가 고독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적은 노력으로 쉽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고독을 채우려 방탕한 생활을 한다던지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님: "현명하게 고독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사: "수줍음이 많아 혼자 있던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또, 종교 활동이나 공동체 모임에 나가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 관한 기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처세술이나 사교술, 화술에 관한 책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적 입문서는 이미 시중에 널려있다. 그러나 책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마하 스님과 이규민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스토리텔링이 있는 심리학 입문서로 꾸며졌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이야기의 형태로 기억하고 전달하려 한다. 저자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오래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게끔 저술했다. 가상의 인물을 만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화체 형식으로 이야기적 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화 속에 있는 심리학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다. 모든 국내외 유명 심리학자들이 공감하는 이론과 지평으로 이뤄져 있다.

책은 생활사례를 중심으로 심리학과 관련된 54개 주제를 다룬다. 이에 세부적인 대화를 통해 108개 문답으로 구성했다. 책에 나온 소주제들은 보통 대학 학부과정의 심리학 개론시간에 한 번쯤 다루는 내용들이다. 더 자세하고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핵심어의 활자는 더 또렷이 표시돼 있다.

심리학은 본래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심리학이 현대에 각광받는 이유는 여러 학문과 종교, 사회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종합학문으로서의 특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피고 세상을 살핀다. 이러한 특징은 불교와 심리학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저자가 속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스님을 주인공을 내세운 것도, 바로 심리학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구체적으로 스님의 생활에서도 유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명상은 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등의 질문은 심리학적 원리로 설명하지만, 불자들이 속세의 삶에서 느끼는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주기도 한다.

불자들에게 스님들이 정신적 지도자로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리학적 지식을 단지 지적인 재미가 아닌 실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한국인지과학회 간사를 역임했고, 전문 교양작가로 다큐멘터리 자문과 각종 매체에 심리학과 창의성 칼럼 등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자아 놀이 공원> <해결하는 힘> <타임머신 없는 시간 여행> <무삭제 심리학> 등이 있다.

스님과 함께 듣는 심리학 | 이남석 지음 | 종이거울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인간, 자연과 동화 되다

## 송호준 화백 부산 갤러리 피카소서 25일까지 개인전

서양화가 송호준(48)이 8월 25일까지 부산 갤러리 피카소에서 인간과 자연의 하나 됨을 주제로 네 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송호준 작가가 2006년까지 워싱턴에서 전시한 8작품과, 2010년 새롭게 그린 15작품 등을 함께 전시한다.

송호준 작가는 팝아트가 성행하는 현 미술계에 동양적면이서도 자연적인 느낌을 살린 서양화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송 작가는 "이미 미국에서는 도시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팝아트 등의 장르들이 서서히 예전과 같지 않은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에서도 도시적인 이미지 보다는 자연적이고 동양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일본 베르니언덕의 전시부터 미국 알렉스갤러리 전시를 통해 이러한 자신의 작품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자연을 음영과 명암을 통해 표현하며, 순간적인 인상보다는 시각에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을 질서 있게 담아냈다. 자연이라는 소재에 회화 형식으로 예술적이며 구상적인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송호준 작가는 이번 작품 준비를 위해 밀양 무안면 부처골에 작업실을 짓고 1년여 동안 작업에만 매진해 왔다. 송 작가는 "오로지 작품에만 몰입 할 때에는 사회생활에 찌들었던 나를 잊고, 내가 자연과 하나임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인간으로서의 작가 개인을 발견하게 만든다. 다소 무거운 색채로 표현된 그의 작품들은 어딘가 외로우면서도 고독감이 느껴진다. 또한 그 만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작가는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미학의 결과물을 자연주의나 인상주의에 기반을 둔 모던 피큐라티브(modem figuratif, 현대화)로 완성했다.

응시, 추억, 여름밤의 꿈, 영도의 기억, 동백 등의 작품들을 통해 이런 객관화된 의식의 자아를 찾아볼 수 있다.

송호준 작가는 "이번 전시는 3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그간 아트페어 전시 등을 하며 너무 상업적인 작업만 한 것 같아 작가로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본래 작가로서의 순수함을 찾는 기회가 돼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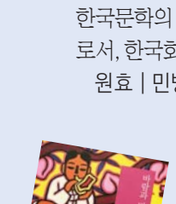
송호준 作 '동해'.

이어 작가는 "앞으로 순례자처럼 순례길을 걷고 싶다"며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진정한 영혼이 담긴 작품을 그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시집 3選

### 무더위 청량한 시어로 날려요

짧지만, 어느 글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것이 바로 시(詩)이다. 요즘 이런 시들이 불교의 사상과 어울려 그 깊이와 무게를 더 전하고 있다. 더운 여름, 두껍고 무거운 책 대신 얇은 시집한권으로 지친 마음의 위안을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늘도 꽃그늘**

2002년 <유심> 봄호에 '한 그루 나 두올시다' 등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임효림의 세 번째 시집이다. 저자는 그간 요동하는 사회정치 현실을 향한 비판과 불국토 구현을 위해 많은 작품을 선보였다. 승려로서의 일상을 냉철하면서도 섬세하게 담아내온 전작들의 연장선에서 더 깊고 넓어진 사유의 세계로 피아의 구분 없는 담백하고 구체적인 시의 진경을 보여준다. 승려이자 시인으로, 민중의 벗으로 자비의 눈길을 시심 삼은 8년의 시력(詩歷)이 오롯이 담기 아름다운 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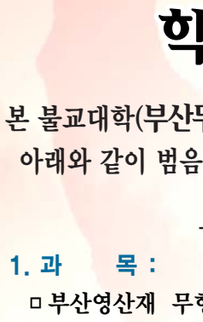
그늘도 꽃그늘 | 임효림 지음 | 실천문학사 | 1만원



**#원효**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원효의 생애와 몇 권의 저술을 읽고, 한 마디로 충격에 빠져버렸다. 그로부터 저자는 분황사니 제석사니 원효암이니 하는 '원효'라는 이름이 붙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적을 뒤적이고, 사색에 젖기도 했다. 책은 저자가 원효를 향한 동경, 애정, 원효의 사상을 탐하며 이러한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원효를 테마로 장시를 풀어낸 저자는 시문학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선의 세계와 한국문학의 신선한 만남이다. 저자는 현재 시인으로서, 한국화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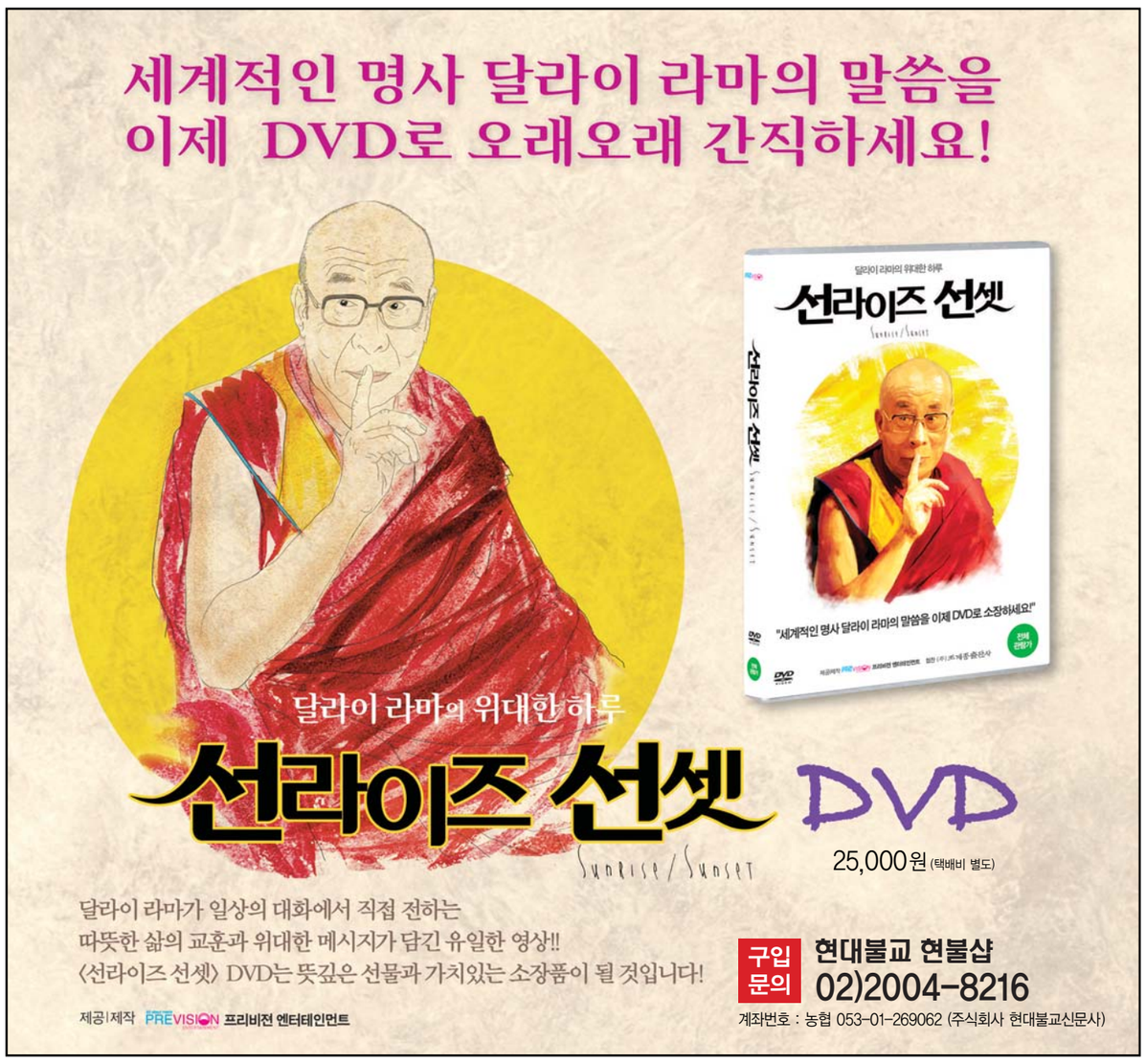
원효 | 민병도 지음 | 목언예원 |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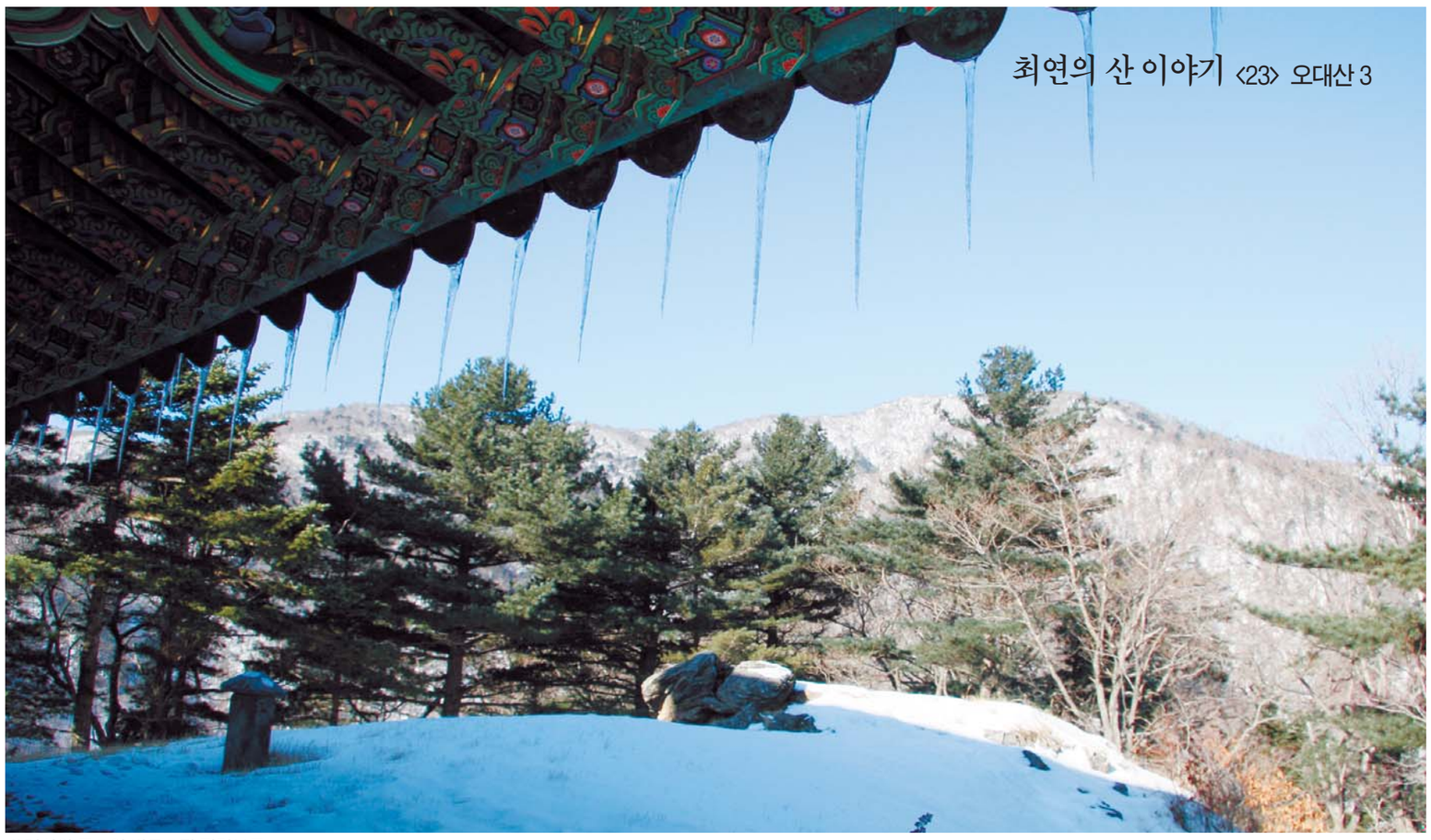
**#바람과 달빛 아래 흘러간 시**

<몸이라는 화두> <흐르는 물의 선정> <황금똥에 대한 삼매> 등 다수의 책을 통해 선시(禪詩)를 선보였던 저자가 이번에 <삼국유사>를 바탕으로 한 시집을 출간했다. 몸, 물, 똥과 같은 소재로 화두를 들었던 저자는 이것이 모두 비실체의 실체, 비연속의 연속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저자는 이번 시집을 통해 '선'의 경지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본성이 마음에 있음을 발견하려 하는 역리(逆理)의 방식을 보여준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책을 통해 선적 사유와 시적표현을 결속한 잔잔하고도 치열한 결실을 보여준다.

바람과 달빛 아래 흘러간 시 | 고영섭 지음 | 연기사 | 8000원



최연의 산 이야기 <23> 오대산 3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과 적멸보궁.

# 깨끗하고 맑은 기운 한량없다

오대산이 뛰어난 정기를 품고 있는 산이라면 적멸보궁 터는 오대산에서 최고의 명당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나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 즉 비룡함주형(飛龍含珠形)의 명당이다.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에서 아래로 뻗어 내린 산줄기는 처음엔 가늘고 연약하다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튼실해지고 기운도 왕성해진다. 그 기운이 가장 크게 넘치는 곳에 적멸보궁(寂滅寶宮)이 자리 잡고 있다.

좌청룡은 비로봉에서 북대 상왕봉을 거쳐 동대 만월산에 이르는 산줄기고 우백호는 비로봉에서 서대 장령봉을 지나 남대 기린봉으로 가는 산줄기다. 오대산의 동서남북 사대(四臺)가 모두 이곳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다. 그리고 앞은 확 트여 숱한 산봉우리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있다. 청룡과 백호와 안산(案山)이 높이가 적당하고 그 기세가 수려하고 장엄하니 깨끗하고 맑은 기운이 한량없이 넘친다. 이러한 곳을 풍수학에서는 삼길육수지지(三吉六秀之地)라고 하는데, 이런 땅에는 재난과 흉화(凶禍)가 침입하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곳에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

적멸보궁의 주산인 비로봉은 높낮이가 거의 없는 일자형(一字形)인데 풍수학에서는 일자문성(一字文星)이라고 하며 지혜와 학문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늘 이곳에 머무는 모양이다. 일자문성은 오행사상으로 볼 때 토(土)에 속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훌륭한 지도자와 현인군자(賢人君子) 그리고 대도인(大道人)이 배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적멸보궁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성지이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모셨으니 더 이상의 현인군자와 대도인이 배출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멸보궁하면 자장율사의 5대 보궁을 주로 말하지만 금강산 건봉사, 대둔산 안심사, 지리산 법계사, 선산 도리사 등 많은 적멸보궁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자장율사가 646년(선덕여왕 15년)에 당나라에서 청량산의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그 화현보살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 1벌을 받아 귀국하였다.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왕명에 따라 당시 계율종의 본산인 통도사를 창건하고 그 사리를 황룡사 탑과 통도사 계단에 나누어 봉안하였다.

자장율사의 5대 보궁은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이다. 태백산 정암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였고, 정암사만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왜적의 노략질을 피해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나누어 봉안한 것이라고 한다.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이 튼실한 기운의 적멸보궁 터를 부려놓고 밑으로 더 내려와 마지막 멈춘 곳에 상원사(上院寺)가 자리 잡고 있다. 상원사를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들은 월정사의 그것과 사뭇 다른데 월정사를 감싼 산봉우리들은 날씬하고 예뻐서 생기발랄한 젊은이를 연상케 하는데 상원사를 감싼 산봉우리들은 풍후(豊厚)하고 온화하며 의연하다. 마치 세상의 온갖 고락(苦樂)을 다 겪고 큰 깨달음을 얻은 대도인의 풍모와 흡사하다. 그래서인지 상원사에는 많은 고승대덕이 배출되었다. 근세에 들어 경허(鏡虛), 만공(滿空)과 더불어 불교를 중흥시킨 대선승(大禪僧) 한암 스님이 상원사에 주석하셨다.

한암 스님은 봉은사 조실로 있던 1925년 "내 차라리 천고(千古)에 자취를 감춘 학(鶴)이 될지언정 삼촌(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며 홀연히 오대산으로 들어와 1951년 입적할 때까지 상원사를 떠나지 않고 보문, 난암, 탄허를 비롯한 많은 제자를 길렀다.

월정사와 상원사 사이에 사고사(史庫寺)가 있는데 조선시대 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지었던 사고(史庫)가 있던 곳이다. 이곳은 생기가 충만하여 삼재(三災:가뭄, 홍수, 전쟁으로 인한 재난)가 들어오지 못하는 명당이라고 한다. 이곳에 보관된 실록은 300여 년 동안 무사히 잘 보관 되었다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모두 빼앗겼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는 실록을 서울의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에 나누어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에 보관하던 것만 남기고 모두 불타 없어졌다. 선조 39년(1606년) 다시 실록을 기록하여 태백산, 묘향산, 강화 마니산, 오대산에 사고를 다시 짓고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러나 인조 때 이괄의 난(1624년)과 병자호란(1636년)으로 춘추관본이 불타 없어져서 다시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서울대학교에 보관 중이고 적상산본은 한국전쟁 때 없어졌다. 오대산본은 일본에서 거의 불타 없어지고 일부만 일본 황실에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일본이 오대산본 실록을 반환한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흡혈

모기 한 마리가 개의 주둥이 근처에서 앵앵 날며 떠나지 않는다. 더위에 지친 개가 처마 밑 그늘에서 낮잠을 청하는 한낮. 모기를 쫓으려고 개가 머리를 흔든다. 모기는 슬쩍 주둥이 근처를 벗어났다 개가 잠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다시 앵앵 달려든다. 개는 머리를 들며 입을 쩍 벌렸다 닫으며 잡아먹으려 하지만 모기의 몸놀림에 비해 한 수 늦다. 아가리를 벗어난 모기는 태연하게 또 덤벼든다. 개는 졸면서도 머리를 흔드는가 하면 반사적인 동작으로 주둥이를 앞으로 내밀며 입을 벌렸다 오므리길 멈추지 않는다.

피를 빨고야 말겠다는 모기의 의지가 강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피를 빨리지 않겠다는 뜻을 그만 접었는지 개는 움직이지 않는다. 주둥이 위를 빙빙 돌던 모기가 주저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는다. 털이 나지 않은 콧잔등이다. 피를 빨리는 부위가 간지럽던지 아니면 아팠던지, 개가 잠결에 앞발로 쓱 콧잔등과 눈 밑을 함께 훑는다. 모기는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모양새로 내려앉아 다시 피를 빤다. 이번엔 길다. 개도 그만 포기했다. 너 마음대로 실컷 빨아먹고 가라며 깊은 잠 속으로 빠진다.

그게 아니었나? 너그러운 표정의 개가 슬며시 눈을 떴다. 개의 시선을 느꼈는지 아니면 먹을 만큼 먹었는지, 모기가 날아올라 마당가 수풀 속으로 간다.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눈꺼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개는 스르륵 머나먼 잠 속으로 들어간다. 축 늘어진 개의 모습이 평화롭다.

피할 수 있다면
멀찌감치 벗어나는
것도 좋고 모기장 치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면
좀 나눠주며 살자고
좋게 마음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잠자는 개의 모습이 왜 저리 평화로운가? 개의 모습은 원래 평화로운가? 모기에게 피를 빨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일까? 배불리 피를 빨아먹은 모기를 봤기 때문일까? 세상 모든 것 다 받아들이겠다는, 저 잠자는 자세가 그런 것일까?

모기의 생존과 번영과 즐거움을 위해선 누군가는 피를 빨려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건 개이건 또다른 동물이건 상관은 없다. 피를 빨리는 누군가가 있기만 하면 된다. 피를 빨리는 동물이 없다면 모기도 있을 수 없다.

모기에게 피를 빨리는 일을 좋아하는 동물이 있을까? 필요 없는 피가 있거나 여유분의 피를 가지고 있어 나눠줘도 좋은, 넉넉한 피 주머니를 차고 있는 동물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모기에게 섣불리 피를 주다가는 병을 얻어 죽을 지도 모르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선뜻 피를 주는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가능성까지 닫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자신의 피를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한번도 본 일이 없고 볼 일도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 피를 무료로 뽑아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다. 마지못해 한 일이라 해도 크게 다르진 않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며 비켜가기도 어렵다.

그런데 상대는 모기다. 인간사회에서는 모기에게 피를 나눠주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인간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 피를 줄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모기가 이 세상에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만한 짓이다. 지구상에서 과연 모기를 몰아낼 수 있는 지를 생각하는 인간이 오히려 겸손하다. 몰아낼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나 피를 뜯길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 (피를 빠는 동물은 모기만이 아니다.) 피할 수 있다면 멀찌감치 벗어나는 것도 좋고 모기장 치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면 좀 나눠주며 살자고 좋게 마음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에 생각을 잇다보니, 피를 빨린 뒤 깊은 잠에 빠진 개의 모습이 평화롭게 다가온 이유를 알 것도 같다.

■ 유승도 (시인)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한국 불교 문헌의 대총서를
읽기 쉬운 우리말로 만난다.

신라 1 인왕경소 원측 | 백진순 옮김 | 신국판 | 800쪽 | 35,000원
호국의 비법이 설해진 『인왕경』의 주석서이다. 원측 스님의 말년 작품으로서, 내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과정이 결국 외적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고려 1 일승법계도원통기 균여 | 최연식 옮김 | 신국판 | 214쪽 | 12,000원
한국 화엄학의 시조인 의상 스님의 『법계도』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해설서이며, 균여의 저술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문헌으로서 균여 화엄사상의 초기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고려 2 원감국사집 충지 | 이상현 옮김 | 신국판 | 480쪽 | 25,000원
고려 말엽에 국사로 활약한 충지 스님의 시문집으로서, 선취적禪趣的인 시와 외세의 영향으로 곤궁에 빠진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식인의 고민을 보여 주는 시가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1 작법귀감 백파 긍선 | 김두재 옮김 | 신국판 | 336쪽 | 18,000원
'작법귀감'이라는 제목은 불교의 제반 의식에 통용되는 의식문의 모범이요,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 의식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있어 불교의례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 2 정토보서 백암 성총 | 김종진 옮김 | 4×6판 | 224쪽 | 12,000원
극락의 찬란한 모습과 그곳에 이르는 방법 등 정토신앙에 대한 교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한편으로, 염불수행을 통해 극락에 이르는 이야기를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 3 백암정토찬 백암 성총 | 김종진 옮김 | 4×6판 | 154쪽 | 9,000원
극락과 염불을 노래한 정토의 노래이자, 백암 성총 자신의 인생 여정과 수도의 과정에서 느꼈던 서정과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는, 종교성과 문학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조선 4 일본표해록 풍계 현정 | 김상현 옮김 | 4×6판 | 180쪽 | 10,000원
천불을 조성해 경주에서 배에 싣고 해남 대둔사로 가던 중 일본에 표류하여 겪은 일이 흥미 있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풍속과 일본인의 조선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요 언론이 주목한
10년간의 대장정, 그 첫 결실

한국불교전서의 한글본 완역은
조선왕조실록 완역과 같은 문화적 충격을 줄 것 – 문화일보

〈일본표해록〉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언을 담은 흔치 않은 책이다 – 경향신문

이 책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
분량만 24만 장에 달한다. 이중 80%가 한글 초역이다 – 중앙일보

향후 10년간 한글 번역본이 200~300권에 이르게 될 대장정 – 조선일보

10년 뒤 총서 완간되면 불교인식 바뀔 것 – 서울신문

우리말 옷 입은 1700년 한국불교 진면목 – 연합뉴스

동국대학교 출판부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돌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금광 자미두수 철학원**

신통방통 자미두수

자미두수 별점궁합

궁합, 사주, 택일, 작명, 개명,

진로, 사업 (책 판매함)

(김정희 원장 직접 상담)

02)921-1954

018-276-1954

지하철 신설동역 2번출구

**역학(명리학).작명학**

수강생모집

기초 3개월, 응용(실무) 3개월

개인 및 단체강의

저렴한 비용

문의 전화 : 011-711-5072

**세계불교법왕청**

봉안(납골당) 안내

- 평생 관리비 무료 -

010-4724-1723

화성, 괴산, 청원 (3곳 중 선택)

미국에서

부전 수행

하실 스님

모십니다

010-5792-3000

부전(비구)

스님 모십니다

▷부산

051)336-9922

011-567-262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포교당

011-229-6061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강릉

011-320-5070

경관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무실 보살님도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경기도 시흥

011-314-9848

불심깊은

50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천시,

월보시금 100~120만원

010-9269-8445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819-8988

대한불교조계종 본종 비구니 4-50대 스님으로 수행정진 도량을 찾는 인연 스님을 평생운영관리토록 시봉하며 노승이 상좌가 없어 쉬고 싶어서찾고 있음.

그리고 신심있는 공양주를 자기기도 겸 청정도량에 안주할4-50대 인연공양주 및 스님뵐 보살님 구함. (올 사람만 전화바람)

(보수는 상담 후 결정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보시금 110만원

010-7706-89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창원시내, 50세 이하

011-879-25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041)836-5066

041)836-5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천년고찰

011-527-0637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 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건축전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속성" 염불 공부 마스타**

불공을 저 스님 하시는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생각하시는 분 승려, 재가불자 모두 환영

초급 : 상단불공, 신중단, 기도 (2-3개월)

중급 : 제사, 시식 (2개월) 확신 상급 : 천도재, 49재 (2개월)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행자분 모십니다

부산 천년고찰 정묘절 화지사

도관스님 010-5123-9929 / 866-0362

**관욕 지의 (紙衣)**

- 한지로 만들었습니다
- 홑지로 재단하여 만들었습니다
- 짧은 시간에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이 일반옷과 동일합니다
- 남녀 구분되었습니다 (사이즈는 동일)
-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판매합니다

◆사이즈

가로길이 : 18㎝

세로길이 : 21㎝

문의 전화 054)972-9933 / 017-503-3503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찾아오실 분은 이포나루터 남한강 뚝방 2층 베란다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미사리에서 40분 소요)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佛教儀式 (범음, 범패) 學人 모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2010년 9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9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타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법선)

**천도재 영험**

◇암이나 모진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그 아픈 고통이 반으로 줄어 듭니다 .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십니까?
- 마음에 안정을 찾습니다.

◇하는일 마다 잘 안되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까?
- 얼굴색이 검고 푸석푸석 하거나 탁하고 혈색이 없으며 눈에 충혈이 많거나 어두운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며 화색이 돌아 옵니다.

천도재가 끝나면 가족들의 상호가 변합니다 .

오직! 사리암에서 가능한 영가천도입니다
깨끗이 해결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사리암

(시내요금) 1661-7880

네이버카페 : 진신사리 / 핸드폰 : 12#3 접속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4억 5천
  동해바다가 보는
  해맞이자리 경관특급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외 3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1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외 2동
- 요사 : 9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7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 찰 안 내

- 서울명산에 소재한 기도 영험 도량입니다
- 천하 명당 사찰임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 가액: 12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수행자를 위한 대력불사
031)775-8110. 011-531-5562
팩스 031)775-8910

## 사찰 및 토굴안내

### 부산 금정산 자락 사찰

- 총 대지 : 약 230평
- 법당 30평, 주지실 15평(1동)
- 요사채 50평(2층 건물)
- 부산 온천장(금정산) 부근
- 남향, 텃밭 50평,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5억 8천

### 낙동강 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전통법당 : 35평
- 요사채 100평, 대종각, 기타 전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
- 계곡물 철철, 주차장 300평(버스진입가)
- 총금액 : 13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1)632-1821

##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모곡리
- 평수 3000평
- 법당 3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60평, 조립식 40평
- 연못 있음
- 가액: 15억 (답사 후 절충)

011-737-9626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4층 건물 중 2층
- 법당, 요사채 포함 72평
- 주차장 완비
- 도심속 포교당 최적지임
- 가액: 2천만원 월 70만원
- 인연있는 분 전화바람

011-537-0138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주택 2층 독채 약 30평
- 보증금 無, 10개월 200만원
  시설비 450만원
- 약사여래불, 각단탱화
- 일체완비, 법사님 보살님도 계시기에 좋음

010-4166-456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9215-4769

##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010-4506-8742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297-9149

##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 임야 사찰 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8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 시내사찰안내

- 위치: 인천 동구 박문사거리 근방
- 전철 제물포역 도보 10분거리
- 대지 약 45평
- 1층 단독건물, 법당, 삼존불,
  요사채, 방2, 부엌
- 화장실, 도시가스, 거실, 상담실
- 투자가치성 있음 ● 융자 6450만원
- 가액: 2억 2천 5백만원(조정됨)

010-4517-3779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 부지 : 500평
- 건물 : 대웅전, 외5포 내9포전층
  목재건물29평
- 요사채 2동 각 60평, 10평
  산신각, 종각
- 사팔등1천등, 인등 1200
- 가액 : 12억(절충가능)

010-9318-3230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6동
  (대명초등 부근)
- 주택독채 43평, 마당있음
- 법당: 삼존불,후불산중 산신탱화
- 시설: 방2개, 점포5평,공양간,
  욕실완비
- 보증금없이 10개월에
  300만원 삭월세
- 시설비 600만원(절충가능)
- 주차 공간넓음

010-8181-5011

##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위치 좋음)
- 3층건물 3층, 총 45평
- 법당 20평, 분리됨
- 방2, 공양간 12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 8년 포교 불사관계로 급 임대

010-8519-0758

##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사거리 상업지역
- 3층, 60평
- (옥상포함. 전체사용가능함)
- 보증금+시설비 6천만원
  월 62만원(절충가능)
- 현법회중
- 뒤에 산과 폭포있음

011-496-6417

##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 건평 100평, 임법당 15평
-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기도터 및 선방으로 적합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내 상업지역
- 상가 5층 건물의 2층
- (옥상 텃밭 30평 단독사용)
- 평수 50평
- 기본 법당시설 A급 완비
- 소임관계로 급하게안내
  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180-382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이동저수지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삼성각 7평, 호신불 108불
- 주차 30대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215-9749

## 종교사업같이 하실 불자님!

- 추모관 3층건물 (각층당 1500기)
- 분양금액의 30% 투자후
  분양건 일체 위임
- 팔공산자락 위치 최적지(신축절)
  ( 대구에서 15분
  청통, 와촌 IC에서 1분)
- 보각사(방문후 상담)

011-508-1467

## 도심포교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복도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2천만원
- 도심속 최고자리

011-716-3811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만1동
- 4층 상가건물
  재래시장 앞 포교원
- 동불 삼불
- 4층 요사, 3층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주인인정)

010-8108-0108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유동인구 많음
- 위치 : A급 ●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5백만원
  합 3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내
- 평수 : 35평
- 삼존불, 방1, 주방, 창고
- 집기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절충

070-8816-4872
010-6414-560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 120평, 법당 : 30평
- 요사채 : 20평, 창고 :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1억 1천만원

054)874-2226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사림동
- 평수 : 실평수 50평
  법당 25평, 방大1, 小1,
- 주방大, 화장실1, 욕실1
- 보증금 500에 월60만원
- 시설A급,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 즉시법회가능

016-9315-3663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평해읍(해변가)
- 법당1칸, 방2개, 주방1,
  욕실, 산신각
- 대지 58평, 임야 220평
- 가액 : 8천 4백만원(절충가능)

054)787-4228
011-9114-8128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 평수 : 법당5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 가액 : 4억

043)852-0533

## 포교원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 4층건물의 3층, 50평
- 법당, 삼존불, 방2, 공양간
- 모든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시내 도로변 1,2층 병원
- 유동인구 많음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315-2100

## 시내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 대지 : 50평
- 1층 : 방4, 거실, 주방, 화장실
- 2층 : 방3, 화장실, 주방
- 3층 : 법당, 지하실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011-753-0768

##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중앙동
- 법당과 안쪽 방1칸
  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200만원
- 이전불사관계로 급 안내

055)262-3679
010-4877-1679

##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107평, 건물 45평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거실大, 방3 (화장실2, 남향 뒷 야산)
- 차량마당진입, 건축비 1억 8천만원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011-531-556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 전천시내
- 대지 128평
- 요사채 콘크리트 30평,
- 법당 목조 30평
- 가액: 2억 7천만원

011-538-9854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 3층건물 중 3층. 40평
- 법당 1, 상담실1, 주방겸 큰방1
- 4층 옥탑방1,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010-4784-5506

##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입구
- 지하철 5분 거리
- 4층 건물 3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법당, 방2, 사무실, 공양간, 욕실, 화장실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 월60만원 , 시설비 1400만원
- 이전불사 관계로 저가양도

010-9773-9980

##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고경면
- 한옥기와 1동 外 토담집 1동
- 대지 外 텃밭 450평
- 교통 편리하며 조용하고 수행하기 좋음.
- 가액: 7500만원 . 도인 은신처

010-5039-6505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 요사채 2동중 황토방 1개
-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8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 포교원안내

- 위치 : 태안군 태안읍사무실 부근
- 단독주택 조용함(방4, 거실, 욕실)
- 전세 2천으로 시설비 없음
- 스님 영구 해외 이주 관계로
  고가구 및 불교 공예품을 문화원 및
  민속박물관 하시는 스님께 저가로 인수원함
  (팔만대장경외 200권 보시)

010-4285-5914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 가액: 4억(은행융자 8천만원)

010-3112-3513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혁 신도시(김천시내에서 7~8분거리)
- 대지 171평(법당 1,2층 1동. 요사채 1,2층 1동. 합 건물 2동)
- 법당 2층 : 20평. 건물 단청되어 있음. 수미단 조성, 영단. LED인등
- 종무소 1층 : 20평. 방3개 ● 요사채 : 1층 30평, 방3개, 2층 30평, 방3개
  (귀뚜라미화목 보일러와 린라이가스 보일러겸용)
- 140여가구 마을 옆 산자락 아래 자리하고 법당옆으로 골짜기
  물이 졸졸 흐르는 깨끗한 도량, 주차공간이 넓으며, 텃밭도 있음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되어 있음
- 가액 : 2억 3천 5백만원 (은행융자 1억 포함)
- 실질적인 가액이므로 금액절충은 불가하오니 꼭! 필요로 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133-2266

##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 사 찰 터 안 내

- 잣나무 숲이 우거진 경치좋고 물 좋은곳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실천읍
  성남-장호원간 톨게이트 1km
- 땅 1360평 – 양도가 10억
- 요양원, 사찰 280평(건축허가 나있음,
  1000평 토목되있음) 현재 요사채 53평(가건물, 법당있음)

017-201-0037

## 현대식 사찰(급)안내

- 1층 사찰음식점,찻집 가능함.시설완벽,
- 건평 180평, 대지 500평, 각종 정원수로 둘러싸여 있음
- 1층 방5개,휴게실,공양간,화장실,원목을 꾸며진 회의실
- 2층 대법당, 제사전용소법당, 방3개, 화장실 2곳, 종무실1곳
- 3층 삼성각, 방1개, 지하 50평
- 파격임대가 2000만원, 월90만
- 시설비 방문 후 결정, 양도 가능

043)853-9798



##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㉚ 걸음걸이 2

# 걸을 때 주의해야할 나쁜 습관

보통 사람은 주로 발 앞쪽과 뒤꿈치만을 이용해 걷습니다. 몸 전체의 하중이 발바닥의 중앙을 생략하고,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그대로 전달되면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지 못하면서 보행 자세가 뒤틀려 척추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행은 발꿈치 바깥쪽으로 딛기 시작해 발바닥 중앙 바깥쪽을 거치면서 앞쪽 새끼발가락에 이어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시중에는 이러한 보행을 돕는 기능성 신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이롭다고 해도 사람들은 일상에서 그런 건강신발을 내내 신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복장을 착용하고, 또한 현재 유행에 따라가다 보면 건강신발은 뒷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바른 보행습관을 들이려면 일단 다른 사람의 걷는 모습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이상하게 걷는다' '저 분은 정말 멋지게 걷는다' 라는 나름대로의 통계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쇼윈도에 비치는 자신의 보행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멋있게 본 걸음걸이를 시행해 보기 바랍니다.



올바른 걸음걸이.

많은 분들이 팔자걸음, 종종걸음 등을 바른 걸음걸이로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부 어린 학생들이 팔자걸음이나, 이상한 걸음걸이 등을 흉내 내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좋은 습관이 아니니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귀엽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종종걸음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보행은 적당한 보폭과 일자로 내 딛게 되는 발, 그리고 적당한 상체의 흔들림에 의해 완성됩니다.

한쪽 다리의 발뒤꿈치가 땅에 닿은 지점부터 다른 쪽 다리의 발뒤꿈치가 땅에 닿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보폭이라고 합니다. 이 보폭의 크기는 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작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작습니다. 다르게 말해 기력이 쇠할수록 보폭이 줄어든다는 말이 되고, 또다시 역설적으로 보면 건강한 걸음걸이는 기력이 흥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워킹 할 때의 보폭은 보통 때보다 넓어지지만 우선 자신이 걷기 편한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걷습니다. 처음부터 보폭을 넓히려 하면 피로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자신이 익숙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차차 걷기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워킹을 시작한 초기에는 보폭을 많이 의식하지 않고 걸어야합니다.

걸음걸이 중에서 주의해야 할 나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걸으면 몸과 어깨근육에 무리를 주게 되며, 고개를 세운 채 시선을 5~6m 전방을 응시하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2. 비만인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걸음걸이는 다리를 많이 벌려 걷는 것인데, 이 자세로는 빨리 걸을 수도 없고 상체를 흔들리게 해 안정감도 없으며, 척추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3. 많은 사람들이 빨리 걷기 위해 팔을 쭉 펴고 높이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걸음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피가 손가락에 몰려 좋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는 남들이 보기에도 편안한 것이 좋은 걸음걸이입니다.

4. 빨리 걷기 위해 팔꿈치를 삐쭉 튀어나오게 해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자세는 등을 경직시키고 자연스런 걸음을 못하게 합니다. 어깨 근육에도 무리를 줘 상체를 경직시킵니다.

5. 어깨를 움츠리고 걸으면 등이 굽고 숨쉬기도 곤란해집니다. 어깨는 항상 엉덩이와 일직선이 되게 곧게 펴야 합니다.

6. 올바른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발뒤꿈치에 쿠션이 있는 것으로 부드러워야 좋으며, 꽉 끼는 신발보다는 약간 헐렁해야 발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7. 앞으로 약간 기울여 걷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등에 무리를 주게 되며, 평소에 골반을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터벅터벅 걸으면 무릎과 등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발뒤꿈치부터 내딛고 나서 발전체로 땅을 딛는 것이 올바른 보행 방법입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⑱ 체중 감소

#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살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라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거나, 뺨이 홀쭉해졌거나, 바지나 치마의 허리부분이 느슨해지는 등의 징후가 보인다면 자신의 체중감소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의도적으로 살을 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면 질병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체중의 증감은 에너지 대사의 산물이다. 체중이란 몸에 들어와서 쌓이는 양이 많으면 늘고, 나가는 양이 많으면 줄어들기 마련이다. 체중이 줄어들거나 체중이 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10주 정도에 체중이 4㎏ 이상 감소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현저하게 줄고 식욕감퇴나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우울증, 폐결핵과 같은 만성적인 폐감염증, 위나 장의 염증과 같은 소화기관의 장애, 당뇨병,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질병들은 체중감소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식욕이 항상 좋은 경우를 살펴보자. 땀이 많이 나거나, 허탈감이 있거나, 떨리거나 몸이 자꾸만 늘어지며 안구가 빛나고 돌출하는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많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소변을 보는 횟수나 소변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목이 자주 마르거나,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하거나, 여성의 경우 성기가 가렵거나 월경이 줄어들다가 없어지면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다. 만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당뇨병은 모체와 태아 양측에 모두 위험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욕이 좋지 않은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발작성 설사, 복통, 변비, 메스거림, 구토, 혈변(血便) 등의 증세 가운데 주기적인 증세가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소화기관의 장애를 생각할 수 있다. 위나 장에 염증이나 궤양이 있거나 심한 경우 종양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수면 시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발열상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항상 몸이 찌뿌등하며 피로하거나, 기침이 오래 계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있는 증상들이 2가지 이상 겹쳐 있다면 폐결핵을 비롯한 만성적인 폐의 감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거나,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 성욕의 감퇴, 집중력이나 결단력의 감퇴 등의 증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심하다면 심한 우울상태로 인한 식욕감퇴일 수 있으므로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다. 체중 증가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 때문에 식사를 거부하는 정서적인 장애로, 주로 10대의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뚱뚱하다고 믿고 실제로는 체중이 감소하는데도 줄지 않는다고 생각해 체중감소, 호르몬의 장애, 나아가서는 죽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허리가 굵다거나 손이 통통하다거나 다리가 굵다는 등의 생각이 신체적인 콤플렉스에 이르면 다이어트는 점점 병적으로 된다.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인한 식욕부진이 몸의 상태를 변화시켜 몸을 병적인 기아상태로 유도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월경이 중지되고, 피부색은 새파랗게 되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몸은 눈에 띄게 야위게 된다. 방치하면 극도의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말랐음에도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경우 주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상의 경우가 병적인 체중 감소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밖에도 많은 복합적인 병적인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데도 자신의 체중이 줄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원인을 찾아야만하기 때문이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㉚ 팔괘장 2

# 작은 것 놓으면 큰 것 얻는다

명이 망하기 직전에 전호걸은 남방으로 가게 됐는데, 왕조가 바뀌는걸 보고 고향생각이 나서 은사에게 고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년간 자유자재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온 전호걸은 청나라의 엄격한 통치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명조가 처음 망했을 때 일단의 애국지사들이 비분강개해 청조 통치에 여러 방식으로 반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로 들어가 화상이나 도사가 돼 역량을 비축하고 명의 강산을 수복하고자 도모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전호걸은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아버지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으려 끝내 이별조차 고하지 않고, 가족의 후대인 소년 '전선'과 함께 잠적해 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전씨 집안에 갑자기 한 도사가 나타났는데, 자신을 전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씨 집안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지난 일을 얘기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전호걸과 전선은 도포를 입고 도사가 돼 반청복명 조직에 동참했습니다. 전선은 음양팔괘장을 익힌 후, 전포걸의 명으로 천리길을 달려 전호걸의 명으로 천리길을 달려서 전씨 일가에게 음양팔괘장을 전수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 후 전씨 가족은 비밀리에 음양팔괘장을 모두 배우고 반청복명의 조직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이 조직의 활동영역은 경성 부근이었으며, 반청조직이라 청나라 조정에 발견되면 구족이 멸문하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족 모두가 음양팔괘장을 전수 받지 않고, 인재를 선발해 명조에 충성했습니다.

전선은 당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을 내놓았습니다. 첫째가 비밀 준수와 청나라의 관리가 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며, 둘째가 청나라 조정에 협력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며 셋째가 만주인의 무술을 전수 받는 것을 불허하는 것 입니다.

전선은 음양팔괘장을 전씨 가족 10여명에게 전수한 후, 곧 산으로 돌아갔고 이때부터 음양팔괘장이 전씨 문중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통 개인 문파가 나라에 항거해 성공한 사례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들의 무술이 출중할지는 몰라도 무리를 모아 통솔하고, 군대를 다스리는 힘은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무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소수가 거대한 군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팔괘도

각 문파들의 수장 세력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마 가족들에게만 무술을 전수하는 습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전수하지도 않는데 다른 이들이 이들에게 충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사회에 일으키는 반항은 그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국지성 게릴라로 끝나는 반항에 머무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것을 조금만 놓으면 더 큰 것이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 소개료, 수수료가 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전국 불자님들에게 하기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자들이 모두 읽어야 할 책 !!!

"생전 예수재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

우리 중생들은 왜?
생전예수재를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생전예수재는 "전생의 빚을 갚는 재"입니다.
빚을 갚은만큼 현세에서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책자를 속히 읽어보십시요"

글쓴이 : 혜천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2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탈 종 공 고

• 법 명 : 진성 (김승권)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448-1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❶ 용장사지

#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절에 가는 것일까? 이러한 소박한 질문에서 필자의 불교신앙에 대한 여행이 시작된다.

석굴암의 본존불을 바라보며 지른 '아!'라는 탄성 한마디는 어떠한 신앙도 뛰어넘는 절대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고 중국 산시성 윈강 석굴에서 만난 거대한 석가모니 불상은 시대를 뛰어넘어 그들의 믿음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신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시작하려고 한다.

한국에 불교가 시작된 것은 서기 372년, 소수림왕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불좌상(慶州南山茸長寺谷石佛坐像)(보물 제187호). 둥근 모양의 대좌에 앉아 있는 불상으로 머리 부분은 없어 졌지만 나머지 부분은 온전히 남아 있다. 특이한 대좌 표현과 대현 스님의 고사와 연관되어 보는 이들에게 신비감을 더해준다.

2년에 전진(前秦)의 왕 부견(符堅)이 승려 순도(順道)를 고구려에 보내서 불상과 불경을 전하면서다.

한국 사람들이 접한 최초의 승려와 불상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을 것이다. 흔히 한국불교사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수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충돌이 없었지만 신라에 이르러서는 기존 세력과 갈등을 겪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서 상으로는 별다른 기술이 없기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난해 보이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사람들도 불교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머리를 깎고 낯선 불상을 가져온 그들의 모습에서 일반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지를 상상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상상이다.

당시 일반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형태는 남산 용장사지에서 잘드러난다. 경주남산을 보지 못하면 신라를 반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 경주 남산은 그 만큼 신라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

경주 남산 용장사지는 동서 약 70m, 남북 40여m 되는 지역에 크고 작은 돌 축대가 남아 있는 절터이다. 조선 초, 말년에 설잠(雪岑)이란 법명으로 활동한 김시습이 이 절에 기거하면서<금오신화(金鰲神話)>를 썼다고 하니, 긴 세월 동안 용장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유가조 대덕(大德)인 태현은 경주 남산 용장사에 살았다. 절에는 자씨(미륵)상이 있어서 태현은 항상 그 주위를 돌았는데 그러면 상도 따라서 얼굴을 돌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유가법상종 태현 스님의 미륵보살에 대한 신앙이 등장한다. 경주 남산 용장사는 미륵신앙의 성지 중 하나인 것이다.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중국 당(唐)대 법상종을 대표하는 현장(玄藏)이 아야무카(Ayamukha)국으로 가는 도중 도적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미륵보살을 염하며 미륵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

그의 제자 규기(窺基)도 미륵상을 만들어 도솔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법상종의 중요한 인물들이 미륵신앙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통일신라에서 유행했던 법상종 계열의 인물들도 이러한 미륵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로 전래된 불교에 특히 신라불교에서 도솔천 왕생 등 미륵신앙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용장사지에는 몇 군데의 건축터와 석대, 3기의 탑지, 보물 제187호인 석불좌상과 보물 제186호인 3층 석탑, 보물 제913호 마애여래좌상이 남아 있다. 이 중 목없는 석불좌상이 미륵상으로 보인다. 불상이냐 보살상이야 하는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용장사지의 석불좌상이 남아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남산을 불국토로 만들었던 신라인들이 죽어서 다시금 용화세계로 향해 먼 훗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 대학원 박사 '북위불교와 석굴조영 연구'
공저 <원주의 유적과 불교>, <한중불교교류사 연구>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㊻ 선암사 해우소




"바람이 엉덩이 밑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래서 엉덩이가 허공에 뜬 것처럼 상쾌하다. 똥을 누기가 미안할 정도로 행복한 공간이다."

<칼의 노래>, <남한산성>의 소설가 김훈은 <자전거여행>에서 선암사 해우소를 배설의 낙원이라며 승주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똥이 마려우면 참았다가 선암사 화장실에 가서 누라고 했다. 아마 이른 봄이었던 것 같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창살 사이로 매화나무며 눈 덮인 겨울 숲을 보며 볼일을 보았던 것 같다.

"이 화장실에서도, 심하지는 않지만 냄새가 조금 나기는 난다. 이 냄새는 역겹지 않다."

그는 두엄 속에서 서서히 삭아가는 그 냄새를 '마땅한 냄새'라며, 그것을 '그리운 것'들 중의 하나로 이야기했다. 그리운 것들이 늘어간다.

##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 제8도 성중묘화공양만억불토장엄

제 8도 성중묘화공양만억불토장엄은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의 찬란함을 하루에 여섯 번식 내리는 만다라 꽃비로 표현하고 있다. 극락세계에는 천녀들이 하루에 여섯 번씩 미묘한 꽃을 바구니에 담아 십만 억 불국토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지각색으로 어우러져 찬란하게 빛난다고 한다.

제 8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름에 싸인 누각의 난간 안에 두 천녀들이 꽃을 받쳐 들고 있고, 그 위로 꽃들이 흩날리는데 이러한 도상이 5쪽 후반부와 6쪽의 전반부의 1/2부분까지 이어진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위에는 하루에 여섯 번 천상의 만다라 꽃이 비 오듯 흩날리고 있느니라.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黃金爲地 晝夜六時 雨天 曼陀羅華. 舍利佛 極樂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무량수경>에는 이 극락세계의 꽃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맑은 바람은 꽃잎을 불어 와서 두루 불국토에 뿌리는데, 꽃잎은 가지각색으로 어우러져 찬란하게 빛나고 그윽한 향기를 사방에 풍기느니라. 꽃잎을 밟으면 네 치나 들어가고 발을 들면 다시 전과 같이 올라오며 꽃잎의 쓸모가 다하면 문득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사라져 한 송이의 흔적도 없으며, 때가 되면 바람은 다시 꽃잎을 불러 오는데, 이와 같이 밤낮 여섯 차례 되풀이 되느니라."

도상으로는 전편에 천녀들이 극락을 음악으로 합주하여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는 모습과 나눠져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천녀들이 합주하는 음악소리와 함께 천녀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꽃잎을 뿌려 극락국토를 만다라 꽃으로 장엄하고 있는 장면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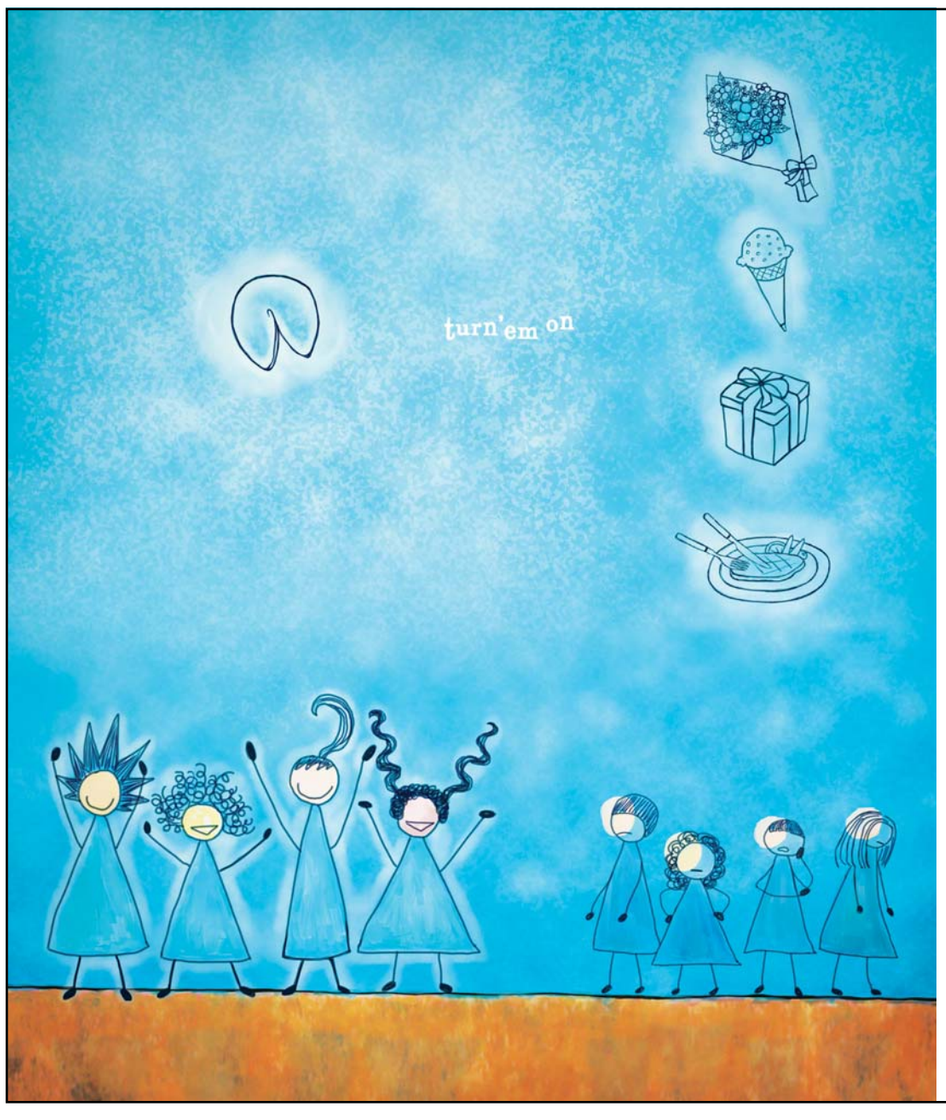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맞추어 미묘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꽃들이 흐드러지듯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눈앞에 다가온다. 극락이 어디에 있는가. 서방정토 저 먼 곳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극락이 있다고 옛 조사들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속 극락세계가 열린다면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꽃비 속에 하나가 되어 마음껏 이 생명의 축제인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모두 극락세계에 흩날리는, 만다라 꽃비를 우리 마음속으로 끌어들여 하루에 여섯 번씩 번뇌망상으로 찌들어진 현실의 세계를 아름다운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켜 보자.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8도 성중묘화공양만억불토장엄(盛衆妙華供養萬億佛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 이판사판으로 놓는 마음이라야지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싶은데…**

**문)** 스님께서는 생활 속에서의 참선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됩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먹으면 배설하고 먹으면 배설하고 그러죠? 그리고 땅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대신 죽어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자 주는 사람도 없고 먹어 주는 사람도 없고, 아파 주는 사람도 없고 똥 눠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뚱이 자체를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 그 주인의 핵심을 꼭 믿고 '오로지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렇게 진실되게 이끌어 준다는 거를 믿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병도 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애고도 생길 때가 오고, 어떤 때는 장사도 안될 때가 오고 어떤 땐 몸도 찌뿌드드하게끔 될 때도 있고, 가정이 의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를 그저 오는 대로, 생기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하이고! 이 마음의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이 영원한 친구야!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이 병고나 애고를 없애 줄 수 있어!' 하고 거기 놔라 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그 놓고 나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러는 게 참선이에요, 그렇게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게.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이렇게 좌선을 하고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에요. 그건 좌선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와선이나 입선, 눕는 거나 앉는 거나 서는 거나 일하는 거나 모든 게 한데 합쳐지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써 어떻게 작용을 할 때나 내가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고 여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선이에요.

그럭하다 보면 내 마음 자체가 자꾸 실험이 되면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꾸 체험이 되고 그렇게 체험을 함으로써 바로 진짜로 믿게 되죠, 그때는. 그럼으로써 자기 참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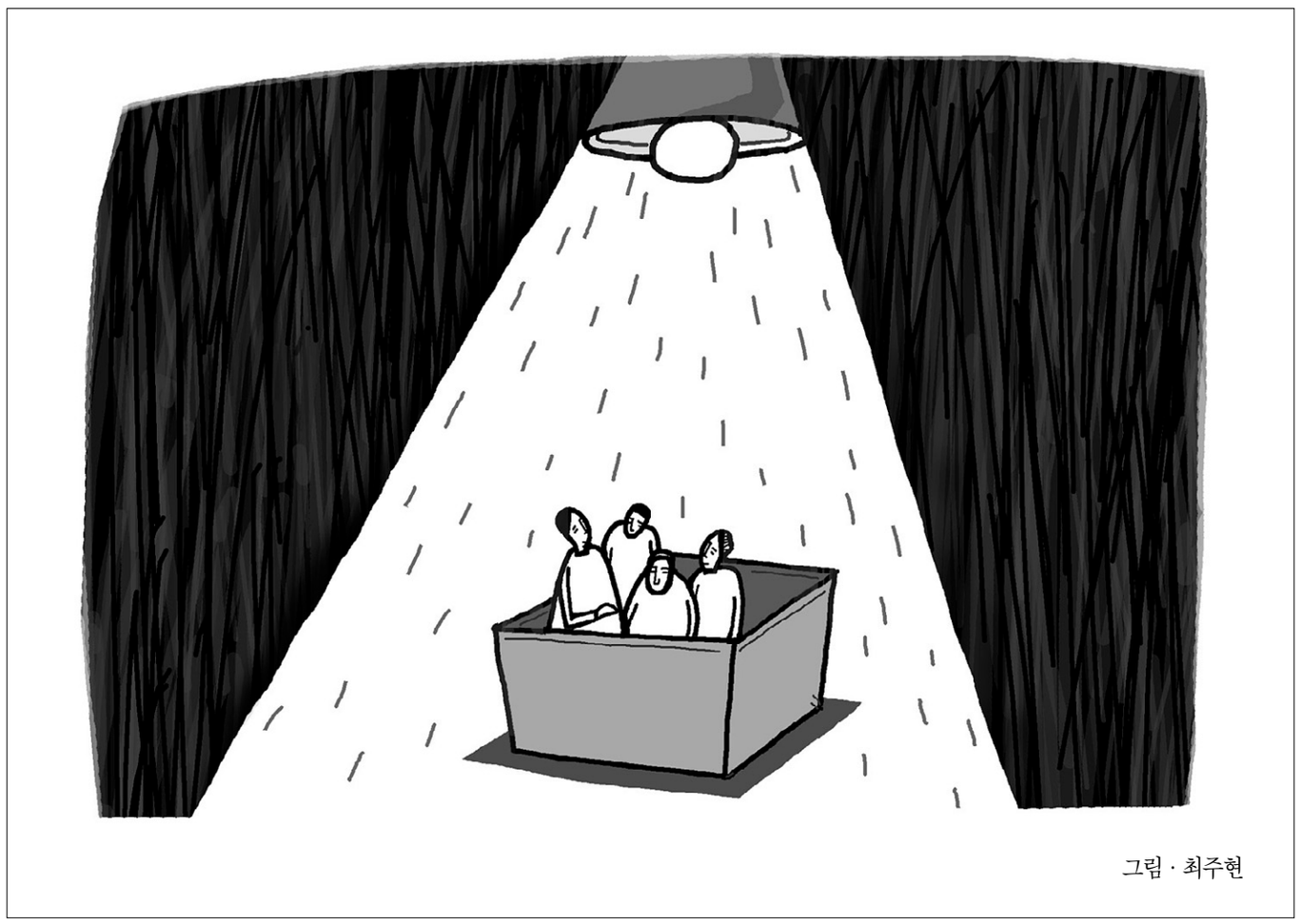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문)** 스님, 세상이 왜 이리 뜻대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동안 식당 일을 조금 거들면서 열심히 모아 놓은 돈이 다 거덜이 났습니다. 앞으로 애들이랑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 세상은 환상이지만 또 환상이 아닌 것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눈물나는 일들이 그렇게 내게 닥치게 되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내 팔자구나 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앞으로 또 그 바퀴를 넘어야 하니 어쩝니까. 그러니 그건 정신이 문제예요. 아니, 오늘 살다 내일 죽으면 어떻고 모레 죽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한 번 죽기는 마찬가진데 누구 말마따나 이판사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살 양으로 바둥바둥하기 때문에 죽는 법이에요. 이 돈도 쫓아가려고 바둥바둥하기 때문에 달아나가는 거지 가만 두고 그냥 저절로 오게끔 해 놓으면 저절로 '아, 이 집에 들어가면 구순하겠구나.' 이러곤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안 와요. 붙들리지 않아요.

이 마음의 묘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얼마나 묘한지 여러분도 자꾸자꾸 경험을 쌓으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업보가 지금 없어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모든 거는 주인공 자리에서 오는 거니까 거기다 맡겨 놓고 죽든 살든, 뭐 죽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육신이 망가졌다가도 다시 소생할 수가 있고 더 안 살려고 그러니까 더 살아지죠. 더 살 양으로 바둥거리면 더 안 살아져요.

또 이렇게 살 양으로 하면 더 안 살아진다더라 이러고 또 생각을 내진 마세요. 그냥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그냥 이판사판 놓는 그 마음이라야지 이거는 생각을 해 가지고 사량으로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주인공만 붙들고 놔 보세요.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환자에게 관법을 일러 주니…**

**문)** 스님, 저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하는 공부를 하고부터 환자들에게 관하는 것을 일러 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환자는 회복이 매우 빠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묘한 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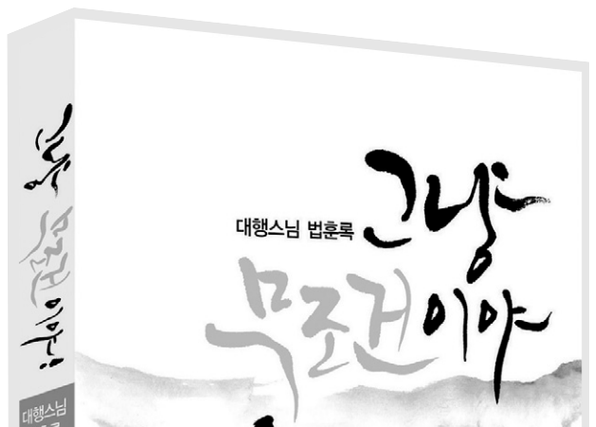
**답)** 네.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게다가 그렇게 일러 주지 않아도 연결이, 그 무(無)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 둘이 아닌 까닭에 될 수 있어.' 하고 관해 보세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한테 찾아와서 어린애가 거꾸로 섰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아이,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한 모양이지, 뭘." 그러면서 관하라고 일러 줍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와서 하는 소리가 "병원에 가 보니까 거꾸로 섰던 게 바로 섰대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고, 누가 대신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자신을 믿고 밀고 넘어가는 겁니다. 소 떼가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욱시글득시글하니까 앞서, 즉 말하자면 소 떼의 왕초가 먼저 건너가야 딴 소 떼도 들어설 텐데, 물에 들어서질 않으면 못 들어가죠. 뒤로 물러서죠. 근데 왕초가 딱 물에 들어가니까, 그냥 소 떼가 전부 다 그냥 물에 들어서 그저 악어 잔등이고 머리고 다 딛고 그냥 비호같이 건넜답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도 어떠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아이구, 이런 건 도저히 못하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러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조그만 걸 가지고도 그래요. 그리고 싸우고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일임하고 관하면 편안하게, 싱글싱글 웃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26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그냥 놔라

# 살 양으로 바둥바둥하기 때문에 죽는 법이에요

☞25면에서 계속

몸뚱이를 외려 혹사를 시키면서 병을 들게 하면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죠. 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자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했다는 얘깁니다. 고(苦)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도리를 한 백지장 사이와 같이 확 이렇게 알면 고가 따로 있나요? 내가 고라고 생각하니까 고지, 고가 없다면, 고라는 이름이 없다면 집착도 없을 겁니다. '고가 있다더라.' 이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이름 그걸 가지고서 집착을 하니까 진짜 고가 되죠. 그게 집착만 벗어지면, 그 이름을 가지고 탓을 안 하면 그냥 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고다 멸한다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여여하죠.

그러니까 고정된 것도 없고 찰나찰나 그냥 화해서 돌아가고 그런데 고가 붙을 자리가 있고 병이 붙을 자리가 있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망가지면 폐차시키고 다시 차를 꺼내면 되고 그렇듯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된 성질이 고쳐지지 않아요**

**문)** 제가 성질이 못돼 가지고 남편이나 애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게 됩니다. 가끔씩 자신을 돌아다보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이 못된 성질이 잘 고쳐지지 않아 속상합니다.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봄이 오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앙당한 가지만 남죠. 그러나 낙엽이 져서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울지도 않고 인내로써 참고 견디면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해도 봄이 오길 기다리는 인내는 물러서지 않는데, 하물며 고등 동물인 사람으로서 조금만 추워도 그저 당황하고 온통 야단법석을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화가 나도 "당신이 그랬어, 뭐 어쨌어." 그러고 자기가 신경질나면 애한테 그냥 막 신경질내고 말입니다. 왜 속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모든 것을 한번 굴려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는 한 뿌리로서 벌써 한 식구라 하면 바로 전기 가설이 된 한방 식구 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켜면, 식구들이 불을 못 켠다 할지라도, 밝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스위치를, 즉 말하자면 주인공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없다고 믿을 때에, 바로 진정코 믿을 때에 거기에서 밝아지면서 식구들이 다 편하게 살죠. 그러니 이것이 무량수와 같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무량수와 같이 죄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래 죄가 없기 때문에 붙을 자리가 없다는 그 자체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오면 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대처해 나갈 뿐이지,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업보도 붙을 자리가 없고 팔자도 운명도 다 붙을 자리가 없으니 그대로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머지않아서 아마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두 다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나가서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딴 데로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자동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신통 그 자체도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야 그 재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신통 안에 매여 있다면 바로 오신통을 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 그 자체에서도 벗어나야 그 재료로다가 오븐에 넣어서 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스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한 그릇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든지, 내가 어느 소굴에든지 들어가 봐야 바로 호랑일 잡을 수가 있고 떡그릇에도 엎드려져 보고 똥그릇에도 엎드러져 봐야 '아하, 부처님이라는 것은 바로 대(對)가 없는 게 부처님이로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믿고 습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 고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고집을 다 버리고 현재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굳이 법당에 가서 예배를 올려야 되는지요**

**문)** 공부하는 사람 몇몇이 자기가 있는 곳이 곧 법당이라면서 굳이 만들어진 부처님 전에 가서 예배를 할 필요가 있냐고 하기에 저 나름대로도 마음으로 하면 되지 굳이 몸이 그렇게 법당을 찾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아이, 그럼 밥도 여러분 마음으로만 먹지 밥을 왜 먹습니까? 아, 마음으로만 먹지 왜 밥을 먹어요? 마음으로만 먹어도 배부르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잡숴 보세요. 그러면 벌이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한다고 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역대의 삼세의 부처님들을 다, 유생 무생의 어떠한 생명도 빠짐없이 한데 합쳐서 내 내공에 있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그 공양을 다 올리고도 남음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하되 사원에 가면 벌써 법당에 올라가서 밥 한 그릇을 올리고 공양 한 그릇 올리는 것이 역시 그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원엘 가더라도 벌써 법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각자 사람마다 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의 내공이 있는 겁니다. 그 내 마음, 내공에 모든 걸 예배 올리는 것입니다, 한군데에. 부처님의 마음이 내 내공의 마음이니, 내공과 그 부처님의 내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에다가 예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바로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숙연하게 항상 고갤 숙이고 겸손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자기 혼자 무엇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안 될 말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뜻으로, 바로 우리가 자기 혼자만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자기 지금 육신과 더불어 망가지는 법입니다. 혼자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9년 설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불태웠건만 '나는 그렇게 불태운 사이도 없고 말한 사이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 잘 생각을 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세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리지 않아야 된다는 법도 조금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올리면서 바로 자기 주인공과 부처님의 주인공,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온 누리를 비쳐 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 올릴 때,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냥 앉아 계신 그 부처님이 왜 그렇게 높고 광대무변하냐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더 행을 잘하시고 더 말도 잘하시고 더 우주법계를 싸고 뒤집었다 젖혔다 뒤집었다 젖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바로 여러분과 부처님의 마음 자체와 둘이 아닌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자 해서, 또 내 마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그런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서 불상을 불신하거나 부처님 전에 예배하는 걸 무시한다면 되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그런 가짐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견성으로 가는 바른 길인지요**

**문)** 나름대로 견성을 향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가끔 어떤 강력한 경험이 옵니다. 뭔가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환희로웠는데 가끔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견성하는 과정에서 옳은 경험입니까?

**답)** 이 '나를 발견한다' 이러는 것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한군데 맡기고 일임하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병도 낫게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모든 걸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진실과 물러서지 않음을 동시에 가졌을 때에 물론 감응이 옵니다. 감응이 오고 그때에는 아주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응이 오는 것은 깨달음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보이게 한다든가 머리로 들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끄달리면 절대 안 되죠. 모든 걸 자기 마음이 자기를 다스리면서 근본에다 다시 놓고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부드럽게, 남한테 이익 하게는 못해 줄망정 해롭게는 하지 말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놓으면서 가면 그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게 견성하는 데에 시발점입니다.

세상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응이 오는 것도, 감응이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욕심부리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저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느긋하게, 아주 진짜로 믿는다면 느긋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든지 우리가 깨치기 전에는 모든 걸 모아서 놓는 것이,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속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모든 것을**
**한번 굴려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홈페이지 참조 - www.psa.or.kr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학 과 | 기간 / 요일 / 시간 | 강 의 과 목 | 비 고 |
|---|---|---|---|
| 불 교 학 과 | [기간 - 2년]<br>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 유식사상 · 화엄학<br>· 대승기신론 · 답사학 | 대학원과정<br>(학사이상) |
| 불교교리학과 | [기간 - 1년]<br>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br>저녁 7시 - 9시 |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br>·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br>· 천수경 · 금강경 | 포교사<br>법 사 |
| 장례지도학과 | [기간 - 6개월]<br>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br>저녁 7시 - 9시 |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br>·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br>·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 장례지도사 1,2급<br>불교장례지도사 |
| 다도예절학과 | [기간 - 1년]<br>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br>·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 다도예절포교사 |



## 불자 세상보기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 · 정치학

# 이명박 정부 3기 내각에 바란다

8월 8일 단행된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에 대하여 여야는 극단으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변화, 화합과 소통, 친 서민을 위한 젊고 활력 있는 개각"이라 본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친이(親李) 편중인사라고 규정하고 "장관급 총리와 총리급 장관을 기용한 최악의 개각"이고 비판하였다.

한나라당은 서민 출신의 40대 젊은 김태호 총리를 기용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기용한 점에서 친 서민적이고 변화와 화합과 소통을 위한 활력 있는 내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것이다. 또 민주당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라는 점과 중앙정치에 경험 없는 총리가 이재오 특임장관, 이규호 교과부 장관 등 실세장관들 속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중점을 두고 개각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평가와는 별개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번 개각의 성격을 보면 주요 정책 기조의 유지, 친정체제 강화, 그리고 포스트 이명박의 정치적 포석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번 개각에서 여야 간 공방이 되고 있던 천안함 사건 등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국방 정책,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기존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4대강 사업 등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와 여 · 야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그런 이견은 6 · 2 지방선거와 7 · 28 보궐선거를 통해 충분히 표출되었으며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국정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정책기조 자체보다도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추진방법에 관한 것이라 본다. 정치를 연극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정권이 상연하는 연극은 내건 이름과 주제가 그럴듯해서 선택을 했는데 관객인 국민들이 보기에 배우들의 연기가 시원찮고 연극의 질이 관객의 수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정상화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본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다. 새 내각은 국정현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당과 정당간의,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아는 넓은 마음으로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무자들이 소신껏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에서 '백 시트 드라이빙'(back seat driving)이라는 것이 있다. 운전기사에게는 어디로 갈지 목표만 정확하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기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일일이 지시하면 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협력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지 일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새 내각에는 너무 개성이 강한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를 대비하려는 생각을 비워야 하며 3기 내각이 차기 정권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기 정권은 국민의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사회주의국가에서와 같이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아니다. 후임 지도자의 선출이 현임 정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예외에 속한다. 역사는 인간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은 그 동안 벌려 놓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 하고 헌법이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차질 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전념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퇴임 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사 설

# 개신교의 위험한 발상과 행보

개신교의 불교 폄훼 행태가 갈수록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월 말 일간지에 광고를 내어 일제 때 불교계가 조선통독부로부터 많은 토지를 받았느니 하며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공표하더니 최근에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과하기는커녕 떼를 쓰듯 하고 있다.

그 의도가 수상쩍다.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의 삭감,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추진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줄게 편성되었으며, 불교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아예 취소됐다는 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다. 문화재 · 템플스테이 · 불교테마공원을 불교의 포교와 등치시켜서 보는 착시에 빠진 개신교계의 주장에 떠밀린 결과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예산이 줄어들어 겪을 당장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다. 문화유산을 보전해야 하는 보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사찰을 방문해 문화재를 감상하거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큰 미적 감흥을 느끼고, 또는 학술적 가치에 주목하기도 한다. 개신교의 일부 단체의 문제는 문화재와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유독 불교로만 보려는 데 있다. 이는 외눈박이의 세상보기이다. 사찰을 찾아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과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불교는 민족의 애환과 함께 했다. 그런 가운데 문화유산을 남겼다.

개신교의 주장 밑바닥에 깔린 기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것을 개신교의 프리즘으로 환원시키고 있으며, 이런 시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아전인수이며 자가당착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개신교가 우리 사회의 중요종교로서의 품격을 오래도록 갖추지 못할 것이다.

# 관심 뜨거웠던 간화선 국제세미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주최해서 열린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2, 13일 이틀간 세미나가 열린 동국대 중강당은 청중들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였다. 학술행사에 매일 1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번 세미나는 선의 특성을 반영해 수행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자리를 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 형식을 취했다. 실참과 연구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어울어졌다는 점에서 신선함을 주었다.

간화선의 전통은 한국에 유일하게 살아있다. 인류를 위한 정신적 · 문화적 자산이다. 불교학술원이 이런 점에 착안해 이번의 세미나를 열었듯이 한국의 선이 세계인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간화선 국제세미나가 일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간화선 국제세미나가 내년에도 계속 열려 인류의 빛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발양되기를 바란다. 간화선의 세계화는 한국불교가 인류에 기여하는 길이다. 학교당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사부대중의 관심이 요청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사부대중 칼럼-자원봉사

이준서
동국대 학생경력개발원장 · 동국참사람봉사단장

# 봉사의 양적 · 질적 확대할때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된 세상입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봉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 학업봉사, 문화봉사, 의료봉사 등. 직장인뿐 아니라 대학생,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봉사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공항에서 옷을 맞춰 입고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해외봉사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야 비로소 자원봉사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을까요? 삶의 수준이 갑자기 향상되어서? 의식수준이 어느 날부터 높아져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봉사활동을 점수화시켜 여기 저기에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입시에는 봉사점수가 반영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봉사점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려 해도 일정점수 이상 봉사점수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봉사는 분명 자원봉사의 근본적인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란 글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남을 받들고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는 기본적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계속성, 이타성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과물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봉사가 사회적으로 대중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음 한 구석은 허전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반 강제적(?)인 봉사 독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봉사활동 인구비율은 전 국민의 20%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봉사의 양적 확대가 아직도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봉사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학교에서 봉사를 학점화하여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비록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봉사를 행했더라도 일단 한 번 접해보았다면 사회에 진출한 후에 기회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판에 박힌 봉사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개발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나눌 수 있는 나만의 봉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그다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든, 지적 능력이든, 특정 기술이든, 금전적 여유든 상관 없습니다. 나눔을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행복을 느끼면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유한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여 나눔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동국대의 건학이념인 불교의 자비(慈悲)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이나마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봉사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봉사자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으며 도덕과 윤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최근 승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 및 교직원들의 나눔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자비복지 협력활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아실현을 성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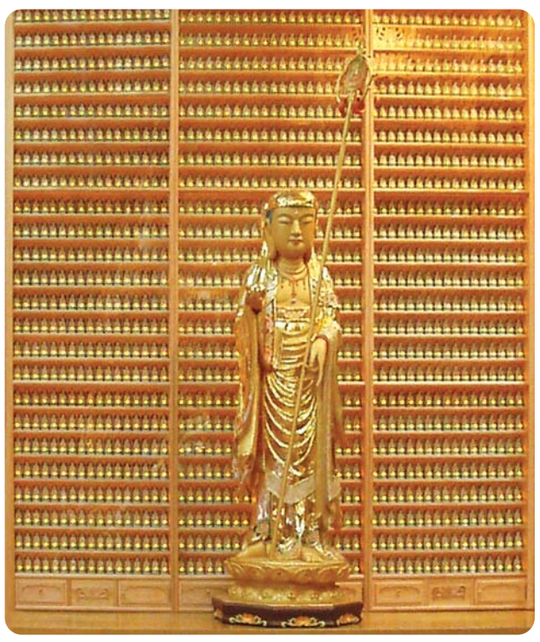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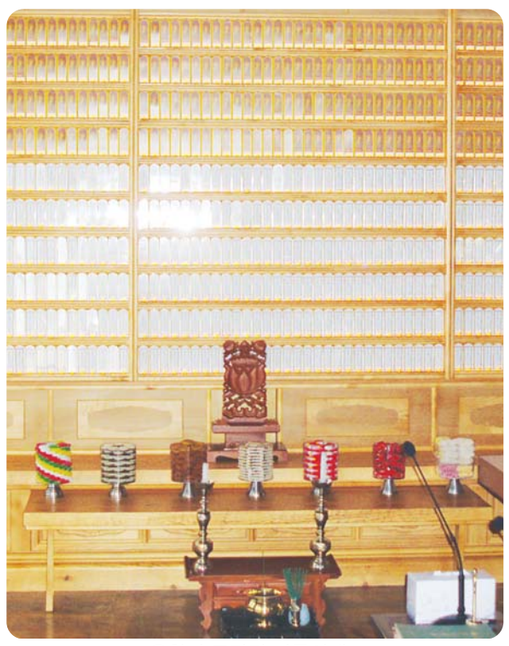
#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 종류 | 일반전구 | 찬덕 LED 전구 |
|---|---|---|
| 소비전력 | 10W | 2W |
| 효율 | 10 lm/w | 50 lm/w |
| 연간전기료 | 2146원 | 429원 |
| 수명보장 | | 30,000 시간 |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가등




왕생극락접등

불교(佛敎)에서의 백중일 유래(由來)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비구(目蓮比丘)가 지옥에 떨어진 모친(母親)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오미(五味)를 가진 음식과 온갖 과실(果實)을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供養)을 했다는 〈우란분경(盂蘭盆經)〉이라는 불경(佛經)의 이야기에서 연유(緣由)합니다.

※ 백중을 맞이하여 영가등 · 왕생극락접등 주문 받습니다.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종 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불교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